

초기 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세미나 7

멀스베리 선교사와 한국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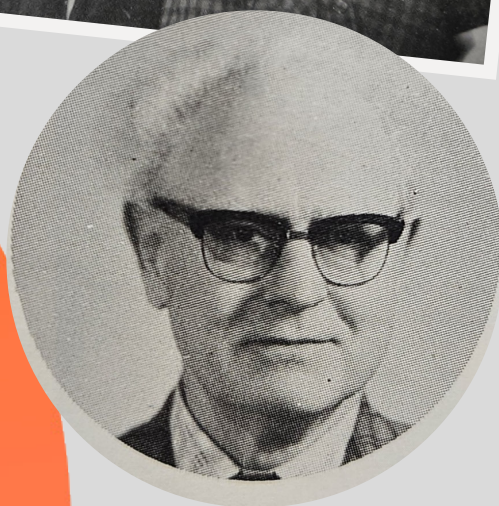


2025.

03.21(FRI)

—— 오후 2시 - 5시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지하 1층 더글라스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02길 41



초기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세미나 7

멀스베리 선교사와 한국교회



제 1부 예배

사회: 오덕교 목사

인도	오덕교 목사 (횃불 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개혁주의연구소 소장)
기도	안명준 목사 (한국성서대학교 초빙교수)
설교	현창학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축도	정효제 목사 (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개혁주의 연구소 이사장)

제 2부 논문발표

사 회: 박응규 교수 (ACTS 명예교수)

격려사: 강덕영 장로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이사장)

2:30 ~ 3:10	강의1	"말스베리의 음악선교(1929~1955)" 이은선 교수 (백석대학교)
3:10 ~ 3:30		휴식과 교제
3:30 ~ 4:10	강의2	"마두원의 해방이후 사역에 관한 고찰" 이종전 교수 (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4:15 ~ 4:45	강의3	"마두원 선교사와 허암 김홍전박사" 이승구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남송석좌교수)
4:45 ~ 5:00		최종 정리 및 인사 오덕교 총장 (횃불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01

말스베리의 음악선교(1929~1955)

I. 들어가는 말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 1899-1977)의 한국 선교사역은 해방 전의 평신도로서의 음악 선교사역과 해방 후에 목회자로서 고신교단과 대신 교단과의 선교사역의 2기로 구분된다. 말스베리의 선교사역은 국내에서 연구가 시작되고 진행되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간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나온 연구 성과물은 해방 전의 음악 선교사역과 해방 후 강원도에서의 선교사역, 그리고 대신 교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몇 개의 논문과 책이 나와 있다.¹⁾

본고에서는 말스베리 선교사의 해방 전의 평양과 해방 후 1955년까지의 음악 선교를 중심으로 그의 선교사역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평양은 1907년의 대부흥운동 이후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발전하던 지역이었다. 대부흥운동을 거친 후에 1910년대 접어들어 평양에 천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들에서 성가대가 조직되어 전문적인 음악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평양에 많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고, 그 기독교 학교들에서 근대교육이 시행되면서 서양 음악 교육이 시작되어 학생들 사이에 서양 음악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그리하여 평양에서는 1910년대 이후에 기독교 학교에서 서양 음악 교육이 시행되었다. 음악 수업이 처음에 가창을 가르치는 형태로 시작된 후에 1920년대 이후에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음악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29년에 말스베리가 평양 숭실전문학교 음악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평양 숭실전문학교가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여 학교를 떠날 때까지 음악을 가르쳤다. 숭실전문학교를 떠난 후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 만났던 사람들이 방지일과 김홍전 등이었다. 그는 1940년까지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다 결국은 추방당하였다. 그는 해방 후에 귀국해서도 음악 교육을 계속해서 한동일과 백건우 같은 음악 지도자들을 교육하였다. 그래서 본고는 다섯 부분으로 평양과 해방 이후 말스베리의 음악 선교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평양에서의 대부흥운동 이후 교회 성장과 기독교 학교의 설립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기독교 학교들에서 음악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1920년대 전문 음악 교육을 받은 3인의 여선교사들의 음악 교육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넷째로 1929년 이후의 말스베리의 음악 선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다섯째로 해방 후의 말스베리의 음악 선교활동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 교회 성장과 기독교 학교의 설립 과정

청일전쟁이 발발했던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기에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은 평양의 복

1) 말스베리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그의 한글과 영문 이력서가 있는데, 이 자료는 「민족과 음악」 24권에 1-11의 “나운영 음악자료 8: 드와이트 말스베리”에 실려 있다. (<https://web.donga.ac.kr/swcho/Text/24/13.pdf>) 그는 *Korea Mission Field* 1934년 2월호, 28-30에 “Koreans and Sacred Music”를 기고했다.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권경란, “선교초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1930년 이전에 활동한 선교사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17-30.;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숭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 8(2016), 89-112.; 박미란, “드와이트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를 통하여 본 현대 음악 선교의 역할과 방향,” 「선교신학」 72(2023), 97-124.; 저술된 책은 다음과 같다. 김재현,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한국에 온 위대한 선교사 50인』(서울: 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14), 267-276.; 김광섭, 전민수 지음, 『마두원 선교사』(서울: 영창서원, 2019).

음화와 문명화(Civilization)의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는 놀라운 진행과 결실이였다. 그로 인하여 평양에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기지가 건설되었다. 1903년 원산 부흥이 일어난 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평양 대부흥 시기 눈길을 끄는 것은 선교사들의 기독교 학교 설립이다. 1906년 평양 지역에만 13개 학교 281명의 학생에서, 1907년 1년 만에 17개 학교 473명으로 성장했다. 선교사 엘머 케이블(Elmer M. Cable)은 이 현상을 가리켜 ‘교육혁명’이라고 했다.²⁾ 1907년 10월 자 Korea Mission Field(이하 KMF)는 당시 상황에 대한 놀라움을 증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부흥 현상 가운데서도 특히 평양에 대해 “도시가 기독교화되어 간다”라면서 “몇몇 교회는 천 명이 넘는 신도들이 예배드린다”라고 기록하였다.³⁾ 평양 사업가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교회를 매개로 인적 연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은 교회 및 미션 스쿨 운영과 발전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며 선순환 구조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학교의 수도 증가하여 1918년 기준 평안남도의 사립학교가 전국 809개교 가운데 141개교로 전국의 17.4%에 차지하였다. 이러한 확장은 서북학회, 대한협회, 신민회 등 계몽운동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중요한 본거지로 평가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⁴⁾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에서 기독교 신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20년 전후에는 평안남도의 교회 수가 265개로 당시 서울과 경기도 보다 많게 되었다.⁵⁾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에 의하면 평양 선교기지를 중심으로 한 보고를 통해 1929년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6만에 이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평양은 종교·문화적 영향력이 응축된 근대적 도시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음악 문화의 예전적인 역할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성장하였다.

1. 장로교 선교기지

평양의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기지가 조성되어 성장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먼저 장로교에서는 사무엘 마펏에 의해 평양 중심의 장대현 언덕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자, 선교사들이 사역의 범위가 크게 되어 평양 내성 서문(정해문)밖 중성 일대에 선교기지를 조성하여 그곳에 서문밖교회와 캐롤라인 기념병원과 베어드 선교사의 주도하에 송의여학교와 송실학교와 송실 전문대학, 데이비드 기념공작소를 건립하였고 선교사들의 거주지를 건축하였다. 그 규모가 컸음으로 평양 주민들은 그곳을 서양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라 하여 양촌이라고 불렀다. 이 장로교 선교기지에 대해 일본인들은 그 넓이를 정해문 밖에 200여 정보 약 60만 평이라고 말하였다.⁶⁾

장로교 선교기지는 들어가는 입구(1번)가 별도로 있었다. 입구 오른편의 평양연합기독교병원(2번)은 감리교의 기흥 병원과 광혜여원, 장로교의 캐롤라인 기념병원이 연합하여 1931년에 새로 건축한 건물이다. 병원 뒤의 서문밖교회(3번)는 1909년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하여 1922

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0920>

3) “Field Notes,” *Korea Mission Field* 3/10 (1907. 10.), 150. Pyeng Yang has in both the Methodist and Presbyterian churches congregations which go considerably over the 1000 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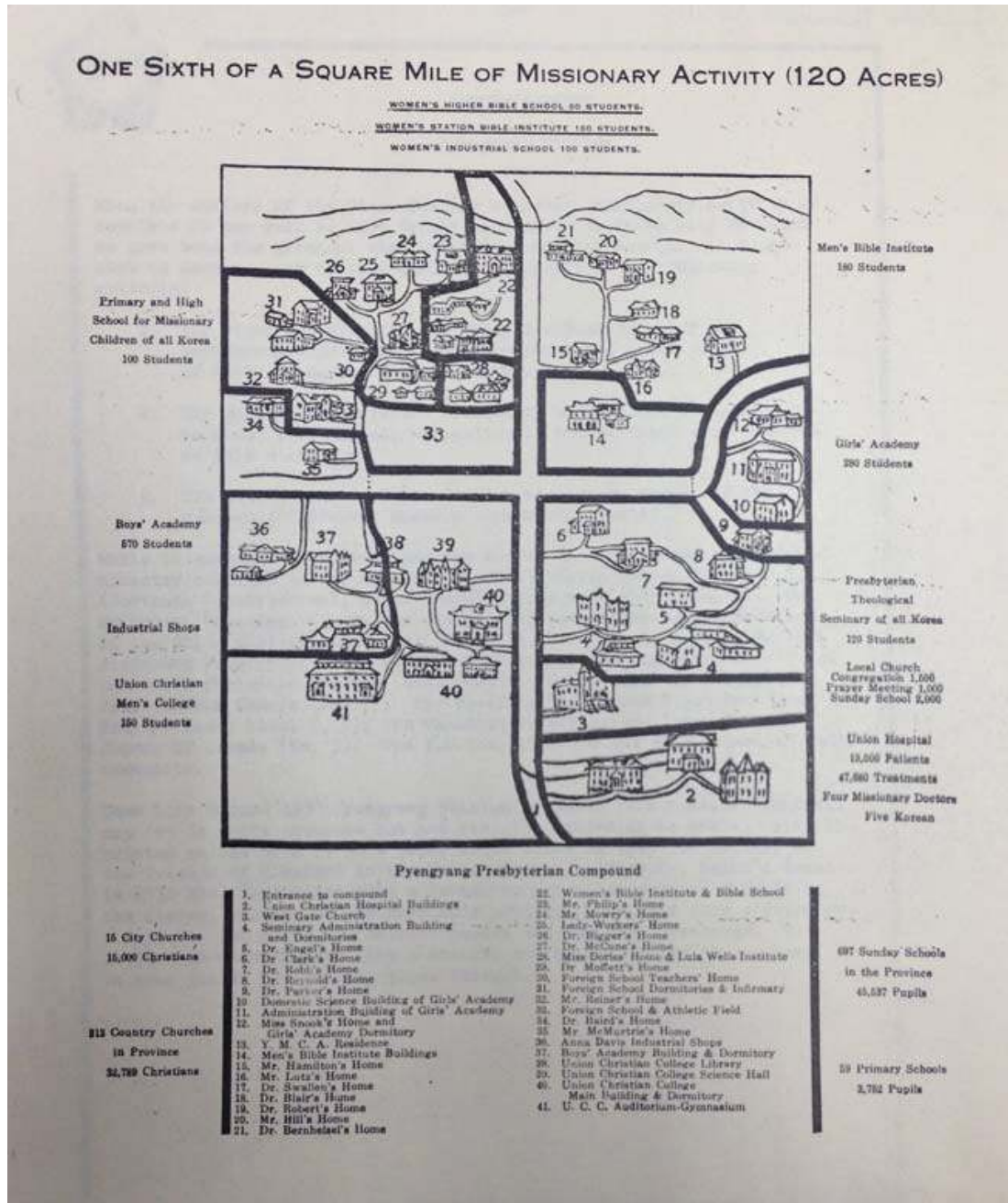
4)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 평양: 1920-30년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음악적 만남,” 『음악학』 제24집(2016), 69.

5)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 평양: 1920-30년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음악적 만남,” 65.

6) 조선혜, “노블 부인의 선교생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2013), 119.; 平壤民團役所 編纂, 『平壤發展史』(東京: 民友社, 1914), 176.

년에 지은 새 예배당으로 1930년대 평양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모였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남녀중학교, 전문학교,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서문밖교회 뒤의 장로교 평양신학교(14번)는 1922년 이곳으로 옮겨 한옥으로 지었다. 선교기지 안에는 남자성경학교(14번)와 여자성경학교(22번), 선교사의 자녀들이 다녔던 평양 외국인 학교(31-33번), 숭실학교 및 전문학교(37-41번)가 자리 잡았고, 안나 데이비스 공작소(Anna Davis Industrial Shop)(36번)가 있었으며, 선교사 사택(5-9, 15-21번, 23-30, 34-35번) 22채가 네 곳에 분산되어 있었다.⁷⁾

1930년대 중반 평양 장로교 컴파운드(compound)⁸⁾



7) 조선해, “노블 부인의 선교생활 연구,”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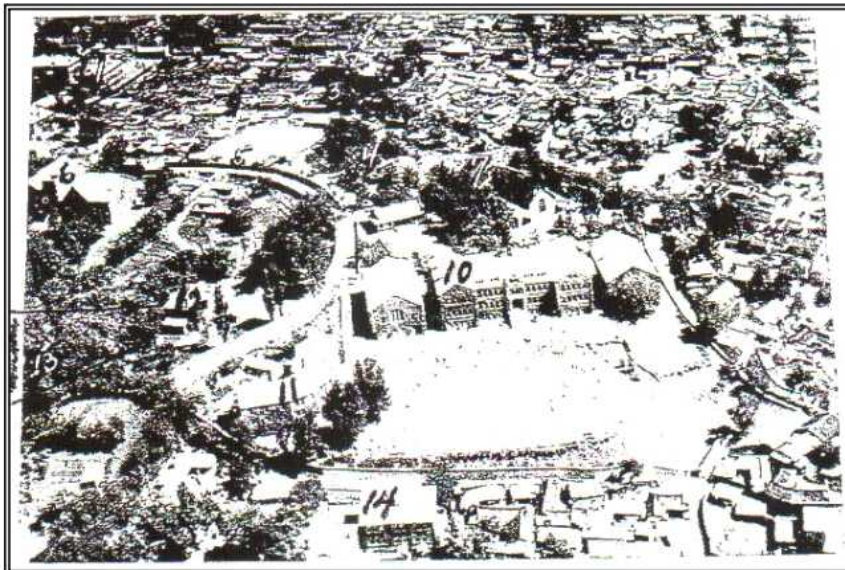
8) 이 선교 기지의 모습은 1932년 3월호 *Korea Mission Field*에 실려 있다.

마포삼열이 장대현 교회 근처에 1894년에 세운 남학교가 송덕학교이고, 1897년 세운 여학교가 송현여학교이다. 그리고 송덕학교의 고등과가 분리하여 1922년에 세워진 것이 송인 학교인데, 일제가 인가를 안 해 주자 1930년에 송인 실업학교로 인가받았다. 송덕학교와 송현여학교는 초등과정, 송실학교와 송의여학교, 송인 실업학교는 중등 과정, 송실전문학교는 대학 과정이었다.

위 조감도는 Korea Mission Field 1932년 3월호 게재되었는데, 여자 고등성경학교 학생 50, 남자성경학교 학생 180명, 평양신학교 학생 120명, 외국인 학교 학생 100명, 송실 고등보통학교 570명, 송의 여자보통학교 280명, 지역교회 회중 1,560명, 주일학교 2,000명, 평안도에 59개 초등학교에 학생이 3,752명이었고, 평안도에 교회가 697개에 주일학생이 45,35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930년 전후 장대현 교회의 교인은 1,209명이었고, 남산현 교회는 1,24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⁹⁾

2. 감리교 선교기지

1920년대 감리교 선교 기지¹⁰⁾



- ①(종합기독병원) ②(정진여자보통학교)
- ③(맹아학교)
- ⑤(테니스장) ④(남자성경학원) ⑧(여선교사사택)
- ⑥(광성학교채플) ⑨(광성사택)
- ⑦(남산현교회)
- ⑫(노블집) ⑩(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
- ⑬(선교사사택)
- ⑪(여학생기숙사)
- ⑭(여자고등성경학교)

감리교 선교 기지는 지금의 류경호텔이 있는 남산현 지역에 세워졌다. 감리교는 먼저 이 지

9) 유관지, “평양지역 감리교 역사와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42 (2015), 213, 207-233.

10) 조선에는 건물 배치 상태로 볼 때 이 사진은 1923년 이후 1931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본다. 조선혜, “노블 부인의 선교생활 연구,” 121.

역에 남산현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교육 기관과 병원을 세웠다. 후에 미국 감리교 측에서 홀 의사 선교사가 세운 종합기독병원과 정진 여자보통학교, 맹인학교, 남자 성경학원, 광성학교, 여선교사 숙소, 정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선교사 사택, 여학생 기숙사, 여자 고등성경학교 등을 그 지역에 건립했다.¹¹⁾

노블 부인이 시작한 소녀 매일 학교는 정진 여자보통학교(700명)(2번)로 발전하고, 1927년에는 정의 여자고등보통학교(500명)(10번)가 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 정의학교에는 기숙사(11번)도 딸려 있었다. 홀 부인은 맹인을 위한 교육사업을 시작하여 평양맹아학교 및 기숙사(35명)(3번)를 설립하였다. 남자 성경학원(100명)(4번)을 세우고 여자 고등 성경학원(200명)(14번)은 정의학교 건너편 성 밖 한국인 민가 옆에 두었다. 1936년 남산현 교회 약사에 의하면 남산현 교회와 관련된 감리교 기관으로 남산현 교회 유치원과 야학교, 홀이 시작하고 노블이 키운 광성 보통학교와 광성 고등보통학교, 노블 부인이 설립하고 발전시킨 정진 여자보통학교와 정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여자 고등 성경학원과 남자 성경학원, 홀 부인이 세운 맹아학교, 기독병원 간호양성소, 종합기독병원 등이 있었다고 전한다.¹²⁾

이렇게 조성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 기지의 교회와 학교가 자연스럽게 음악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며 한국 음악계를 이끌 재목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김형준, 김영환, 박윤근, 박경호, 윤심덕, 현제명, 윤성덕, 김세형, 김동진 등 굵직한 1세대 작곡가들이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 출신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¹³⁾

III. 평양에서 음악 교육의 변화

1. 음악 교육의 다양화: 성가대, 합창대, 밴드의 조직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을 지나면서 기독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신설 학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그에 보조를 맞추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¹⁴⁾ 각 학교에서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192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음악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적인 교사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는 이전의 음악 교육이 음악적 관심과 재능이 있는 비전문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1910년대는 학교 교육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과목명이 가창에서 음악으로 바뀌었다. 1910년대에 학생 숫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음악 교육을 위한 악기는 오르간과 풍금조차도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음악은 가창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10년대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 음악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던 데 반해, 평양에서는 그보다 먼저 다양한 음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미 1913년부터 성가대가 등장하고 송실전문학교의 합창대가 등장하였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는 1913년에 모우리 선교사에게 성가대 조직과 운영을 부탁하였고, 이를 계기로 성가대가 운영되었다.¹⁵⁾ 같은 해에 송실전문학교에서도 ‘음악대·합창대’가 조직되어 음악회와 연주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¹⁶⁾ 한국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반음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11) 조선혜, “노블 부인의 선교생활 연구,” 120. 강석진, “북한교회사 이야기 (9),”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8527>

12) 조선혜, “노블 부인의 선교생활 연구,” 122.

13)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1920~30년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음악적 만남,” 61.

14) 김사랑, “새로운 문화음악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 평양: 1920-30년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음악적 만남,” 77.

15) 길진경, 『영계 길선주』(서울: 종로서적, 1975), 222.

16) 송실전문학교, 『송실전문학교 요람(2009-2010)』(서울: 송실전문학교, 2009), 11.

파악하고 한국인들이 정확한 음정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선정하거나 작곡할 필요성을 인식한 일련의 고민이 담긴 악보집이 1915년에 발간된 『창가집』이었다. 이 『창가집』은 숭실학교 설립자인 배위량(W. M. Baird)의 부인인 안애리(A. L. A. Baird)와 베커(L. B. Becker)가 편찬한 것으로 창가 46편과 찬송가 19곡이 수록되어 있다.¹⁷⁾ 서문에는 음악이 학교 교과목으로 포함된 상황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적합한 노래가 필요하여 편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창가집이 미국 곡조의 음악들을 수록했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오음계에 맞는 음악들을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¹⁸⁾ 그리고 조선인을 위한 5음으로 구성된 2/4박자의 선율을 창작하였다.

교회의 성가대의 조직과 함께 학교 합창대의 조직이 이루어진 후에 밴드가 생겨났다. 이미 1916년 모우리(Eli M. Mowry, 1880-1971)의 주도로 만들어진 숭실 밴드는 건반과 가창 음악 교육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음악 교육을 위한 하나의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17년부터 매년 전국을 돌며 각종 공연과 전도 집회에서 활약한 이력은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합창대 활동은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한 박윤근이 1918년에 교수로 돌아오면서부터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에 성가대를 위한 선곡집이 출판되기도 했는데, 다양한 합창 악보의 편집을 박윤근과 모우리, 조활용 등 숭실에서 활약한 선교사와 교사들이 맡았다. 이같이 1910년대에 접어들어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에서 성가대가 조직되고 숭실학교에서 합창대와 밴드가 만들어지면서 음악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한국인에 적합한 곡을 수록한 창가집이 음악 교육을 위해 편찬되고 있었다.

2. 3명의 여성 음악 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동

이렇게 서양 음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1920년대에 내한하는 음악을 전문으로 공부한 선교사들의 등장은 이러한 학교의 필요와 갈증을 해결시키는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당시에 루츠(Ernice Lenore H. Lutz), 부츠 (Florence E. S. Boots), 솔토(Grace Blanch Z. Soltau) 등의 여러 여성 음악 선교사들이 입국하였다.²⁰⁾ 서울의 이화여전에는 음악과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메리 영(D. Mary E. Young)이 교수로 있었다. 음악 선교사들이 1920년대에 입국하면서 1910년대의 열악한 음악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다. 루츠 선교사는 그녀가 입국했던 1921년 당시 교회들의 음악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17년 전(1921) 한국 교회에 처음 입국했을 때의 인상은 사람들이 합창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휘봉을 든 리더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각자가 자신의 시간과 템포로 곡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불렀고, 같은 가사를 열정적으로 노래한다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없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 교회에서도 회중은 찬송가를 원래 쓰인 대로 부르거나 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지금은 대부분 교회에 오르간이 있고, 몇몇 교회에는 피아노가 있고, 몇몇 교회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며, 회중 노래의 발전이

17) 민경찬, “안애리가 편찬한 <창가집>,” 『낭만음악』 48 (2000), 223.

18) 김사랑, “‘문명’의 노래, 조선인을 ‘위한’ 음악교육: 1910년대 선교사가 만든 『창가집』 분석,” 『이화음악논집』 17/2(2013), 49.

19) 『매일신보』 1917. 1. 1.; 『매일신보』 1917. 1. 7.; 『매일신보』 1920. 6. 12.

20) 박미란, “드와이트 말스베리(Dwight Malsbary)를 통해서 본 현대 음악 선교의 역할과 방향,” 『선교신학』 72 (2023), 99.

매우 컸다.²¹⁾

1920년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교회에 오르간이 갖추어졌고, 피아노와 함께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교회가 등장했으며, 그에 따라 회중들의 찬송하는 실력도 향상되었다.

특별히 1920-30년대에는 학교 교가를 비롯해 주일학교나 예배와 집회 때 제창할 수 있는 노래들은 물론 성가대만을 위한 합창대용 악보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노래집을 선보였다. 1923년에 출판된 『음악대해(音樂大海)』는 음악 이론과 성가 악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당시 교회 주일학교와 기독교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한 성가대 및 합창대를 위한 『성가대용 성가선집(聖歌隊用 聖歌選集)』(1929), 『특선 200곡집』(1937), 일반 교육용 노래들과 성가를 수록한 『가곡선집(歌曲選集)』(1929)과 『선발창가집』(1930),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가요선집(兒童歌謠選集)』(1938) 등 이전과는 달리 세분화된 목적과 대상을 고려한 악보집이 출간되는 특징들을 나타낸다.²²⁾

이러한 음악의 발전에는 그 이전부터 모우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의 노력과 함께 1920년에 입국한 전문 음악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21년에 세 명의 여성 음악 선교사들이 평양에 입국하여 교육하기 시작하였고, 1929년에 말스베리가 입국하였다. 이들은 모두 북장로교 소속의 음악 선교사들이었다.

1921년 내한한 루츠는 오벌린 유치원 교사 양성 학교(Oberlin Kindergarten Training School) 및 오벌린 컨서바토리(Oberlin Conservatory of Music)를 졸업하고 모레이 음악 학교(Morey Music School) 등에서 성악 및 합창 지도 교사를 지낸 음악 전문 선교사이다. 공립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활약하기도 한 이력을 바탕으로 한국 선교사 재임 시절에 여러 학교와 교회에서 노래교육과 합창 교육에 힘썼다. 루츠 선교사는 평양 외국인 학교와 여학교의 성악과 합창을 담당하면서, 평양 여자신학교에서 음악을 교육하며 합창 및 성가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등 평양을 중심으로 성가대 발전에 공헌 하였다.²³⁾ 개인 이력서에 따르면, 송실전문을 비롯해 평양소재 미션 스쿨과 신학교,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1921년부터 1940년까지 평양 내 음악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했다.²⁴⁾

솔토 선교사는 엘퀸 음악대학(Elqin College of Music)을 졸업한 음악 교육가로, 1921년 내한하기 전까지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피아노와 오르간을 지도하였다. 솔토 선교사는 1921년부터 9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송실전문학교를 비롯해 평양 외국인 학교, 송의여학교, 신학교 등지에서 음악 교육에 힘썼다. 그녀는 송실 출신이자 우리나라의 1세대 음악가인 작곡가 김세형과 피아니스트 박경호를 제자로 길러내기도 했다. “Melody Way”라고 하는 피아노 초급교수법을 번역하고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피아노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연습용 건반 키보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반악기 교육의 열의를 보여주었다. 교육뿐만 아니라 공연 문화를 이끌기도 하였는데, 산정현교회에서 주최한 대음악회나 평양 시내 남녀 중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 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에 출연하여 피아노 독주와 합창 반주를 선보였다.²⁵⁾ 그녀는 1927년에 안식년을 맞아 주로 미국에서 음악에 깊은

21) Lutz, ““Music in Korea-Old and New,” *Korea Mission Field* 34/4 (1938. 4), 76-77.

22)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75.

23)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73.

24)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78.

25)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78.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아 음악 선교보다 음악 자체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부츠 선교사는 비버 대학(Beaver College)과 제네바 대학(Geneva College)에서 수학한 음악 전문가이다. 그의 행적은 평양 외국인 학교, 이화여전, 서울 외국인 학교와 중앙악우회 등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남편 남편인 존 레슬리(John Leslie Boots)가 세브란스에서 치과의사로 일했던 관계로 경성에서 주로 머물며 활약하였다.²⁷⁾ 1925년부터 이화여전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교수하였으며, 바이올린 등을 개인 교습하기도 하였다. 1926년엔 피아니스트 박경호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관현악단인 중앙악우회를 결성하여 1928년 창단 연주회를 갖기도 하였다. 각종 음악회에서 주로 바이올린 독주를 담당하였는데, 합주나 음악감독으로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1928-29년도에 평양 외국인 학교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교육을 맡아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평양에서 주로 활약한 루츠 선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였다는 보고서 내용 등을 미루어보아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이들 세 선교사는 평양 여러 학교에서 과외활동을 통해 피아노를 중심으로 음악을 가르쳤고, 밴드와 오케스트라를 지도하였다. 이러한 여성 선교사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음악을 가르쳤으며, 말스베리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스베리가 들어온 후에 같은 평양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협력 사역을 할 수 있었다.

IV. 말스베리의 평양에서의 음악 선교사역

1. 말스베리의 성장 과정과 한국 선교사 파송

말스베리는 1899년 5월 22일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Stockten)에서 9남매 가운데 7번째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신앙과 음악이 넘치는 가정이었다. 그의 아버지 알버트 말스베리(Albert Malsbary)는 매일 가정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교육하였다고 한다. 가족 모임은 주로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가나 미국 민요를 부르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19세까지는 스스로 피아노를 익혀가는 시간이었다. 그가 보낸 어린 시절의 이러한 신앙과 음악적 분위기가 말스베리가 음악 선교사가 되는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인 그는 19세에 프레소노(Fresno)로 옮겨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음악 선생님인 만스펠트 부인(Mrs. Mansfeldt)에게서 2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다. 1921년 캘리포니아주의 폴리스노젤 대학을 졸업했다. 1922년 1월 9일 폴린(Pauline S. Malsbary, 마포린)과 결혼했다. 그녀도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가였다. 그는 1922년 9월에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 있는 셔우드 음악원(Sherwood Music School)에 가서 피아노와 음악 이론을 배우기 시작하여 1929년 5월까지 공부하였다. 그는 1924년에 셔우드 음악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영문 이력서에는 1926년에 음악 학사 학위(BACHELOR OF MUSIC DEGREE)를 받았고, 음악 석사 학위과정을 공부하여 GRADUATE DIPLOMA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학사 학위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 대위법, 캐논, 푸가 등을 배웠다. 그는 1927년부터 1929년까지 피아노를 계속 공부하면서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 지휘 등의 사회활동을 함께 하였다. 이러한 과목에는 밴드

26) 김사랑, “1920~30년대 음악 전문 여성선교사: 미북장로교 선교부 파송 주요 선교사를 중심으로,” 『음악학』 24/2 (2016), 20.

27) 김사랑, “1920~30년대 음악 전문 여성선교사: 미북장로교 선교부 파송 주요 선교사를 중심으로,” 21.

28)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77-78.

29)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송실,” 94.

편곡 및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밴드나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를 가르치는 방법도 포함되었다. 그는 또한 셔우드 심포니 오케스트라(Sherwood Symphony Orchestra)에서 더블베이스를 연주했다. 그는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1926년부터 음악 이론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학회지 자문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처의 시세로 성경 교회(Cicero Bible Church)라는 대형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³⁰⁾ 이와 같이 말스베리는 음악에서 상당한 훈련을 받고 지휘까지 직접 경험한 전문적인 음악인이었다.

그는 시세로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맥카렐(McCarrell)의 영향으로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³¹⁾ 그러던 차에 평양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송실전문학교에서 가르치던 곽안련(Charles Allen Clark)를 소개받게 되었다. 곽안련은 송실전문학교에서 가르칠 음악 선교사를 찾고 있었다. 셔우드 음악학교 총장인 류엘린(Lewelyn) 박사는 말스베리 부부를 송실전문학교 음악 선교사로 초청해 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류엘린 박사, 드와이트와 폴린, 젊은 부부가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셔우드 음악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데 한국 송실대 음악 선교사로 초청해 주시오.³²⁾

자신들의 이름이 적시된 편지를 받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평양으로 부르신다고 판단하고 1929년에 북장로교 소속의 음악 선교사로 한국을 향해 출발하였다. 곽안련 박사는 송실전문학교 합창대의 전도 열정과 함께 전문적인 음악 지도자의 필요성 때문에 음악 선교사를 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말스베리를 초청하게 되었다.

2. 평양에서의 음악 교육

말스베리가 북장로교 소속의 음악 선교사로 출발할 때, 그는 평신도 사역자로 출발하였다. 그는 1929년 8월 31일에 2살짜리 아들과 함께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는 평양에 올 때 송실전문학교 음악학부장과 평양 외국인 학교 음악 책임자로 왔다. 그렇지만 말스베리가 평양에 왔을 때, 송실전문학교에는 음악학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으로서의 음악 수업도 그때까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송실전문학교에 서양 음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 그래서 말스베리는 방과 후에 서양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악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말스베리의 송실전문학교에서의 음악 수업은 방과 후의 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크게 볼 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말스베리는 음악을 가르쳤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선교사 신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음악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첫째는 서양 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피아노 수업이었다. 그 자신이 피아노 전문가였으므로, 학생들에게 피아노 교습을 전문으로 실시할 수 있었고, 음악 이론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피아노 수업과 이론 교육은 한국의 초기 한국 음악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1세대 서양 음악가들은 대부분 말스베리를 그의 스승으로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작곡가 김동진, 피아니스트였으며 『音樂』이란 잡지를 출간했던 최성두(崔聖斗), 전북 관현합창단을 창립하

30) 나운영, “나운영 음악자로(8): 말스베리 이력서,” 『음악과 민족』 24 (2002), 6.

31) 김재현,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서울: 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15), 271.

32)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송실,” 95.

고 지휘했던 김홍전, 피아니스트 한동일, 피아니스트 백건우 등이다.³³⁾

말스베리의 영문 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송실전문학교와 외국인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양의 여학교인 감리교의 정의 여학교와 장로교의 송의여학교 학생들까지 가르쳤다. 그러므로 당시에 평양에서 피아노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에게서 레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말스베리가 가르쳤던 유명한 두 명의 여학생은 정다비다와 한인하가 있었다. 정다비다는 그에게서 배운 후에 이미 평양에서 훌륭한 피아노 교사로 유명하였고, 후에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던 박대선의 부인이 되었다. 한인하는 평양에 있는 일본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그에게 2년간 레슨을 받고 일본에 가서 우에노 대학에 합격하였다. 그녀는 후에 음악대학 교수가 되었다.

둘째로 그는 피아노 교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음악 이론을 가르쳤다. 말스베리는 방과 후 음악 활동을 통해 합창, 밴드,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 연주법을 통해 음악 선교의 토대를 놓았다.³⁴⁾ 김동진은 그를 통해 다양한 음악 수업을 받은 것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하루는 어떤 기회로 ‘봄이 오면’과 함께 ‘가고파’를 나의 스승에게 보여드렸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너는 작곡가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바이올린만 아니라 화성학, 대위법, 작곡법 등을 배우도록 하라’ 하시면서 나에게 송실전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부 가르쳐주셨다. 이 노래는 그후 친구들이 많이 불러 널리 세상에 알려졌다. 이처럼 이 노래가 유명해지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며, 그 당시에는 몇몇 성악가들의 애창곡으로 무대에도 올려졌다.”(‘가고파’)³⁵⁾

3. 음악대를 통한 전도 활동

말스베리는 학생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이미 조직되어 있던 음악대를 교육하여 그들이 이끌고 전국적으로 전도 여행을 하였다. 평양에서는 이미 모우리 선교사가 1913년에 음악 교육을 하여 합창단을 조직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음악회와 연주회 전도를 하고, 음악대(音樂隊)를 조직하여 남한 일대를 순회 전도를 하기도 하였다. 1917년 <매일신보>는 당시 송실 음악대의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평양 사립 송실대학 교원 생도 약 20여명으로 음악대를 조직하고 오랫동안 음악을 연습하였는데 근래에 그 기예가 숙달되었으므로 이를 조선 각 도시에 파견하여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방문할 곳은 경성, 군산, 광주, 전주, 목포, 대구, 마산, 천천 등이오 경성에서는 오늘 4일 오후 7시 반에 종로 청년회관에서 제1회를 개최할 터이요... ³⁶⁾

「매일신보」 1917년 1월 7일자에는 1월 4일 오후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음악대 공연 소식을 전하는데, 이들은 남선지방 수학여행을 겸해 공연을 하고 있으며, 5-6백명이 연주회에 참석하였고, 독창, 합창, 피아노 사현금 등의 여러 가지 연주가 있었다.³⁷⁾ 이 신문은 1917년 1월 11일자에 광주에서 평양 송실학교 음악단의 공연 소식을 “학생단 來光”이란 제목으로 전

33) 권경란, “선교초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1930년 이전에 활동한 선교사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17.

34) 박미란, “드와이트 말스베리(Dwight Malsbary)를 통해서 본 현대 음악 선교의 역할과 방향,” 116.

35)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6>

36) 『매일신보』 1917년 1월 1일자 3면.

37) 『매일신보』 1917년 1월 7일자 3면.

하고 있다.

평양송실전문학교 음악단 18명은 6일 교사의 인솔하에 7일 오후 7시 반 楊林耶蘇敎念閣(오웬 기념관?)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수는 日鮮유지 450명에 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8일 오후에 목포로 간다더라.³⁸⁾

서양 음악이 수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실의 합창대와 음악대의 공연은 45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치러질 만큼 당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박윤근은 1918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송실학교에서 근무하며 음악교재의 번역, 피아노와 올겐의 교습을 하며,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조직 등 체계 있는 음악 교육을 시도했다. 그의 문하에 김세형, 박태준, 현제명, 김형준, 박경호, 차재일, 위혜진 등 한국 음악사를 장식했던 인물이 배출되었다. 이들이 하던 일을 말스베리가 하게 되었는데, 그는 평양의 서양 음악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전문 음악 선교사였다.

말스베리는 송실학교 밴드와 합창대를 가르쳤다. 김동진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송실 중학교 때 공부를 가르친 것은 아냐. 처음에는 중학교에 있는 밴드를 지도했지. 중학교에는 차재일씨라고 한국 음악 선생이 따로 있었고 개인으로 재간이 있다고 나만 배웠어. 송실 전문학교에 올라가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공부했지. 그분은 송실대학에서도 공부 시간에 가르친 것이 아냐. 주로 밴드, 합창, 개인지도를 했고 외국인 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지 … 당시에는 평양의 교회에서 찬양대엔 음악 전문가들은 없었어. 말스베리 선생이 와서 처음으로 지휘하기 전에는 없었어.³⁹⁾

김동진의 회고와 같이 말스베리는 주로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개인지도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가르쳤는데, 주로 개인지도와 함께 밴드와 합창을 가르쳤다. 말스베리 선교사는 같은 평양 선교부 소속 선교사인 루츠 선교사와 함께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음악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는 이 학교에서 피아노와 밴드 콘서트를 가르쳤다. 오리지널 밴드를 위한 작곡도 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형식의 콘서트에서도 연주하였다. 여러 가지 형식이란 피아노를 보컬리스트 등과 함께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⁴⁰⁾

그는 이렇게 가르친 송실 밴드를 이끌고 평양과 한국과 만주의 다양한 도시들 - 사리원, 서울, 대구, 원산, 성진, (만주의) 신광(Shin Kyang),⁴¹⁾ 신의주 등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콘서트에서 말스베리는 언제나 여러 번의 피아노 솔로를 연주했다. 말스베리 부인(Pauline E. Malsbary)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셔우드 음악학교 출신으로 피아노를 전공했다. 전문 반주자인 말스베리 부인은 다수 성악가와 함께 무대에 섰으며, 평양 외국인 학교에

38) 『매일신보』 1917년 1월 11일자 2면.

39) 권경란, “선교초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1930년 이전에 활동한 선교사 중심으로),” 18.

40) 권경란, 2 “선교초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1930년 이전에 활동한 선교사 중심으로),” 3.

41) 신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신경은 장충의 영어식 표기명이며, 만주국의 수도였다. 1938년 일본 고등음악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김동진은 만주로 향한다. 당시 만주 신경에서는 새로 교향악단을 조직하기 위해 널리 단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부친의 친구인 신경교회의 김창덕 목사가 그를 꼭 그리로 오라고 종용한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만주국 수립 10주년 기념 경축 음악회에서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만주 등 5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할 때 일본 유학 시절의 작품 ‘양산도를 주제로 한 바이올린 제1악장’을 직접 지휘해 대호평을 받는다.(<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6>)

서 피아노를 교육하였다. 남편 말스베리와 함께 피아노 듀오를 연주하기도 하는 등 당시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⁴²⁾

송실 전문학교의 음악 연주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활동은 1930년대 초반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31년 2월 7일 송실전문학교 순회음악회가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렸는데, 1부 합주, 독창 권태호, 합창, 피아노 獨彈 스칼조 마두원, 2중창, 합주, 2부 합창 바울린 독주 한영교, 4중창, 남성 독창, 피아노 독주 마두원, 합주 등으로 진행되었다.⁴³⁾ 이와 같이 마두원은 1, 2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였다. 춘계음악회로 열린 음악 연주회는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서양음악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식민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을 되새기는 감동의 자리였다. 음악회에서는 합창과 밴드 연주 그리고 말스베리 선교사 부부의 피아노 연주가 그 목록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 활약했던 권태희, 서원숙 등의 음악가들의 음악도 한자리를 차지하였다.

일 년 뒤인 1932년 2월에도 평양, 개성, 서울로 이어지는 연주회가 열렸는데, 평양에서는 4천명이 넘는 관객이 몰릴 정도였다. 1932년 2월 7일 일요일 기사인데, 다음과 같다.

송실전문학생기독교청년회 음악부 주최와 동아일보 평양지국 후원으로 송전음악 연주회를 오늘 13일 송전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주요 곡목은 밴드, 코러스와 말스베리의 독주 기타 테너 독창자 송의 합창대 정의 소프라노 황순옥 씨의 조연이 있으리라 한다. 출연자가 24명 조연자 40명에 달한다.⁴⁴⁾

이때 계획은 개성이 16일 경성이 20일 연주라고 보도하였다. 2월 16일 자는 13일의 공연 상황을 전하는데, 입장객이 4천 명을 돌파하여 평양에 악단이 조직된 후 공연의 기록을 세웠다. 송실대 강당이 6천 명을 수용하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다.⁴⁵⁾ 이날은 주로 한국인들을 위해 공연을 하였는데, 너무나 반응이 뜨거워, 16일에는 평양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공연을 한 후에 18일에는 개성, 20일에는 서울에서 공연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⁴⁶⁾ 실제로는 하루씩 밀려서 개성에서 19일, 서울에서 21일에 개최되었다.

1932년 2월 21일에 서울 하세가와정(長谷川町) 공회당(公會堂)에서 열린 송실전문학교 춘계

42)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80.

43) 『매일신보』 1931년 2월 7일자 2면.

제1부

1. 합주 『오버-추어』 『行進』
2. 남성 고음독창(高音獨唱) 『曉鐘』 『말타』 權泰浩
3. 합창 『바람아 부러라』
4. 피아노獨彈 『스칼조-』 馬斗元
5. 2중창 『들장미』 『메리위도』 權泰義 徐元滿
6. 합주 캠퍼스의 추억

제2부

1. 합창 『榮光돌니리』
2. 바요린독주. 韓永教
3. 4중창
4. 남성 고음독창 『夜花岩』
5. 피아노獨奏 馬斗元
6. 합주 『行進』 『校歌』

44) 『매일신보』 1932년 2월 7일자 3면.

45) 송실전문학교는 1930년 10월 10일에 5천명을 수용하는 대강당을 신축하였다.(나무위키)

46) 『매일신보』 1932년 2월 16일자 3면.

음악회 순서에서 1부에서 말스베리의 피아노 독탄과 2부에 말스베리 부부의 병탄 순서가 들어가 있었다.

춘계음악회 곡목

제1부

1. 밴드 - 송전악대
2. 소프라노 독창 - 임성숙
3. 코러스 - 송전 합창대
4. 피아노 독탄 - 말스베리
5. 이중창 - 권태희, 서원숙
6. 밴드 - 송전 악대

제2부

1. 코러스 - 송전합창대
2. 테너 독창 - 권태희
3. 피아노 병탄 - 말스베리 부부
4. 사중창 - 권태희, 박태기, 김철휘, 서원숙
5. 코러스 - 이전(이화여전) 합창대

평양송실전문학교 학생 연주회 주최의 남조선순회 전도강연단 일행의 5인이 1932년 7월 7일 오후 8시 반에 순천읍 예배당에서 음악과 강연을 하였는데, 천여 명이 운집하였다.⁴⁷⁾ 1934년 3월 6일에는 송실 전문 졸업생을 위한 경축음악회가 평양 시민의 잔치로 여겨질 만큼 관중을 열광시켰다. 이해 6월 2일에 열린 송전 YMCA 음악부 주최 평양초하(初夏)대음악회에는 말스베리와 김동진이 송전 밴드, 송의 합창대, 송전 합창대, 외국인 밴드와 함께 참여하였다.⁴⁸⁾ 이 행사에는 평양의 장로교 교육 기관의 모든 합창대가 참여하였다. 특히 이 해에는 만주 지역에서 음악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말스베리를 통해 실력이 향상된 음악대는 송실대 전도대와 동행하며 공연했다. 전도대는 음악 공연 전이나 후에 객석의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음악으로 이미 마음이 열린 관객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었다.⁴⁹⁾ 이러한 연주회를 통한 말스베리의 음악 선교활동은 서양 근대 교회 음악에 대한 교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시대적인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치유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⁵⁰⁾

이같이 말스베리는 합창단과 밴드부 등을 조직하여 서울은 물론 만주까지 연주 활동 범위를 넓혔다. 송실의 얼을 전달하고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며 복음을 전파했던 이러한 연주 활동은 일본 경찰의 비위를 거슬렀고, 결국 1935년 이후 전도 음악회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음악

47) 『매일신보』 1932년 7월 11일자 3면.

48) 말스베리는 1933년 11월 3일에 열린 송의여학교 음악대회에 루츠 부인과 함께 참여하여 피아노를 연주하였다. 오동은, “송의여학교의 1903-1938년까지 음악교육 및 합창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음악논집』 28/4 (2024), 137. 107-150.

49) <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55>

50) 박미란, “드와이트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를 통하여 본 현대 음악 선교의 역할과 방향,” 110-113.

활동은 축소되었다. 일본의 문화정책은 우리 고유의 음악 억압정책으로 나타났고, 숭실전문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의 노력에도 우리의 노랫소리는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4. 말스베리의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와 당시 상황에 대한 소개

그는 한국에서 4년 동안 활동한 후 1934년에 Korea Mission Field에 기고했던 “Koreans and Sacred Music”에서 자신의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와 당시 자신의 교육을 통한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음악을 좋아하면서도 음악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음악적인 재질이 있음을 논하는데, 자신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그들이 보통 두 종류에서 네 종류의 소리를 내는 일종의 즉흥적인 곡조로 단어들을 읽는 것을 들었다”고 회고한다. 한국인들은 주로 5음계 가운데 부르기 쉬운 비활성화된 3개의 음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활성화된 음이 부족해서 높은 수준의 음악을 정확하게 부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서양의 음악은 7음계에 민감한 음 5개가 있어 훨씬 더 음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⁵¹⁾ 음악에 다양한 음들이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통합되어 가는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 속에 하나님의 음악에 대한 섭리가 있다고 본다. 그는 무속과 점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사단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보았고 한국 잔치에서 악기 연주가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음악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⁵²⁾

그는 이 글을 통해 음악 선교의 목적을 설명한다.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음악을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그 위에 부으신 놀라운 복들 때문에 음악을 만드시고 계획하셨다고 믿는다”고 하였다.⁵³⁾ 그에게 있어서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고 선교적 사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였다.⁵⁴⁾ 그는 또한 음악의 형식과 신학적인 측면을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음악이 마지막에 주요 음들로 돌아가 완성되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가 그의 몸(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안식과 완성을 발견하는 것”과 연결한다. 음악이 주요 음들을 중심으로 완성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끌려 그 분 안에서만 완전한 안식과 완성을 발견하는 것을 상호연결시킨다. 음악의 주요 음을 중심한 통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통일과 형식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음악 형식의 신학적 오묘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말스베리의 입장은 신적인 질서를 음악 안에 반영한다는 바흐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바로크 시대의 음악 수사학의 형식이다.⁵⁵⁾ 그는 또한 음악의 영적인 목적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음악의 대가인 다윗은 음악의 가능성과 능력을 알았고 이해했음에 틀림없다. 세상의 평범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어느 날인가 음악을 영적인 목적을 위해 훌륭하게 사용할 것을 알았고 이해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즐거운 소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⁵⁶⁾ 찬양은 음악의 능력과 가능성을 사용하여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51) D. W. Malsbary, “Koreans and Sacred Music,” *Forea Mission Field* 28/2 (1934. 2), 28.

52) D. W. Malsbary, “Koreans and Sacred Music,” 29.

53) D. W. Malsbary, “Koreans and Sacred Music,” 29.

54) 박미란, “드와이트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를 통하여 본 현대 음악 선교의 역할과 방향,” 108.

55) 박미란, “드와이트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를 통하여 본 현대 음악 선교의 역할과 방향,” 108.

56) D. W. Malsbary, “Koreans and Sacred Music,” 29.

위해서 부를 뿐만 아니라 부르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아 기쁨, 사랑, 확신, 소망을 가져다주어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을 채워주는 것이다.

선교사들과 함께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선교 학교에서 음악이 발전하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일이 발전한 것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선교사들은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음악을 장려했고 사람들이 성장할 기회를 갖도록 기꺼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독주, 합창, 기악 연주를 장려했고, 많은 한국인이 복음 음악의 발전을 위해 충실하게 일했다. 학교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음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한국인이 특히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귀가 훈련에 반응하고, 독주자와 교사로서 전문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합창단이 조직되었고, 4중주단이 훈련되었고, 기악 연주가 시작되었다. 제가 왔을 때, 저는 음악에 대한 강렬한 관심과 매우 유망한 활동이 잘 확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양 대학 밴드는 21명으로 성장했다. 이제 대학과 아카데미(송실중학)를 합치면 40명의 밴드가 있다. 한국 전역에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의 콘서트는 항상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 곳곳에서 학생들이 훌륭한 기예로 여러 악기를 연주한다. 저는 재능이 있는 소년들이 오래된 오르간, 낡은 코넷, 또는 좋은 악기를 살 돈이 없어서 값싼 바이올린을 혼자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곳의 사람들은 더 많은 음악을 간청한다. 특히 그들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래로 도울 필요가 있다. 더 많고 더 나은 장비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더 많은 교사를 통해 그들을 도와주세요. 각 선교사는 멜로디 악기인 코넷, 색소폰, 트롬본 또는 클라리넷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고 그들이 노래할 때 함께 연주해야 한다. 기회는 무한하다.⁵⁷⁾

말스베리는 음악 교육을 통한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복음 전파의 가능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음악교육을 통한 “기회는 무한하다”고 말한다.

5. 말스베리의 제자 육성

말스베리는 이러한 음악 교육을 통해 여러 명의 제자를 육성하였다. 1929년부터 말스베리 선교사의 음악 지도를 받은 많은 음악인이 배출되었다. 한국 음악의 일익을 담당한 서원숙과 이용준(송전 25회), 김동진(송전 27회), 박태준(전 연세대 음대 학장), 김홍전(성악교회), 작곡가 안익태, 채리숙(오페라 가수) 등이 그의 제자였으며, 해방 후에는 피아니스트 한동일과 백건우를 가르쳤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있다. 홍난파는 1931년 시카고의 셔우드 음악학원으로 유학했는데, 말스베리가 주선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말스베리가 졸업한 학교로 유학한 것으로 보아 그가 유학을 주선했을 것으로 보인다.⁵⁸⁾

말스베리의 가장 뛰어난 제자는 김동진이었다. 그는 피아노, 바이올린, 작곡을 비롯한 음악의 모든 분야에서 놀랄 정도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그는 말스베리의 가장 유명한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작곡을 전공으로 삼았다. 그는 송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2년 이상 그의 사사를 받았는데, 이때 내마음과 가고파를 작곡하였다. 말스베리 선교사의 이력서

57) D. W. Malsbary, “Koreans and Sacred Music,” 30.

58) 허지연, “작곡가 구두회의 이력(履歷)과 한미 감리교회의 후원,” 「음악논단」 46 (2021), 143. 141-167.

에 나타난 김동진에 대한 글은 다음과 같다.

김동진은 말스베리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바이올린, 피아노, 작곡 등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음악적인 분야에 있어서 놀라운 정도로 열심히 작업하는 사람이며 그는 아마도 말스베리 박사의 제자 중 가장 잘 알려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최대 노력을 경주하여 작곡도 하였다. 그는 많은 노래들을 만들었으며 그 노래들은 현재까지도 라디오를 통해서 보칼리씨이틀을 통해서 종종 불리어 진다. 말스베리 박사는 어떠한 리씨이틀에도 그와 함께 동행하곤 했다. 때때로 이러한 콘서트는 평양에서 제일 큰 대중적인 음악당인 “PAIK HALL”(백선행홀)에서 개최되었다. 숭실전문학교를 졸업 후에도 그는 말스베리 박사와 함께 미래의 음악 이론과 약 2년 뒤의 오케스트라 지휘에 대하여 연구했다. 그때 그는 그의 유명한 가곡 [내마음]과 [가고파]를 작곡하였다.⁵⁹⁾

김동진뿐만 아니라 안익태와 협연하였고 계정식 바이올린 연주에 피아노 반주를 하였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가 일본에서 첼로를 공부하고 귀국했을 때, 그는 동반 연주자로 말스베리와 함께 평양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계정식이 독일에서 10년간 공부한 후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1930년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는데, 그가 귀국해서 콘서트를 열었을 때, 말스베리는 평양, 서울과 대구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반주를 맡았다.⁶⁰⁾

오페라 가수인 채리숙이 그의 지도를 받았으며, 박태준도 그에게 화성학과 작곡을 사사하였다. 박태준은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1932년에 도미하여 교회 음악의 명문인 웨스트민스터 음악 대학에서 음악 석사 학위를 받고 1936년에 귀국하여 숭실 전문학교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한편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재학시절부터 구상해 오던 본격적인 합창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전주 서문 교회의 지휘자이며 전북 관현합창단을 창단하고 지휘했던 김홍전은 두 차례 (1935-37, 1939-40)에 걸쳐 작곡법과 피아노를 배웠으며,⁶¹⁾ 지휘자로서 『音樂』이란 잡지를 창간한 최성두(崔聖斗) 역시 그의 제자이다 말스베리 선교사는 그 잡지의 창간호에 “朝鮮音樂에 中樞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축사를 썼다.

朝鮮音樂에 中樞가 되라

올해동안 나의게서 피아노를 工夫하든 崔君이 이제 學業을 맛췄고 事業으로서 音樂이란 잡지를 發刊한다니 深히 반가운 消息이다. 더구나 나와 같은 외국사람으로서는 조선음악계를 잘 알 수 업으나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은 事實인 갓다. 할 일 남은 이 音樂界에 中樞機關이되여 朝鮮音樂界를 지도해 나가기를 발아는 바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 려고한다.⁶²⁾

그러므로 말스베리는 1929년부터 1940년까지 평양에서 피아노 교육, 밴드 지휘, 독주자와 반주자로서의 연주회, 음악 이론 교육 및 작곡 활동 등을 하며 음악선교사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일제가 숭실전문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학교를 떠날 때인 1936년까지 가르쳤으며, 외국인 학교에서는 1940년까지 11년간 가르쳤다. 이와 같이 말스베리는 주로 평양에서 음악선교사로서 음악교육을 하면서 제자들을 육성하였다.

59) 나운영, “말스베리 영문 이력서,” 7.

60) 나운영, “말스베리 영문 이력서,” 8.

61) 서문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서문교회교회100년사』(전북:대한예수교장로회서문교회, 1999), 449.

62) 권경란, “선교초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1930년 이전에 활동한 선교사 중심으로),” 26.

6. 말스베리의 전도 활동과 강제 출국

말스베리와 함께한 제자들의 음악 연주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활동은 1930년 초반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이후 여러 음악회를 통해 서양 음악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상황에도 곳곳이 한국의 문화 활동을 이어가는 감동의 연주를 하였다.⁶³⁾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악뿐만 아니라 전도 훈련도 시켰다. 그는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을 데리고 평양 시내로 나가 전도를 하였다. 처음에는 전도에 대해 불평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흥미를 느끼고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매주 주일 오후에 송실전문대, 송실중, 송의여중의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었다. 말스베리의 노력과 전도 훈련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는 한국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고 즐겼다. 그래서 한국인들과 힘을 합쳐 선교부와는 독립적인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가 영어로 쓴 내용을 한국인 동역자들이 번역하여 전도지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말스베리는 주일 오후마다 평양 거리로 나가서 좁은 길을 다니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어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며 전도에 열심을 내었다. 이러한 말스베리의 노력과 전도 훈련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였고 예수를 믿게 하였다.⁶⁴⁾ 방지일 목사는 마두원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그는 ‘오늘 내가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지 아니했다면 이후 주님의 낮을 보기 미안하지 않겠느냐?’라며 길거리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의 말에 우리는 매일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며 “그는 참 기도꾼이었으며, 성경을 대하는 진지함은 다른 이를 비길 데가 없었다”고 회고했다.⁶⁵⁾

말스베리는 일제가 평양송실전문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1936년에 학교에서 사직하였다. 그는 학교를 사직한 후에 일제의 감시를 피해 기림리 양촌의 자기 집에서 학생들과 새벽 기도회를 하며 학생들의 신앙의 울타리가 됐다. 이때 이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했던 송전 학생들 가운데 후에 한국 교계의 지도자로 활동한 영등포교회 방지일 원로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자 박윤선 목사, 성서대 설립자 강태국 목사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방지일 목사는 말스베리 선교사에 대해 “송실전문 학창 시절 ‘겨자씨’란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 마두원 선생의 집으로 가곤 했다”며 “내가 기도 제목을 제기하면 마두원 선생은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했는데 그 진지함이 비길 데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도 꼭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지 감탄사가 나온다”고 회고했다.⁶⁶⁾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1940년까지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말스베리 선교사는 태평양 전쟁이 임박하고 일본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결국 1940년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할 수밖에 없었다. 말스베리 선교사의 강제 출국에는 신사참배 거부와 전영복 목사 부흥회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 그는 송실전문학교가 1938년 폐교하기 전에 신사참배 강요에 반발하여 학교를 사임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사참배 반대 입장은 총독부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특히 전영복 목사를 송실전문학교로 초청하여 신사참배 반대 부흥회를 개최한 것도 추방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

63)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송실,” 104.

64) 박미란, “드와이트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를 통하여 본 현대 음악 선교의 역할과 방향,” 103-104.

65)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53911/20110816/한국-최초-찬양선교사-마두원을-기억하는가.htm>

66)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9>

다. 전영복은 본명이 오다 나리찌라는 일본인 목사이다. 그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통해 일본의 조선 침략과 그 죄악상을 알고 난 뒤에, 조선에 건너와 사죄하며 전도 활동을 하였다. 그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1937년 평양 시내 목사들이 전영복 목사를 평양 숭실 전문학교로 초청하여 신사참배 반대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전영복 목사는 신사참배는 십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이자 죄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여 많은 숭실인 학생들과 목사들에게 감명을 주었다.⁶⁷⁾ 그 강연회 개최에 말스베리 선교사도 관련되어 있었다. 이 일로 인하여 전영복 목사는 경찰서에 끌려가 고초를 당한 후 일본으로 강제 출국당했고, 말스베리 선교사 역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었다.⁶⁸⁾ 이후 말스베리 선교사는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 앨버타에 있는 프레이어리 바이블 기관 피아노과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와 편곡 등 음악활동을 하면서 보냈다. 또한 미국 웨이스 신학교 (Faith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1948년 목사 안수를 받는다.

6. 해방 후의 음악 선교활동

1948년 칼 매킨타이어의 권유로 미국 성경장로회와 독립장로회의 음악 선교사 겸 목사로 다시 내한한 말스베리 선교사는 고려신학교에서 강의하였고, 중앙방송국(현 KBS)에서 “Piano playing at the religious”라는 방송을 주일마다 15분간 진행하면서 전도와 음악 교육을 병행하였다. 그는 이 일을 1948년부터 1955년까지 계속 하였는데, 한 달에 서울에서 두 번, 부산에서 두 번 방송하였다. 이 기간에 그는 찬송가를 편곡한 피아노곡 40곡을 다른 작곡가들의 곡과 함께 생방송에 사용하였다.⁶⁹⁾ 이 40여 곡의 찬송가 편곡 24곡은 캐나다 앨버타주 프리월스에 있는 Praire Bible Institute에 의해 두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두 권의 책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의 곡목들은 각주와 같으며⁷⁰⁾ 몇몇 곡에는 영어 곡목 밑에 한국어 제목이

67) 이종무,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 전도자 전영복(田永福) 목사,” 『한국성결신문』 2010. 4. 3.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9>

68)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숭실,” 98-99.

69) 권경란, “선교초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1930년 이전에 활동한 선교사 중심으로),” 27.

70) 24곡의 곡명은 다음과 같다. (권경란, “선교초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1930년 이전에 활동한 선교사 중심으로),” 28.)

CONCERT TRANSCRIPTIONS

Angels Roll the Rock Away JesusT. Gibbons
 Jesus I Come..... Geo. C. Stebbins
 Jesus Lover of My Soul.....S. B. Marsh
 Just When I Need Him Most.....Chas. H. Gabriel
 O Day of Rest and Gladness..... Lowell. Mason
 Only Trust Him..... John H. Stockton
 My Wonderful Dream.....Chas. H. Gabel
 The Better Land..... D. B. Towner
 When Love Shines In..... Wm. J. Kirkpatrick
 Wonderful Words of Life Philip P. Bliss

PROGRESSIVE TRANSCRIPTION

Alas! And Did My Saviour Bleed?Hugh Willson
 I Do Believe..... Old Melody
 Lord, I Hear of Showers of Blessing..... Wm. B. Bradbury
 More About Jesus John R. Sweney

한글로 수록되어 있다.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피아노 책의 이름은 “An Hour at the Piano with Well-Loved Hymns(사랑받는 찬송가들과 함께 피아노에서 한 시간)”이며 Concert Transcription(콘서트용)과 Progressive Transcription(향상곡)으로 나누어져 있다.⁷¹⁾ 한국 전쟁 당시에는 부산으로 지역을 옮겨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을 모아 합창단과 소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부산통합병원 부상병 위문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1948년 두 번째로 내한했을 때는 이미 말스베리 선교사의 음악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전에 재직한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였던 외국인들의 음악 교육을 담당했던 그의 명성은 한국 전쟁으로 혼란 중이었던 때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말스베리 선교사가 부산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음악을 배웠다. 피아니스트 한동일과 백건우는 어린 시절 1953-55년 사이에 말스베리 선교사로부터 피아노 지도를 받았다. 피아니스트 김애자는 아버지부터 2대에 걸쳐 피아노 연주를 사사받았고, 그때의 영감과 기억을 되살려 최근 말스베리 선교사가 편곡한 곡들로 이루어진 음반을 발매하고 연주회를 하기도 하였다.⁷²⁾ 그가 방송에서 사용했던 음악은 그의 제자 김애자에 의해 2010년 음반(Aija Kim In Memory of Dwight R. Malsbary)으로 제작되었다.⁷³⁾ 김 피아니스트는 “1960년 초기 피아노를 배울 때 말스베리 자신이 쓴 두 권의 찬송 피아노 편곡집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2010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후에야 그분의 음악을 다시 보면서, 지금 녹음하고 전하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남긴 유산이 영원히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이라는 긴박감이 다가왔다”며 “내게 주어진 사명이자 선물로 여기고 음반 제작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⁷⁴⁾ 이 음반 제작으로 말스베리의 해방 후의 찬양 사역은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전달되게 되었다.

V. 나가는 말

말스베리 선교사는 30세가 되던 1929년에 복장로교 소속 음악 선교사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그는 셔우드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여 석사과정을 마쳤고, 이 음악원에서 1926년부터 1929년까지 3년 정도 교육활동도 하였다. 시카고에서 있는 시세로 장로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담임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선교의 소명을 느끼고 있었다.

My Jesus, I Love Thee.....	Adoniram J. Gordon
No NIGHT There.....	H. P. Danks
Open My Eyes, That I May See.....	Chas. H. Scott
Rock of Ages.....	Richard Redhead
Saviour, Like A Shepherd Lead Us	Wm. B. Bradbury
Take Time to be Holy.....	Geo. C. Stebbins
Take up Thy Cross.....	Rev. A. H. Ackley
The Great Physician.....	John H. Stockton
Thou Didst Leave Thy Throne.....	Timothy R. Matthews
Yield Not to Temptation.....	Dr. H. R. Palmer

71) 권경란, “선교초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27.

72)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충실,” 107.

73) 김애자 피아니스트는 아버지가 말스베리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된 계기로 그에게 피아노 사사를 받았다. 서울 태생이며 일본 동경 우에노 예술대학과 비엔나 국립음대, 뉴욕 주립대학을 거쳐 텍사스대에서 음악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1993년 러시아 모스크바 대형집회에서 소명을 받은 후에 피아노 찬양자로 헌신하고 있다. 이 음반에는 말스베리의 헌신적인 믿음과 삶을 추억하며 피아노로 연주한 17곡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다.

74)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53911/20110816/한국-최초-찬양선교사-마두원을-기억하는가.htm>

그러던 중에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가르치던 객안련 선교사가 셔우드 음악원 총장에게 말스베리 부부를 음악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여 평양에 오게 되었다. 그는 1929년 8월 말에 평양에 도착하여 평양 숭실전문학교와 외국인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서양 음악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을 때였다. 특히 평양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수용되어 천 명이 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숭실 고등보통학교, 숭의여학교, 숭실전문학교, 광성 고등보통학교, 정의 여학교, 평양신학교, 외국인 학교 등이 생겨나며 근대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근대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과목이 음악이었다.

특히 교회들은 교회 음악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1913년에 길선주 목사의 요청으로 모우리 선교사가 성가대를 조직하였고 숭실전문학교에서는 음악대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음악대는 1917년부터는 전국적인 순회 연주를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와 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21년에 루츠, 부츠, 솔츠라는 세 명의 여성 음악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음악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929년에 말스베리가 입국하여 음악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말스베리는 평양에 들어와서 평양 숭실전문학교와 외국인 학교를 중심으로 음악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는 일차적으로 평양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 이론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당시 평양은 여러 교회와 학교에서 수준 높은 서양 음악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때마침 입국한 말스베리는 평양의 이러한 음악적인 요청을 선교적 사명으로 응답하여 나갔다. 장로교 계통의 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감리교 계통의 학생들까지 피아노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 이론을 가르쳤다. 그의 이러한 폭넓은 교육활동을 통해 김동진, 박태준, 채리숙, 김흥전, 한동일, 백건우 등 한국의 1세대와 2세대 음악가들을 배출하였다. 그와 함께 평양 숭실전문학교 합창대와 밴드를 교육하여 평양과 전국을 순회하며 수준 높은 교회 음악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기여하였다. 숭실전문학교의 음악대는 이미 1917년부터 이러한 활동을 해 왔는데, 1930년대에 접어들어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32년의 평양 연주회에는 참석자가 4천 명을 넘을 정도로 호응이 있었다. 이러한 합창대는 전도대와 함께 전국 순회공연을 하며 만주 지역까지 나아갔다. 그는 1934년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인들이 음악적인 재능은 가지고 있으나, 음악의 이점을 누리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며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교육의 진전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숭실전문학교 밴드가 21명이고 숭실중학교까지 합치면 40명에 달하였다. 여성 선교사들과 말스베리 부부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평양의 음악교육의 발전은 새로운 서양 음악과의 만남을 통해 근대문명을 접하면서 근대적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열망을 노래하고 연주하였던 예배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⁷⁵⁾

그는 이렇게 음악 선교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다 1936년 일본이 숭실전문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학교를 떠났다. 학교를 떠난 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방지일, 박운선, 강태국, 김홍전 등과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신앙의 울타리 역할을 해 주었다. 그는 결국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전영복 목사를 초청해 숭실전문학교에서 신사참배 반대 부흥회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추방당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1948년 정통장로교회와 독립선교회 소속 목사 선교사로 국내로 다시 입국한다. 입국해서 KBS에서 1948년부

75)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97.

터 1955년까지 주일 아침에 15분씩 음악방송을 하면서 피아노곡들을 들려 주었다. 그리고 이때 한동일과 백건우를 가르쳤다. 최근에 이때 방송했던 24개 곡이 그의 제자 김애자에 의해 음반으로 제작되어 그의 음악 선교의 숨결이 현재에 전해지게 되었다.

말스베리 선교사는 음악 선교사로서 한국 근대음악인 1세대를 양육한 공로자요, 신사참배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며 방지일, 박윤선, 강태국, 김홍전 등과 교제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었다.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음악을 통한 방송을 하며 한동일과 백건우를 길러내었다. 우리는 말스베리 선교사의 음악 선교사역을 통한 헌신적인 선교사역을 잘 이어받아 음악 선교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02

마두원의 해방 이후 사역에 관한 고찰

마두원의 해방 이후 사역에 관한 고찰

이 종 전 교수/전)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I. 들어가는 말

마두원(Dwight R. Malsbary)이 우리나라를 처음 찾은 것은 1929년이다. 그는 음악을 전공하고 평양 숭실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했다. 부인(Pauline S. Malsbary)도 마두원과 같은 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함께 내한하여 한국에 서양음악을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두원은 한국 서양음악사에서 반드시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두원 선교사와 관련한 논문들이 신학계에는 1~2편 정도의 글이 있을 뿐인데, 음악을 전공한 이들의 글들은 많이 있고,⁷⁶⁾ 특별히 한국 음악사에서는 반드시 언급하지 않으면 역사 서술이 진행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면 왜 신학계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없었는가? 이것은 한국장로교회의 분열과 마두원의 위치(所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고, 넓은 활동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교단이나 신학교 입장에서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언급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마두원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획은 매우 의미가 있다. 즉 한국의 주류 장로교단들 가운데 그와 그가 속한 성경장로교회와 ICCC(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사서술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ICCC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데 그것은 신복음주의자들의 논리에 편승한 정통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오해 내지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이기도 하다.⁷⁷⁾

필자는 이 글에서 마두원 선교사가 194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당한 이후 1948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한 1977년까지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남긴 1차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이 소실 내지는 찾지 못한 현실에서 서술의 한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에 관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그의 업적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I. 해방 이후 입국

마두원 선교사가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29년 10월 24일 입국해서 1940년 12월에 강제로 출국을 당할 때까지 이다. 이때 그의 사역은 주로 평양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때 그의 신분은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전문인 선교사로서 승

76) 주강식, 「한국교회와 ICCC」(2008) 고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것이 마두원을 연구한 유일한 석사학위 논문이고, 그 외에 마두원을 다룬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음악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글들은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숭실,” 「기독교와 문화」(Vol. 8, 2016), 89~112; 권경란, “선교초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1930년 이전에 활동한 선교사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등 그 외에 다수가 있다.

77) 신종철, 『한국장로교회와 근본주의』(서울: 그리스, 2003), 276; 주강식, 「한국교회와 ICCC」, 69.

실학교에서 음악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일을 했다.⁷⁸⁾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불러들여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훗날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⁷⁹⁾ 이것은 그의 관심이 단지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고, 선교사로서 궁극적인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기는 그가 강제로 출국을 단한 후 1948년 다시 입국하여 1977년 7월 28일 별세할 때까지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기간이기도 하며, 두 번째 입국하여 사역할 때는 1차 때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렇다고 음악 교육이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단 2차 입국 때부터는 그의 신분부터가 목사로 바뀌었고, 그의 사역의 중심도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음악 교육과 활동은 제한적, 개인적이었다. 그럼에도 2차 입국한 다음에도 상당한 음악 제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 신분의 변화

마두원은 1929년 처음 입국했을 때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그는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부인 폴린(Pauline S. Malsbary)과 함께 음악을 전공한 부부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러나 그가 1948년 두 번째 입국할 때에는 전문인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왔다. 또한 그는 북장로교회의 직을 내려놓고 신생 교단인 성경장로회(Bible Presbyterian Church)로 직을 옮겨서 성경장로회총회가 파송한 목사 신분의 선교사로 입국했다. 따라서 이어지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음악을 가르치는 전문인 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목사로서의 사역을 전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적이 복음 전도의 현장에 있음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추방을 당한 이후 다시 입국할 때 목사의 신분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한 목사가 될 수 있는 섭리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그가 1940년 강제로 추방을 당하기 전 1936년 숭실전문학교에 사표를 냈다. 그것은 그 해부터 심각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제국주의의 강요에 순종할 수 없었던 그의 신앙적 입장 때문이다. 숭실전문학교도 1938년에 결국 폐교하게 되었지만 마두원은 그 이전에 사표를 내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성경학교에 가서 성경공부와 함께 신학공부를 했다. 이 과정은 정규과정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성경과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36~1937년 어간에 무디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 숭실전문학교가 문을 닫는 것을 보았고, 1940년 그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이때 다시 무디성경학교에 가서 1941~42년 사이에 신학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비록 목회자 양성과정은 아니었지만 성경과 신학공부를 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8) 숭실대학교 9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5』, 250~52.에서 마두원 선교사의 활약상을 기술하고 있다.

79) 이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경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 한국 교회가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방지일, 박형룡, 강태국, 최봉석, 박운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실은 방지일 목사가 남긴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 기억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몇 사람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외에 김진홍, 도승주, 이유택, 김석주 등이 마두원 선교사 집에서 모였고, 또 다른 기도 모임이 두 곳이 더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방지일, 『野史도 正史로』(서울: 선교문화사, 2001), 75.

1947~48년 사이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페이스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공부를 이어갔다.⁸⁰⁾ 이 학교 역시 신생 교단인 성경장로교회의 새로운 지도자 매킨타이어(Carl Curtis McIntire)가 설립한 학교로서 그의 강직한 신앙과 맞았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를 준비하게 했다.

특별히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매킨타이어(Carl Curtis McIntire)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와의 관계에서 목사 안수와 성경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1948년 내한하게 되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성경장로교회가 ‘해외 선교부’를 직접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입장이 같은 ‘장로교 독립 해외 선교부’(Independent Board for Presbyterian Foreign Mission 이하 IBPFM으로 표기) 소속으로 내한하여 활동했다.

즉 1948년 2차로 내한하여 활동을 시작할 때 마두원의 신분은 전문인 선교사에서 목사 선교사로, 복장로교회 소속에서 성경장로회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따라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동반되었다.

2. 성경장로교회와 관계

미국복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USA 이하 PCUSA로 표기)가 진보 신학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메이첸(John Gresham Machen)이 중심이 되어 1929년 프린스턴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를 나와서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를 설립했다. 또한 메이첸은 1933년 ‘장로교 독립 해외 선교부’(IBPFM)를 설립했고, 이 단체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속한 PCUSA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PCUSA의 뉴 브루스윅(New Brunswick)노회는 1935년 3월 29일 ‘장로교 독립 해외 선교부’를 탈퇴하거나 교류하지 않을 때까지 목사직을 정직시켰다.⁸¹⁾ 결국 PCUSA는 교단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5명을 징계하였다.⁸²⁾

이 징계는 메이첸을 중심으로 1936년 6월 11일 아메리카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이하 PCA로 표기)를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시 PCUSA는 PCA가 자신들의 명칭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메이첸이 별세한 이후인 1939년 ‘정통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이하 OPC로 표기)로 개명했다.

1937년 1월 1일 메이첸(John Gresham Machen)이 갑자기 폐렴으로 별세하자 매킨타이어가 중심이 되어서 1937년 6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성경장로회대회(Bible Presbyterian Synod)로 모여서 “신학적 근대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타협주의가 위협하고 있는 미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정통신앙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OPC를 이탈하여 성경장로교회(Bible Presbyterian Church 이하 BPC로 표기)를 창립하기로 하고, 1938년 4월 뉴저지 콜링스우드(Collingswood)교회에서 창립총회로 모여 BPC가 출범되었다.⁸³⁾ 여기서 메이첸을 기준으로 메이첸까지 근본주의로, 매킨타이어가 주도하는 BPC를 후기 근본주의로 구

80)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서울: 영창서원, 2019), 488, 494-95.

81) John R. Fitzmier, 한성진 역, 『미국 장로교회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127.

82) 이 때 징계를 받은 5명은 MacAllister H. Griffiths, Merrill T. MacPherson, Edwin H. Rian, Paul Woolley, Charles J. Woodbridge 등이다. David O. Beale, 김효성 역, 『근본주의의 역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346.

83) <https://bpc.org/our-history>; 주강식, “한국 교회와 ICCS,” (석자학위, 고신대학교, 2008), 7. 본문에 표기된 연도는 BPC 홈페이지에 실린 것을 채택함; John R. Fitzmier, 한성진 역, 『미국 장로교회사』, 211.

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성경장로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매킨타이어였으며, 그와 마두원의 만남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페이스신학교에서다. 이 학교는 1937년 여름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어느 특정한 교단에 속하지 않은 채 헤롤드 레이어드(Harold Laird)가 목회하는 월밍턴 제1독립교회의 시설을 이용했다. 처음 이 학교가 시작될 때 매킨타이어는 이사장(President of the Board of Directors)이었다.⁸⁴⁾

3. 장로교 독립 해외 선교부

‘장로교 독립 해외 선교부’가 창립되는 과정에는 1932년 PCUSA총회가 “선교의 재고”(Re-Thinking Missions)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면서 교단 안에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 이유는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이 훗날 종교다원주의자인 히크(John Hick)이나 니터(Paul Knitter)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타 종교에도 속죄와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을 총회가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메이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 초자연적으로 기록하신 진리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종교들이 신봉자들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선교의 목적으로서 제시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시도나 노력이 교단 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33년 총회에 “오직 보수주의자들만이 해외선교부가 임원으로 선출되고 오직 소수주의자들만이 선교사들로서 해외선교부에 의해서 임명될 것을 보장하도록 건의 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⁸⁵⁾

그러나 뉴 브런스윅노회는 메이첸의 건의서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총회에서도 그의 건의서를 배제하고 해외선교부가 제시한 “선교의 재고”에 담긴 내용을 전심으로 지지한다는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메이첸을 중심으로 그의 동료들이 1933년 6월 27일 ‘장로교 독립 해외선교부’(IBPFM)를 조직했다.⁸⁶⁾ 그들은 성경적이고 장로교적인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조직한 선교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입장은 교단이 신학적 근대주의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성경적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⁸⁷⁾ 이 선교부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참으로 성경적인 진정한 장로교 선교 사역을 증진하도록 조직된” 모임이라고 선교부의 정체성을 밝혔다.⁸⁸⁾

그런데 교단은 이듬해인 1934년 IBPFM에 속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문서로 요구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첫째 교단 내의 모든 기관과 단체로부터 어떤 기금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며, 교회적, 행정적 기능과 행사를 중단한다. 둘째 교단의 모든 목사와 신자들은 IBPFM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권징을 받

84) www.ftscatonsville.org

85) 홍철, 『미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144~45.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은 Gresham J. Mache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ts Purpose and Plan”, *What Is Christianity?*, ed., Ned B. Stonehouse(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1), 323~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86) IBPFM 최초 조직은 회장 Gresham J. Machen, 부회장 Merrill T. MacPherson, 총무 MaAllister H. Griffiths, 회계 Murray F. Thompson 등이 맡았다. 홍철, 『미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 146.

87) <https://praysendgo.com/about/>

88) Lefferts A. Loetscher, *The Broadening Church: A Study of the Theological Issues in the Presbyterian Church Since 1869*(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4), 103. 을 John R. Fitzmier, 한성진 역, 『미국 장로교회사』, 127. 재인용.

는다는 등의 내용이었다.⁸⁹⁾

메이첸은 교단의 이러한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뉴 브런스윅노회는 사실상 메이첸의 목사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메이첸과 함께하는 IBPFM에 동참한 사람들도 모두 1936년 PCUSA총회로부터 정직을 당했다.⁹⁰⁾

이렇게 메이첸이 중심이 되어서 창립한 것이 IBPFM이다. 따라서 PCA(OPC)는 물론 BPC에서도 독립된 해외선교부를 만들지 않고, IBPFM을 통해서 해외선교사를 파송했다. 그것은 독자적으로 해외선교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또한 IBPFM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메이첸을 중심으로 PCUSA의 신학적인 입장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IBPFM을 지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BPC 소속인 마두원 선교사가 IBPFM을 통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III. 1948년 마두원의 입국과 사역

마두원 선교사가 2차로 입국했을 당시 한국의 현실은 참담하고 지극히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선교현장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긴급하고 긴요한 상황이었다. 입국과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입장에서 그의 사역은 다양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그가 주력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서술을 하려고 한다.

1. 한국 교회와 신학교

1948년 3월 30일 그가 입국했을 때 한국장로교회는 신학적인 문제, 즉 조선신학교가 자유주의신학을 가르치는 문제가 총회에 상정되어서 조선신학교를 총회신학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총회신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로 총회가 어수선한 상황이었다.⁹¹⁾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동안 신사참배와 함께 배교한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출옥성도들의 대립각이 표면화되면서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고신측이 분열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⁹²⁾

마두원은 입국해서 곧바로 서울로 갔고, 약 두 주간을 체류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갔다.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지만 정부수립을 위한 과정에 이념적인 갈등이 최고조로 높았던 시기였으며, 미군정하에서 겨우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곳으로 선택한 곳이 부산이었다.

그가 부산에서 도착해서는 곧바로 고려신학교에서 1948년 4월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⁹³⁾ 고려신학교는 출옥성도들이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1946년 새로운 신학교를 만들었으나 한국장로교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도자가 절실했는데 마침 마두원이 부산에 자기 발로 찾아왔으니 놓칠 수 없는 사람이고 기회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두원은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시작되었다.

89) 홍철, 『미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 157.

90) Ned B. Stonehouse, *J. Gresham Machen, a Biographical Memoir*(Grand Rapids: Eerdmans, 1954), 485~92.

91) 조선신학교와 1953년 기장측으로의 분열을 의미한다.

92) 고려신학교와 1951년 고신측으로의 분열을 의미한다.

93)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78.

마두원이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미친 영향은 그를 파송한 미국 성경장로교회와 1948년 조직된 ICCC의 입장이 고려신학교에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WCC에 대한 ICCC의 신학적 입장을 고려신학교 교수들의 공식적인 문서로 수용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까지 영향을 미쳤다.⁹⁴⁾ 이런 문서가 나오기까지 함일돈(Floyd E. Hamilton)⁹⁵⁾, 마두원 선교사가 고려신학교 교수로 함께하면서 ICCC와 WCC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정보를 주었을 것이고, 두 사람은 모두 미국 성경장로교회 선교사로서 당시 고려신학교와 교장인 박윤선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⁹⁶⁾ 그러한 관계에서 박윤선은 ICCC의 입장을 “전통적인 복음적 신학을 보수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소개했다.⁹⁷⁾ 훗날 고려신학교는 ICCC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갖는 것을 포기하지만 적어도 고려신학교의 초기 과정에서 ICCC를 배제하고 역사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신교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그 과정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1952년 초량동에서 서대신동으로 선교부를 이전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경남도청 뒤에 있던 고려고등성경학교 건물을 고려신학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대에 고려신학교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⁸⁾ 뿐만 아니라 고신교단의 여러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ICCC의 도움은 긴요했다. 특히 IBPFM 선교사로서 고려신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던 함일돈(Floyd E. Mamilton)과 마두원은 부산 지역에 여러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열매는 현재 부산에서 유력한 교회들로 성장해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⁹⁹⁾

마두원이 한국의 신학교들과의 관계와 그의 역할은 단지 고려신학교만이 아니다. 1950년 총회신학교가 설립됨과 함께 이 학교의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이 학교가 1959년도 장신과 총신으로 분리되었을 때는 총신을 재정적으로 기여하여 용산역 앞에 새로운 교사를 마련하여

94) “A Faithful Declaration: Faculty’s Letter to ICCC”, *Biblical Mission*(October 1953), 29~30;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304에서 재인용.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국제기독교연합회(ICC)에 드림,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 우리 고려신학교 직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계요서가 우리 신앙을 위한 신앙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현재에 신신학과 팔트신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됨에 대하여 매우 놀라나이다. 우리는 세계기독교연합회(WCC)를 반대합니다. ... 우리는 국제기독교연합회(ICC) 입장을 지지하며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관은 우리가 믿고 지키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믿고 지키는 까닭입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신학교>

95) 함일돈 선교사는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로 1920년 1월 4일 내한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1936년 북장로교회를 탈퇴하여 PCA(OPC) 소속 독립선교부로 이적한 후 송실전문학교와 강계성경학원에서 가르쳤다. 194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출국을 당하여 미국에서 OPC교단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1948년 5월 18일 BPC소속 선교사로 내한하여 고려신학교와 고려고등성경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부산 충무동 성경교회(현 충일교회), 서대신동 복음교회(현 서대신교회) 등을 설립했다.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자 일본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려신학교와 성경장로교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귀국했다.

<https://www.kich.org/news/articleView.html?idxno=3376>

96) 박병훈, 『46회 총회와 ICC』(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65), 35~36; 이만열, “고신과 한국사회 반세기에 대한 회고,” 「제7회 한상동기념강좌 고신교단 반세기에 대한 회고」(현대출판인쇄사, 2003), 44.를 주강식, 「한국 교회와 ICC」, 58.에서 재인용.

97) 서영일, 『박윤선 개혁신학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268; 장동민, 『박형룡-한국 보수신앙의 수호자』(서울: 살림출판사, 2006), 236~37; 주강식, 「한국교회와 ICC」, 26.

98)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619.

99) 이상규, 『한상동과 그 시대』(서울: SFC출판부, 2006), 185. 복음교회(서대신교회), 은혜교회(성북교회), 성경교회(충일교회), 신평로교회 등 그 외에도 부산 지역에 여러 교회를 경제적으로 후원했다.

신학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용산에서 정비한 총신은 1968년 현 소재지인 사당동으로 교사를 새롭게 마련하고 정규 대학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¹⁰⁰⁾ 뿐만 아니라 합동측 교단에 “영적구호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교회들이 모금한 거액의 구호금을 전달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총신대학의 전신인 총회신학교가 오갈 데 없는 상황이었을 때 역시 거금의 보조금을 ICCC로부터 받은 것도 사실이다.¹⁰¹⁾

특히 총회신학교가 5년간 용산역 앞에 있을 때 수업환경이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 운영자체가 힘들었을 때 ICCC의 한국 지부를 책임지고 있는 마두원으로부터 당시 돈 22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¹⁰²⁾은 오늘의 총신대학이 있게 되는 종자돈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

대한신학교(현 안양대학교)도 마두원과 ICCC의 도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960년 성경장로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김치선은 대한신학교 교사를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산구 서계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대한신학교가 이전하면서 오늘의 안양대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¹⁰³⁾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공을 드린 것이 대한신학교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ICCC가 한국 교회들에 많은 공을 드렸지만 정작 회원교단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고, 대한신학교의 김치선은 학교를 살려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필요가 시기적으로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신학교와의 관계는 길지 못했다. 1967년 김치선이 대한신학교를 성경장로회 총회신학교의 위치에서 개인의 사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ICCC와 대립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양측이 여론전과 법정 다툼으로 이어갔고, 끝내는 ICCC(선교부측)와 대한신학교측이 분열을 했다. 그와 동시에 ICCC 대표인 마두원은 페이스(신앙)신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대한신학교는 김치선의 아들 김세창이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교단도 선교부측은 성경장로회총회로, 대한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은 성장측, 그리고 대신측으로 역사를 잇고 있다.¹⁰⁴⁾

성결교신학교(현 성결대학교)와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현 기독교대학교)와 이 학교들이 속한 교회들, 그리고 대한기독교침례회, 예수교감리교회, 호헌측, 강태국의 성서신학측, 순장측, 대신측, 성경장로회측 등 여러 교단의 교회들, 즉 ICCC 회원으로 가입한 교단과 교회들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¹⁰⁵⁾

2. 성경장로교회와 KCCC조직

매킨타이어는 1948년 8월 1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기독교연합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이하 ICCC로 표기)를 조직했다. 이때 ICCC는 20세기 개혁운동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그 목적은 “조수처럼 밀려오는 자유주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신복음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이단자들”¹⁰⁶⁾과 맞서서 개혁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100) 김요나, 『총신90년사』(서울: 도서출판 양문, 1991), 390. 김요나는 당시 ICCC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했다.

101) 박용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년사(2권)』(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2006), 231.

102) 주강식, 「한국 교회와 ICCC」, 59.

103)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제3회 총회」(1968), 17; 김요나, 『총신90년사』, 390.

104) 이종진, 『한국장로교회사』, 422~28.을 참고하라; “하나님은 하나인 데 교장이 둘인 하나님 학교,” 「週刊한국」(1967.12.17.), 14~15.

105) 주강식, 「한국 교회와 ICCC」, 60.

했다. 매킨타이어는 ICCC를 WCC에 대항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지부 내지는 전 세계의 교회와 단체들 가운데 ICCC회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같이할 수 있는 교단, 단체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두원은 ICCC의 한국지부장이 되고, 한국에 ‘한국예수교협의회’(Korea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이하 KCCC로 표기)를 조직하게 되었다.

KCCC는 1960년 서울에서 ICCC의 원동아시아대회(Far Easter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Meetings)를 열면서 조직되었다. 이 시점은 곧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총회가 창립되는 시점과 같다.¹⁰⁷⁾ 즉 현 대신측 교단이 출범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교단 창립총회는 1961년이지만 이미 성경장로회총회는 조직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KCCC의 창립도 가능했다.¹⁰⁸⁾ 그러한 의미에서 대신측 교단의 출범과 KCCC는 같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미국 성경장로교회와 ICCC를 이끌고 있는 매킨타이어가 내한하여 김치선과 한국에 성경장로교회를 창립할 것을 직접 합의를 했고, 마두원은 ICCC한국지부장 신분으로 김치선과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조직과 함께 대한신학교를 ICCC 직영신학교로 하고 이사장은 마두원 선교사가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¹⁰⁹⁾ 이와 함께 마두원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 ICCC회원 교단이나 단체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협상하여 KCCC를 확장해갔다.

이때부터 마두원은 KCCC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가 활동하는 영역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으며, 활동분야도 다양해졌다. 그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별세하기 전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KCCC의 회원 교회와 단체를 보면 주류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없지만 다양한 교회와 단체가 속해있었다. 즉 신학교로는 신양신학교(교장 마두원), 성결교신학교(현 성결대학교), 감리회신학교(교장 신신목), 장로회신학교(교장 천정수), 한양신학교(하나님의교회), 한국성서학교(현 성서대학교), 신양성서학원(홍천 고등성경학교) 등이 소속되었다.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대한기독교침례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기독교하나님의교회 등이다. 교회가 운영하는 일반 중고등학교는 결운중고등학교(홍천), 환일중고등학교, 예일여자중고등학교 등이 회원이었다. 그 밖의 소속 단체는 함광원(고아원, 전남 광주), 한국효신선교회(춘천, 고아원과 중고등학교 운영)와 ICCC 한국지부가 직영하는 출판사인 성별사(발행인 마두원) 등이 있었다.¹¹⁰⁾

이렇게 마두원은 KCCC를 조직하여 WCC에 대항하고 있던 ICCC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 반 WCC를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¹¹¹⁾ 그가 ICCC가 추구하는 신학적 “자유주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신복음주의, 신비주의, 이단”과 맞서서 한국 교회의 한 축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긍정할 수 있다. 이러한 KCCC와 마두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106) 한국예수교협의회, 「한국예수교협의회 현황 1960~1975: Photo View of Reformation in Korea」(1975), i.

107) 한국예수교협의회, 「한국예수교협의회 현황 1960~1975: Photo View of Reformation in Korea」, i.

108) 이종전, 『한국장로교회사』(인천: 아벨서원, 2013), 409.

109) 김동화,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1998), 355~56.

110) 한국예수교협의회, 「한국예수교협의회 현황 1960~1975: Photo View of Reformation in Korea」, 여기에 실린 회원 교회와 단체들을 정리한 것임.

111) 마두원, “국제기독교연합회와 개교회,” 「크리스찬 봉화」(1967) 통권 제25호, 9~10. 마두원은 이 글에서 ICCC가 추구하는 것은 연합회로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다만 반 WCC에 뜻을 같이 하여 공동대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ICCC는 아무 교파도 통제하지 않으며 개교회의 계획을 도무지 간섭하지 않는다. 각 교회에 지령문을 보내서 복종하라고 하지 않는다. 또 어떤 교회에 대한 지배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ICCC는 세계 단일 교회 즉 에큐메니칼 교회의 이념 계획을 몹시 싫어한다.”

있는 문서는 “두 길”과 “기독인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인데, 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는 “반 WCC”와 “반공”이다.¹¹²⁾ 이것은 ICCC가 근본주의(후기)를 근간으로 하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마두원과 KCCC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분열주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¹¹³⁾

KCCC 회원 교단들 가운데 현재 예수교성결교단, 순복음교단, 예장 대신측, 침례교단 등은 한국 교회의 주류 교회로 성장했다. 마찬가지로 대한신학교(안양대학교), 순복음신학교(한세대학교), 한국성서학교(성서대학교), 성결교신학교(성결대학교) 등은 정규 대학교로 성장하여 한국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학교 성장했고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KCCC의 대표로 마두원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갑작스러운 별세로 사역의 마무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KCCC의 역할과 존재감이 급속하게 상실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다.

3. 선교 방송, 구호, 기타

마두원의 행적은 매우 다양했다. 그만큼 시대적 필요와 요청, 그리고 복음전도의 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사역지를 부산으로 결정하고 바로 가서 그곳에 터를 잡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함께 신학교를 돕는 일이었다. 실제로 고려신학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중 6.25사변이 일어남을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때 고려신학교에 선교사로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¹¹⁴⁾

이어서 그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국영 라디오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아직 선교방송국이 만들어지기 전, 그러나 시대적 사회적 혼란과 특별히 이념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당시 무엇을 통해서든지 사회적인 안정이 필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미군의 입장에서든, 이제 막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도 도움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영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1948년 12월부터 서울중앙방송국(KBS)과 부산방송국(KBS부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1960년 3월까지 했다. 그는 방송프로그램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과 그의 전공인 피아노 독주, 합창, 찬양대를 통한 찬양곡을 노래하게 하는 등,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프로그램은 진행했다.¹¹⁵⁾

1950년 6.25가 발발하자 미군의 권면으로 일본으로 잠시 피했다가 10월 29일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눈에 새롭게 보이는 긴급하고 절실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6.25사변과 함께 만들어진 전쟁포로들이었다. ‘반공’을 하나의 정책으로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ICCC

112) 마두원, 『두 길』(서울: 성청사, 1966); Carl McIntire, “기독인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 『성별』(5권3호, 통권44호), (1975. 4.), 14~17. 이 글에서 맥킨타이어는 반대하는 이유를 14개로 정리했다. 다만 ICCC헌법에는 반공에 대한 직접적인 명기된 내용은 없으나 WCC에 대해서는 헌법 목적에 명기했다. 『國際基督教聯合會憲法』(서울: 美國聖書長老教獨立宣敎部 韓國宣敎部, 1961), 4; Carl McIntire, “오직 복음으로써만,” 『크리스찬 문화』(1967) 통권 제25호, 7~8. 이것은 맥킨타이어가 1967년 11월 15일 방한하여 서울중앙교회(현 청파중앙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인 데 이 설교문 요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마치 다른 목음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가 하면 <에큐메니칼>이란 미명하에 공산주의자들에 동조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반공을 ICCC운동의 중요한 이유로 말하고 있다.

113) 메이첸과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를 구별해서 보는 표현으로 후기(post) 또는 네오(Neo-Fundamentalism)로 표기하여 이해한다. 한성기, “김치선 목사의 신학사상”, 『신학지평』(13집),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2000), 55.

114) 이상규, 『6.25전쟁기 부산지방 기독교』(부산: 한국교회와 역사 연구소, 2024), 193.

115)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81.

와 마두원이었기 때문에 전쟁포로들에 대한 전도는 결코 머뭇거릴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그에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때부터 휴전이 임박한 1952년까지 그의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역은 계속되었다.¹¹⁶⁾ 이때 포로들에게 그는 매우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가 1940년 추방당할 때까지 함흥에서 살았고, 함흥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두원은 부산이 피난지가 되면서 월남한 북한 출신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익히 마두원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쉽게 다가왔다. 그 중에서도 한동일, 백건우, 김애자와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마두원을 만난 것은 그들이 음악가로서 오늘이 있을 수 있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마두원을 만나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갔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¹¹⁷⁾ 또한 그가 평양 송실대학에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성장한 음악가들은 한국음악사를 이끈 사람들로 박태준(연세대학 음대학장), 김동진(경희대학 음대학장), 김홍전 박사와 같은 이들이다.¹¹⁸⁾

해방, 그리고 6.25사변으로 이어진 한국 사회는 사회적인 혼란은 물론 절대 가난과 밀려든 피난민들이 거처할 곳조차 없이 유리방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두원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생필품과 의약품을 미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나누는 일이었다. 또한 미군과의 관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해서 나누었다. 특별히 전쟁고아가 많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들을 지원하는 일도 그 중에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단지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배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게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두원의 사역지가 부산중심에서 서울과 강원도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1960년이다. 그것은 서울에 KCCC가 조직되면서 그 대표직을 맡는 것과 함께였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이미 미군의 협조로 진행되어온 강원도 지역의 미군 야전병원을 민간인이 맡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의 사역지로 크게 부상하면서 더 이상 부산에서의 사역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굳이 한 가지 더 생각하자면 6.25사변이 휴전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면서 서울의 기능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강원도에서의 사역

마두원의 사역이 부산에서 강원도로 옮겨지는 것은 6.25사변이 정전협정으로 가는 시점부터였다. 따라서 여기서 그의 강원도를 별도로 다루는 것은 1953년 이후 그의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1967년 대신측 교단과 결별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성경장로교회총회를 조직하게 되는 데 이때 성경장로교단의 중심은 춘천과 홍천을 중심으로 그가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들이었다. 그만큼 강원도 지역에 그가 세운 교회들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홍천을 중심으로 병원과 고등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그의 사역이 많았고 컸기 때문에

116)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83~86; 나삼진, “다큐 고신교회 70년 역사 산책(13), 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

117)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87.

118) 방지일, 『野史도 正史로』, 76.

강원도에서의 사역을 별도로 찾아보고자 한다.

1. 교회 개척과 군선교

1957년 5월 1일 두촌면 원동리에 있는 원동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원도 내륙 홍천과 춘천, 인제, 그리고 44번, 46번 국도를 따라서 한계령과 진부령을 넘어 동해안 일대에 교회들을 개척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살피는 역할을 감당했다. 강원도 중에서도 홍천, 인제는 가장 험한 산악지대이고, 감자바위라고 할 만큼 평지가 없으며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가 없고, 자연환경도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도 매우 어렵고 불편한 곳이다. 계절에 따른 기온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생활환경도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복음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마두원은 왜 홍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는가? 그것은 유엔한국민사지원단(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rps Korea-UNCACK)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유엔군 산하 기관으로 지역 주민을 치료하는 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과 연결되어 마두원이 홍천을 찾으면서 시작되었다.¹¹⁹⁾ 마두원 선교사가 특별히 홍천을 알았거나 그곳을 선교거점으로 사전에 계획했던 정황은 없다. 다만 미군과의 관계를 긴밀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한국민사지원단의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미군측의 요청에 따라서 홍천과 인연을 맺었고, 그는 홍천에서 강원도 내륙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

이렇게 계기가 되어서 이 지역을 찾았던 마두원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전하는 열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산간벽지 마을에 교회가 없음을 발견했고, 그러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다. 그가 홍천과 접촉하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의 마지막까지 숙원사업이었다. 또한 다시 언급하겠지만 산간벽지까지 목회자가 수급될 수 없는 당시의 현실에서 공여지책이지만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로써 자체 사역자를 수급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운영을 했다.

1953년부터 홍천을 찾기 시작한 마두원 선교사는 처음에는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 여념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지역 출신의 조력자들이 생기면서 강원 내륙지역에 선교를 시작했다.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특별히 홍천읍내를 중심으로 인제로 이어지는 44번 국도 양 옆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다. 여러 기록과 증언들을 통해서 강원도에만 26개 혹은 27개의 교회가 그에 의해서 개척 설립되었다고 한다.¹²⁰⁾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 설립된 교회들은 1. 도리원교회, 2. 아야진교회, 3. 교암교회, 4. 오호교회, 5. 영동교회, 6. 공현진교회, 7. 화탄(숯탄)교회, 8. 장사랑교회, 9. 두촌교회, 10. 장남교회, 11. 내후동교회, 12. 원동교회, 13. 삽다리(조교)교회, 14. 역내교회, 15. 야시대교회, 16. 신내교회, 17. 결운교회, 18. 검울리교회, 19. 하오안교회, 20. 공근교회, 21. 대룡교회, 22. 효신교회, 23. 경강교회, 24. 홍천제일교회(?), 25. 철정교회(폐쇄), 26. 괘석리교회(폐쇄) 등이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현재 모두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있지는 않다. 한국장로교회의 분열과 특별히 대신측 분열과정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속속 교단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제이드병원과

119) <https://ko.m.wikipedia.org/wiki/유엔> 한국민사지원단 참고

120) <https://ko.m.wikipedia.org/wiki/마두원>: 김광섭, 저민수, 『마두원 선교사』, 780, 86. 마두원 선교사가 국내에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는 강원도 내에 26개를 비롯해서 전국에 43개 처라고 한다.

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두촌에 있었던 신앙성서학원(성경고등학교)과 홍천에 있었던 결운중고등학교와의 관계이다. 즉 제이드병원과의 관계라 함은 환자나 직원으로 마두원 선교사와 관계를 갖게 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개종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두촌에 설립해서 운영했던 성서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소명을 받고, 신앙신학교에 진학하여 목회자가 된 다음 이 지역에 돌아와서 개척을 한 경우이다. 그리고 학생신분으로 결운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과 학교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개종을 한 경우 등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홍천을 비롯한 내륙 깊은 곳에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홍천은 군사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6.25사변 이후에 홍천은 강원 내륙의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최전방을 지원하는 부대들이 산재해있었다. 따라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면 군민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¹²¹⁾ 그런데 군부대에도 6.25사변을 겪으면서 군목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부대 내에서 신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군목과 필요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마두원 선교사가 두촌에 머물면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미군부대나 한국군부대에서 지원이나 협력 요청이 있을 때면 할 수 있는 한 방문해서 협력했다. 이것은 주된 일은 아니었지만 홍천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였다.

2. 신앙성서학원(성경고등학교)

마두원 선교사는 1948년 입국해서 부산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고려신학교와 신교단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협력했다. 동시에 그와 ICCC를 필요로 하는 교단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요청에 따라서 그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다양했고 많았다. 그 중에 여기서는 서울로 선교부를 옮긴 다음 강원도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직접 운영했던 학교들을 중심으로만 서술하고자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홍천은 가장 소외되고 생활환경도 열악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두촌에 성경고등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의 공식적인 명칭은 신앙성서학원(Faith Bible Institute)이다.¹²²⁾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경고등학교’라고 불렀다.¹²³⁾ 이 학교는 두촌면 자은리에 위치했었고 1963년 10월 10일 설립되었다. 1975년 현재 재학생이 30명¹²⁴⁾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학령이 지나서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다만 학교의 성격은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는 곳으로 전도사 내지는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학교는 결과적으로 강원도 내륙 지역을 위한 전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했다. 교회 지도자의 수급이 절대 부족했던 시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교회와 교역자의 생활을 책임질

121) 마두원이 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1966년 당시 홍천의 인구는 13만 2천 명이었으나 현재 인구는 그 절반 정도이다. 호천군청, 『홍천군지 중권』(홍천군청, 2018), 65.

122) 한국예수교협의회, 「한국예수교협의회 현황 1960~1975: Photo View of Reformation in Korea」, 12.

123) ‘성경고등학교’라는 명칭은 이후 전국의 교회들에서 야학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학교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반 사회에서는 ‘고등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미진학 학생들을 가르쳤다. 교회에서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교회에서는 ‘성경고등학교’를 사용했다.

124) 한국예수교협의회, 「한국예수교협의회 현황 1960~1975: Photo View of Reformation in Korea」, 12.

수 없는 경제적 환경적인 현실에서 외부에서 부임해 오는 목회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학교 출신들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이 학교가 감당했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마두원 선교사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함께 이 학교는 폐교되고 말았다. 지금 현재 이 학교가 있었던 곳은 두촌농협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결운중고등학교(Kyulwoon High School)이다. 이 학교는 그 시작이 결운리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던 야전병원과 같은 시설이 있었는데 부대장인 송기호 대령이 지역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고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야학을 열었고, 그 책임을 당시 부대원이었던 최응섭(후에 목사가 됨) 병장에게 맡겨서 운영했다. 부대장인 송기호는 교장으로, 병인 최응섭은 교무 실무를 담당했다. 시간이 지나 최응섭은 제대를 했고, 제대를 한 다음에도 그 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부대 밖으로 옮겨서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쳤다.¹²⁵⁾ 최응섭은 후에 목사가 되어 결운교회를 담임하면서 이 학교를 운영하다가 1980년 전후로 입학생의 감소로 문을 닫았다.

이 학교는 흥천읍 결운리 6반에 위치했었고, 1965년 3월 15일에 설립했다. 1975년 현재 98명의 재학생이 있었다.¹²⁶⁾ 흥천이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렇다고 딱히 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사자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가 책임질 수 없었던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 준 것은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일이다. 이 학교의 경우는 송기호 대령이 설립했고, 최응섭 목사(성경장로회 소속)가 맡아서 운영하면서 마두원 선교사의 많은 후원을 받았다.

마두원과 김치선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1961년 성경장로회총회를 설립하면서 김치선이 1948년 설립해서 운영해오던 대한신학교를 성경장로회총회신학교로 하는 것을 합의했다.¹²⁷⁾ 그러나 7년 만에 김치선이 대한신학교를 사유화함으로써 마두원과 선교부는 신학교가 없게 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1967년 12월 대한신학교 졸업식이 두 곳에서 각각 진행되는 것을 계기로 대한신학교를 중심한 현 대신총회가 그 역사를 이어갔고, 또 하나는 무교동성결교회에서 졸업식을 한 선교부측은 신학교가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신학교를 설립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듬해인 1968년 3월 12일 새롭게 설립된 것이 신앙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이다.¹²⁸⁾

이 학교는 사실상 대한신학교와 결별한 이후 선교부측인 성경장로회의 총회신학교이며, 당시 KCCC의 대표 신학교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성경장로회 총회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신학교로서 이 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성경장로회 교단의 교역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학교 역시 마두원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함께 운영난이 더해지면서 여러 곳으로 이전을 거듭하는 과정이 있었다. 종국에는 춘천에서 운영을 하다가 1994년 성경장로회 총회와

125) 당시 성경장로회 소속 군목으로 있었던 우원근 목사의 증언. 송기호 대령은 자신의 부대에 이 학교와 함께 교회도 설립했는데 그것이 결운교회이다. 송기호 대령은 예편 후 한국중앙교회의 장로로 섬기다 별세함.

126) 한국예수교협의회, 「한국예수교협의회 현황 1960~1975: Photo View of Reformation in Korea」, 13.

127) 김동화, 『오직 한길』(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4), 148.

128) 한국예수교협의회, 「한국예수교협의회 현황 1960~1975: Photo View of Reformation in Korea」, 11.

대신측이 통합하면서 춘천 신양신학교는 대한신학교(석수동 대한신학대학원 전신)의 분교로 운영을 했다. 원하는 경우는 대한신학교에 편입하게 했고, 졸업생은 추가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후보생을 허락했다.¹²⁹⁾ 하지만 더 이상 입학생이 없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 때문에 2005년 2월 문을 닫았다.

신양신학교가 1968년 이후 교단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성장기에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주행하게 된 것은 첫째는 교단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그 요인이 지나치게 선교부의 재정지원을 의존한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교단의 각 교회나, 보육시설, 신학교 등의 운영 실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선교부의 재정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성경장로회총회의 1970~71년 회계 회계 보고서를 보면 수입 총액이 3,834,753원인데 그 중 ICCC 보조금이 3,408,000원인 반면 교회 상납금이 200,000원이며 기타 이월금과 잡수입이다. 그 다음 회계연도의 보고도 1원도 다르지 않게 선교부 보조금을 똑 같은 액수로 보고 한 것을 보면 성경장로회 교단이 얼마나 선교부에 재정 의존도가 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¹³⁰⁾ 이러한 현상은 신학교 회계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경장로회 총회가 신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첫 해인 1968년 하반기 결산 보고서를 보면 총회 전체 수입액이 4,118,948원 중 선교부 보조금이 3,692,000원이고, 교회 상납금이 10,830원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금액도 개인 선교사의 특별 기부금이였다.¹³¹⁾

3. 병원과 보육원

6.25사변과 함께 유엔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유엔도 한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유엔한국민사지원단(UNCACK)이 국제연합재건단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민사지원단은 전쟁 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을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주력하는 사업을 했다. 이 민사지원단은 전국 각 도별 담당 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했는데 강원도에는 가장 어려운 곳인 홍천, 두촌, 속초에 야전병원 수준의 진료소를 개설하여 운영했다. 이때 민사지원단은 유엔 33회원국이 지원한 예산(450만 달러)으로 미군산하기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관할 하에서 운영되었다.¹³²⁾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7월 1일 미군 극동사령부 한국민사원조처로 이관되어 더 이상 유엔과 관련한 기관이 아닌 미군에 속한 기관이 되었다. 이때부터 유엔의 원조가 아닌 미군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업이 되면서 설치되었던 대민진료소를 마두원 선교사가 선교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군의 입장에서 대민사업을 지속하는 어려움이 있고, 마두원 선교사로서는 강원내륙의 선교 거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서로 윈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두원이 홍천을 중심으로 강원도 지역을 선교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마두원은 1953년 말부터 강원도에 있었던 진료소, 곧 홍천, 두촌, 속초에 있었던 병원들을 인수해서 대민진료를 계속하면서 선교를 위한 교두보로 사용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통도 매우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도 늦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마두원이 홍천을 교두보로

129) 이종전, 『한국장로교회사』, 531. 통합합의문 “제4항 성장측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는 총회신학교 분교로 한다.”

130)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제6회 총회 회의록」, 22~23.

131)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제4회 총회록」, 결산서

132) <https://ko.m.wikipedia.org/wiki/유엔한국민사지원단>

강원도 내륙 지역을 전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판단이었다. 그 중에서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그가 운영한 병원은 이 지역 사람들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선교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병원들을 지속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치료비를 받으면서 환자들을 살렸고, 부족한 비용은 선교부에서 지출해야 했는데 선교부 재정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흥천병원(읍내)과 속초병원은 1963년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았다. 다만 두촌병원 1993년까지 운영했다.¹³³⁾ 두촌병원은 마두원 선교사가 별세한 후에도 한국인 의사 최영재 장로가 고령으로 은퇴할 때까지 운영했다.¹³⁴⁾ 하지만 그 후 폐쇄되고 말았으며, 병원 부지는 2019년 경 일반인에게 매각되어 현재는 그 터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병원 외에도 KCCC가 주도한 사업들 가운데 많은 지원을 하면서 챙겼던 보육시설인 함광원(Ham Kwang Christian Orphanage)은 1960년에 설립되어 1975년 현재 115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¹³⁵⁾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직영이 아니라 후원금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었다. 현재 ICCC의 후원금을 받았던 시설과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열거할 수는 없지만 6.25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처했던 경제적 상황은 복지시설은 물론이고 교회들도 경제적인 구호금을 요청할 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마두원 선교사와 연결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부의 지원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난다. 선교부와 대한신학교가 분립되기 전인 1965년 하반기부터 1967년 상반기까지의 선교협의회 결산서에 따르면 금산교회, 칠성교회, 신내교회, 동광교회, 미성교회, 장남교회, 연희교회, 효신교회, 함광교회, 괴당제일교회, 문평중앙교회, 성락교회, 승일교회 등이 매월 10,000원씩 보조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¹³⁶⁾ 활요에 기록된 것으로는 그 교회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매월 10,000원을 지원받은 것은 결코 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KCCC의 사업과 선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식지 겸 신앙 잡지를 1971년 창간하였다. 대한신학교측과 분립되기 전에는 월간 「크리스찬 봉화」를 발행으나, 분립되면서 김치선은 그대로 '봉화'誌를 발행했기 때문에 마두원은 새로운 잡지 「성별」誌를 발행했다. 따라서 이것은 ICCC가 직영한 잡지사로서 ICCC의 대변지며 동시에 KCCC의 소식지였다. 잡지를 발행함에 있어서도 전액이 선교부의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¹³⁷⁾

133)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55.

134) 최영재 장로는 1923년 5월 25일생으로 평안북도 운산면 북진리(진동마을)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2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살았다. 고학으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하여 다니던 중 6.25사변이 일어났으며 전장에 나아가 부상병을 치료했다. 휴전이 된 다음 의대를 졸업하고 두촌면에 정착하면서 마두원 선교사와 제이드병원을 책임지고 일을 했다. 두촌 사람들 중에 그의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지역민을 섬겼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를 기리기 위한 송덕비를 1990년 5월 25일 면사무소 입구에 세웠다. <https://m.hongcheonnewstoday.kr/78842>

135) 한국예수교협의회, 「한국예수교협의회 현황 1960~1975: Photo View of Reformation in Korea」, 14.

136)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제2차 임시총회 활요」;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제3회 총회」, 16. 교단의 예산서(1968~1969 회계연도)를 보면 총회 예산 4,533,178원 중 선교부 보조금이 4,436,000원이며, 상납금은 36,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 신학교 보조금 1,800,000원과 지교회 보조금 600,000원인 것을 보아 교단과 교회의 실정을 알 수 있다.

V. 나가면서

마두원은 1977년 7월 28일 그가 평생 사역을 감당했던 홍천에서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인 1948년에 다시 돌아와서 약 30년을 이 땅 곳곳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그의 30년 한국에서의 사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부분 살펴본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그의 역할과 섬김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마두원은 1953년 이후 서울에 KCCC본부를 두고 활동했지만 이후에는 두촌에 정주해서 살면서 강원도 내륙과 속초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 선교를 중점적으로 감당했다. 그의 사역은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감당했다. 교회 개척을 비롯해서 신학교, 성경고등학교, 병원, 구제 사업과 구호금 지원, 뿐만 아니라 ‘봉화’ ‘성별’ 등 잡지를 발행하여 각종 소식을 공유하고, 신학과 계몽을 위한 기고문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깨어나게 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도 그는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특별히 정통신학을 견지하는 교회이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노력이 후기 근본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그의 수고가 모두 부정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그가 지키려고 했던 정통신학과 그의 수고는 분명하고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후기 근본주의적 성향 때문에 미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과 함께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¹³⁸⁾

따라서 도입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그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숨겨진(발굴되지 못한) 자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번을 기점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제로 그가 발행했던 ‘봉화’ ‘성별’ 그리고 ‘두 길’에 담겨진 그의 사역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고, 미 발굴된 독립선교회 자료들은 해방 이후 한국장로교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귀한 사료가 될 것이다.

137) 대한예수교성경장로회, 「제2차 임시총회 개요」, 지출된 회계보고에 나타난 것은 ‘봉화’誌 발행을 위해서 매월 16,000원씩 192,000원이 지출되었다.

138) 주강식, 「한국 교회와 ICCC」, 53. 이후 주강식은 ICCC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데 의미 있는 평가다.

03

마두원 선교사와 허암 김홍전 박사

마두원(Dwight Malsbary) 선교사와 허암(虛庵) 김홍전 박사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남송 석좌 교수/조직신학)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자신도 그렇게 말하던 대로 평양 마씨인¹³⁹⁾ 마두원(馬斗元, Dwight R. Malsbary, 1899-1977)¹⁴⁰⁾ 선교사의 사역은 초기 음악 선교사로서의 사역(기본적으로 1929-1940, 그러나 후에도 계속해서 음악적 기여가 있다)과 후기 목사 선교사로서의 사역(1948-1977)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고, 그 두 사역 모두에서 마두원 선교사는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한국 근대 음악 도입과 정착에 미친 말스배리 선교사 내외의 기여는 매우 크다.¹⁴¹⁾ 숭실전문학교, 특히 콕안런(Charles Allen Clark)의 초청으로 1929년에 내한한¹⁴²⁾ 마두원을 “한국에 온 최초의 음악 선교사”라고 한 피아니스트 김애자의 말이 잘 드러나듯이,¹⁴³⁾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피아노에서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유명한 음악가들인 한동일과 백건우가 마두원 선교사 부처(夫妻)에게서 피아노를 사사한 사람들로 언급되니,¹⁴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쉽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에 서양 음악을 전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두원 선교사는 한국음악협회가 1969년에 개최한 <신음악

139) 6. 25 동란 중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전도 설교하기 전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는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한국 음악의 아버지, 강원도 선교의 아버지』(서울: 영창서원, 2019), 584를 보라.

140) 마두원 선교사의 성(姓)에 대한 한글 음역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스배리”로 음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후의 논의에서 자세히 나타나겠지만 그의 성을 Malsbury로 잘못 표기하고 “말스버리”로 음역한 일도 있었다. 이 문제를 피하고자 이 글에서는 그에게 부여된 한국식 이름인 “마두원”이라는 이름을 선호해 표현했다. 그의 성(姓)이 Malsbary이니, “말스버리”라고도 들리나 잘 들으면 “말스배리”의 뒷부분을 빨리 발음하는 것이므로 이 성씨(姓氏)의 한글 음역을 “말스배리”라고 하자고 제안해 본다.

141) 마두원의 음악 선교사로서의 역할과 공헌에 대한 학문적 논의로 건양대학교 박미란의 “드와이트 말스배리(Dwight R. Malsbary)를 통하여 본 현대 음악 선교의 역할과 방향”, 『선교신학』 72 (2023년 11월): 97-124 (DOI : 10.14493/ksoms.2023.4.97)를 보라.

142) 이 과정을 잘 표현한 윤은주, “말스배리(마두원)와 숭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 8 (2016): 95를 보라.

143) 이는 <https://m.blog.naver.com/ngcgift/60206545795>에 있는 피아니스트 김애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사실 이 말은 김상복 목사님의 표현인 듯합니다(“나의 후론”[2015],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912). 정경은도 같은 말을 하였다(“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인의 음악활동”, 『장신논단』 45/2 (2013): 173, n. 1). 김애자는 일본 동경 우에노 예술대학과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그리고 텍사스대학교에서 음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4년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연주했다. 그녀는 아버지인 영창악기 설립자인 김재창 씨와 함께 마두원에게 피아노를 배웠다고 한다. 그녀는 마두원이 직접 쓴 <찬송 피아노 편곡집>을 아마도 김상복 목사님에게서 받아, 17곡을 연주해서 2011년에 ‘음악 선교사 마두원’ 기념 음반을 내었다(<https://www.yes24.com/Product/Goods/5344403>).

(이를 보도 하는 기사로 국민일보 기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040007;https://v.daum.net/v/20110608144304772;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53911/20110816/%ED%95%9C%EA%B5%AD-%EC%B5%9C%EC%B4%88-%EC%B0%AC%EC%96%91%EC%84%A0%EA%B5%90%EC%82%AC-%EB%A7%88%EB%91%90%EC%9B%90%EC%9D%84-%EA%B8%B0%EC%96%B5%ED%95%98%EB%8A%94%EA%B0%80.htm>; 그리고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61>를 보라).

144) 2025년 2월 21일(금) 오후에 오송에 있는 허암 연구소에서 있었던 김명순 목사님과의 인터뷰: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1920~30년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음악적 만남”, 『음악학』 24/1 (2016): 59-101 (DOI : 10.34303/mscol.2016.24.1.003), 79;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86-92. 위에서 언급한 김애자와 정경은도 같이 말한다.

80주년 기념제>에서 ‘신음악 창달 공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¹⁴⁵⁾ 또한 후에 목사가 되어 다시 와서 사역한 1948년에서 1977년에 이르는 더 오랜 기간 동안의 목사 선교사로서의 마두원의 기여도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두 영역 모두와 연관되는, 필자가 보기에 가장 큰 기여는 허암 김홍전(1914-2003)에게 미친 마두원 선교사의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 글에서 나는 드와이트 말스배리 선교사와 허암 김홍전 박사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I. 말스배리 선교사의 사역 개관

1899년 5월 22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톡턴(Stockton)에서 “9남매 가운데 일곱째로” 출생한¹⁴⁶⁾ 말스배리 선교사는¹⁴⁷⁾ 1920년에 캘리포니아의 프리즈노(Fresno)에서 “유명한 피아노 선생이었던 모펠트(Mowfeldt) 부인으로부터 피아노와 음악 이론 교육을 받았고,”¹⁴⁸⁾ 초급대학인 폴리스노펠 대학(1921년 졸업)을 거쳐 1922-24년에 시카고의 셔우드 음악학교(Sherwood Conservatory in Chicago)를¹⁴⁹⁾ 마치고,¹⁵⁰⁾ 대학원에서 공부하고(Diploma) 셔우드 음악학교의 피아노와 음악 이론 강사가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음악가와 좋은 음악 교사를 할 수 있

145) 홍정수, “드와이트 말스배리”, 『음악과 민족』, 민족음악학 학술지 24 (2002): 195-205; 또한 이를 언급하여 같은 사실을 말하는 송실대학교 철학과 윤은주의 “말스배리(마두원)와 송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 8 (2016): 107, n. 23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9540>)도 보라. 이는 임연약의 조사에도 언급되어 있다(<https://www.kich.org/bbs/view.html?idxno=4590>).

146) 이 정보는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 김재현 박사의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서울: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 2015), 박용규 박사의 ‘한국기독교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편집했다”고 밝힌 이국희 기자, “선교사열전 (32)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한 미국 드와이트 마두원 선교사(Dwight R. Malsbary: 한국명 마두원(馬斗元) 1899~1977)”, <고신 뉴스 KNC> (2023년 6월 14일자) 기사(<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55>)에서 얻었음을 밝힌다.

147) 이하의 정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소나무 그늘 아래>라는 블로그에 실린 “음악선교사 마두원(Dwight R. Malsbary)” (<https://m.blog.naver.com/ngcgift/60206545795>); 신재천, “마두원 선교사 이야기”(<https://brunch.co.kr/@37142dd4d64f415/7>); 이국희 기자,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한 미국 드와이트 마두원 선교사”, <고신 뉴스 KNC> (2023년 6월 14일자) 기사(<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55>) 등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얻어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홍천 희망교회의 원로 목사인 김광섭 목사와 마두원 선교사 기념사업회 총무인 (서울 진성교회) 전민수 목사 두 분이 쓴 『마두원 선교사: 한국음악의 아버지, 강원도 선교의 아버지』 (서울: 영창서원, 2019)가 단행본으로 마두원 선교사의 생애와 사역을 정리한 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148) 이는 송실대학교 철학과 윤은주의 “말스배리(마두원)와 송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 8 (2016): 94에서 얻은 정보임을 밝힌다.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296에서도 모펠트(Mawfeldt) 부인이라고 하고 있다. 이은선 교수님은 “만스펠트 부인(Mrs. Mansfeldt)에게서 2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다.”고 한다(이은선, “말스배리의 음악 선교사역(1929-1955),” 8).

149) 19세기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윌리엄 홀 셔우드(William Hall Sherwood, 1854-1911)가 1895년에 시카고 셔우드 음악 학교(the Sherwood Music School in Chicago)로 시작한 이 음악학교는 후에 셔우드 음악 콘서바토리(Sherwood Conservatory of Music)로 개명하였다가 1985년부터는 더 이상 학위를 주지 않는 셔우드 커뮤니티 음악학교(the Sherwood Community Music School)로 바뀌었고, 2007년에 시카고 컬럼비아 컬리지(Columbia College Chicago)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 평생 음악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https://digitalcommons.colum.edu/sherwood/>).

마두원의 제자 중 하나인 홍난파가 1931년에 이 학교에 유학 가게 된다. 이 유학을 마두원 선교사가 주선하였을 가능성은 크지만 확증할 길을 없다고 한다. 허지연, “작곡가 구두희의 이력(履歷)과 한미 감리교회의 후원”, 『음악논단』 46 (2021): 141-67, 143에서 인용(<https://doi.org/10.36944/JSPM.2021.10.46.141>).

150) 많은 분들은 1924년에 마친 것으로 말하는데,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309에서는 1926년에 졸업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864쪽과 875쪽의 연보에서는 1924년에 졸업했다고 하시고, 1926년-1929년에는 같은 학교에서 가르친 것으로 기록하셨으니 연보에 말한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었던 그는 시카고의 시세로 교회(Cicero Bible Church)의 담임 목사였던 윌리엄 맥카넬 목사의¹⁵¹⁾ 영향으로 선교의 꿈을 가졌고, 평양 숭실전문학교의 초청으로 1929년 8월 30일에¹⁵²⁾ 북장로교의 음악 교육선교사로 내한하여 1929년 가을부터 신사참배 문제로 그만둔 1936년까지¹⁵³⁾ 7년 동안 평양 숭실전문학교 “음악부 책임자로 재직하였다.”¹⁵⁴⁾ 이때 주로 과외 시간에 서양 음악(밴드, 관현, 피아노)을 가르쳤고, 실내 오케스트라단과 야외 브라스 밴드부를 지도하였다.¹⁵⁵⁾ 전문적인 음악가로 내한한 마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김사랑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우리[Eli M. Mowry, 1880-1971]에 의해 [1916년에] 조직된 숭실밴드는 1929년 음악 전문가이자 선교사인 말스베리(Rev. D. R. Malsbary, 1899-1977)의 부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말스베리는 피아노, 밴드 및 오케스트라, 합창 지휘 등을 전공한 전문 음악인으로 다양한 악기를 다룰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론을 교육하여 수많은 한국인 연주자 및 작곡가 양산에 브릿지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건반악기 위주의 음악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악기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 새로운 사운드 스케이프를 형성하여 한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소리 전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밴드는 평양의 음악적 환경 변화를 이끄는 주요 키워드라 할 수 있다.¹⁵⁶⁾

또한 마두원 선교사는 “1938년부터는 평양에 있는 외국인학교 음악부장 겸 교수로 재직하면

151) 당시 시세로 교회의 담임목사가 맥카넬(McCarrell) 목사였다는 것은 김재현,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서울: 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15), 271; 이에 근거한 이국희 기자,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한 미국 드와이트 마두원 선교사”, 그리고 이은선, “말스베리의 음악 선교사역(1929-1955),” 9에서 얻은 정보다. 그가 윌리엄 맥카넬이라고 한 것은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302이다. 1892년에 창립된 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1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맥카넬 목사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졸업생으로 시세로 성경 교회에서 1913-1958에 담임 목사로 섬겼다고 한다(<https://www.cicero bible church.com/History.html>). 처음에는 물론 팍 교회(the Morton Park Church Association)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1929년 9월 29일에 1400명이 앉을 수 있는 새로운 예배 헌당식을 할 때부터 시세로 성경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말스베리 내외가 음악대학 학생으로 이 교회에 출석할 때는 물론 팍 교회(the Morton Park Church Association)였을 것이다.

152) 이 날자에 대한 정보도 이국희 가자의 기사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시애틀에서 S/S 프레지던트 잭슨 호를 타고 17일에 걸쳐 요코하마에 도착하고, 시모노세키에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날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날이 1929년 10월 24일이라고 한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53의 정보는 잘못된 것이다.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에 온 것은 10월 24일이라고 한다(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352, 875). 1929년은 1890년 1월에 한국에 입국한 마포삼렬이 평양에 처음 와서 장대현 교회 당회가 조직되고 장대현 교회 안에 숭실 학당의 전신인 학교를 시작한 1893년부터 36년 이후라는 것을 말하는 김광섭 목사님과 전민수 목사님의 말도 보라. 그래서 그다음 해인 1930년에 숭실 전문학교에서는 마포삼렬 선교사역 40주년 기념예배가 열렸다고 한다(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3879의 연보 참조). 그런 마두원 선교사는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885년으로부터 생각하면 44년 후에 한국 선교사로 온 것이다.

153) 정암 박윤선이 숭실전문 학생이었던 때가 1927년 4월에서 1931년 3월이었고, 평양신학교 학생 때가 1931년부터 1934년이니 정암의 학생 시절 말기에 마두원 선교사와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한국교회를 빛낸 칼빈주의자들』 [서울: 킹덤복스, 2020], 613 참조). 후에 방지일 목사님이 마두원 선교사 집에서 새벽 기도회 모이던 이야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분들 사이의 교류가 있었음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154) 당시 숭전(崇實專門)에는 음악과가 없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숭실”, 96의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155) 그 당시 숭실에서의 활동에 대한 논의로 윤은주, “마두원과 숭실”, 89-112를 보라.

156)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72. 이 좋은 논문에서 한가지 이 당시 마두원은 아직 목사가 아니었기에 Rev. 라는 말은 후에 얻은 직함을 사용해서 사용한 것이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두원 선교사가 초기에는 목사가 아니었기에 그는 전형적인 교회사 책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는다.

서 평양에 거주하였던 외국인들에게도 음악적 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⁷⁾

마두원에게 사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곡 ‘가고파’와 ‘목련화’를 작곡한 김동진 (송전 27회), 흥난파 (작곡가), 박태준 (전 연세대 음대 학장),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김홍전 (성악교회), 채리숙 (오페라 가수) 등이 있으며, 해방 후에는 피아니스트 김애자, 한동일, 백건우 등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¹⁵⁸⁾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그는 1936년에 학교를 사임하고 자신의 집이 있던 “기림리 양촌” 사택에서 매일 기도회를 가졌는데,¹⁵⁹⁾ 이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던 송전 학생들 가운데는 강태국, 박윤선, 방지일, 그리고 동일일보 기자출신으로 이 때 믿고 후에 목사가 된 도승주 등이 있었다고 한다. 방지일 목사는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다.

송실 전문 학창시절 ‘겨자씨’란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 마두원 선생의 집으로 가곤 했다.... 내가 기도 제목을 제기하면 마두원 선생은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했는데 그 진지함이 비길 데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도 꼭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지 감탄사가 나온다.¹⁶⁰⁾

마두원 선교사는 신사참배에 반대하였고,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강하게 지원하였다. 당시 “신사 참배 문제에 있어서 시종 강경한 태도를 취한 선교부는 남장로교 선교부였다.”¹⁶¹⁾ 흥미로운 것은 전형적인 교회사 책에서 마두원 선교사 이름이 언급되는 곳이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한국 사람들을 지원하던 운동 자금 지원에 대해 언급할 때 뿐이다. 예를 들어서, 김양선의 『한국 기독교사 연구』에서 김양선은 이렇게 말한다.

신사불참배 운동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지원은 큰 힘이 되었다. 평양의 해밀튼(D. E. Hamilton, 咸日頓)과 말스버리(D. R. Malsbury, 馬斗元) 선교사들은 운동 자금의 지원에까지 힘을 기울였다.¹⁶²⁾

157)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송실”, 97;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64.

158) 이는 피아니스트 김애자의 증언(<https://m.blog.naver.com/ngcgift/60206545795>)에 근거해 하는 말이다. 나삼진 목사님도 한동일과 백건우에 대한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다큐 ‘고신교회 70년 역사 산책’(23) 고신교회와 동역하였던 선교사들”, <고신 뉴스 KNC> (2022년 5월 3일자) 기고문(<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18>);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79;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송실”, 107.

159)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412, 414, 423.

160) Cf. 박시영, 『태양신과 맞서 싸운 신앙의 투사 이인재 목사』, 부산-경남 기독교역사연구회 전기 총서 1 (서울: 태양, 2006), 80-81; 2014년 1월 20일 자 <기독교성결신문>에도 이 회고가 나온다(이를 인용하면서 언급하는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송실”, 98, n. 6을 보라).

161) 매산(梅山)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 연구』, 김광수 편집 (서울: 기독교문사, 1971), 184. 그 결과 1937년 “9월 6일 애국일이 지난 뒤에 전라남북도 지사는 광주 송실남중학교, 수피아여중학교, 목포 영흥 남중학교, 정명여중학교 등 네 학교의 폐교 명령을 내렸고... 그 뒤에 군산 영명학교 등 남장로회 선교회 경영의 10개 학교가 모두 폐교되었다.”(185).

162)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 연구』, 197. 이때 김양선은 일제 하의 재판 기록인 <이주원예심종결서(李朱元豫審終結書)> 26조를 인용하면서 이 진술을 하고 있다(197, n. 46). 또한 이 문제 있어서는 김양선에 많이 의존하여 이 진술을 한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II: 1910-1960』 (서울: 한국기독교사 연구소, 2004, 2판 2쇄, 2017), 737도 보라.

안타까운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김양선 목사님께서 마두원 선교사의 영어 이름을 오기한 “Malsbury”가 김양선과 박용규 교수님 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 발표에서 잘 드러나듯이 마두원 선교사의 영어 이름은 Dwight R. Malsbary이다. 다행히 박용규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마두원 선교사를 조사한 임언약은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https://www.kich.org/bbs/view.html?idxno=4590>). (박 교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기에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다가 신사 참배에 반대하던 마두원 선교사는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돕는 일에 열심 이었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1940년 12월에¹⁶³⁾ 일본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당했다.¹⁶⁴⁾ 1941-42년에는 일리노이 주 시세로(Cicero)의 시세로 성경 교회에서 목회를 돕고,¹⁶⁵⁾ 1942-47년 캐나다 알버타 주 프리힐즈(Three Hills)에 있는 <프레어리 성서 학원>(Prairie Bible Institute)에서¹⁶⁶⁾ 음악학, 피아노, 합창, 관현악 등과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학에 대한 강의도 하였다고 한다.¹⁶⁷⁾ 또한 이때 페이트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도 이수했다고 한다.¹⁶⁸⁾

1948년에 목사로 임직하고 다시 선교사로 내한하여 1948년 4월부터 부산의 고려신학교에서 1956년까지 강의하였고, 고려신학교 송도 교사 건축을 돕는 일과 교회들 개척하는 일을 도왔다.¹⁶⁹⁾ 1948년 11월 초에는 영어와 음악 등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고려성경고등학교도 시작하였다고 한다.¹⁷⁰⁾ HLKA 및 HLKY를 통하여 때때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합창단을 지

말이지만, 때때로 제자들이 선생보다 나은 것을 발견한다. 박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겨진다.)

더 심각한 오류는 김인수 교수님의 책에서 발생했는데 그는 단 한 번 마두원 선교사를 언급하면서 “메스베리(D. R. Masbery) 선교사”라고 오기하였다.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523. 또한 성경장로교회 형성 과정을 언급할 때도 마두원 선교사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641-42).

163) 12월이라고 밝힌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288, 532, 864, 875을 보라.

164) 이것이 오다 나라찌(織田 樗次, 1908-1980, 한국 이름으로 전영복) 목사를 1937년에 평양의 승실 전문학교 강당에 초청하여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임을 강력히 증언하게 하는 일에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민수 목사님의 논의를 소개하는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승실”, 98-99도 보라. 오다 나라찌 목사님 초청 강연은 1937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 일이 평양 기독교 지도자들이 초청하여 이루어진 일이며, 이때 마두원 선교사는 이미 승전을 그만 둔 상황이었고, 강제 출국은 1940년에 이루어진 일이기때 마두원의 지속적인 반대 운동과 반대 운동 기금 마련 등 때문에 강제 출국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5) 1913부터 1958년까지 담임 목사로 섬긴 분은 윌리엄 맥가넬 박사였으므로 이 기간에 마두원 선교사 내외는 선교사로서 시세로 성경 교회의 목회를 간접적으로 도왔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33에서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고 시세로 성경 교회에서 부목사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166) 이 학교는 1922년에 캐나다 알버타 중앙의 장로교인이고 농부였던 펄거스 커크(J. Fergus Kirk)가 인도하던 성경 공부 그룹이 시작한 성경학교로서 Leslie Earl Maxwell을 초청하여 세운 학교이다. 맥스웰은 8명의 학생으로 1922년에 시작할 때부터 섬기면서 1965-1977년에는 총장으로 하고 1980년 은퇴할 때까지 섬겼으니 마두원이 교수로 섬길 때에도 L. E. Maxwell이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1948년도에는 900명 학생이 등록하여 캐나다에서 가장 큰 성경학교가 되었다. 그러므로 마두원이 섬길 때인 1942년-1947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점차 프레어리 컬리지(Prairie College)라고 이름을 쓰게 된 이 학교는 1980년대에 이르러야 비로소 학위를 줄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개교 100년이었던 2012년에는 캐리 신학대학(Carey Theological College) 연관하여 석사학위 프로그램 연계 과정도 열었고, 지금은 캠퍼스에 284명이 재학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얻었다(https://en.wikipedia.org/wiki/Prairie_College;

<https://www.prairie.edu/about-100-years-of-tradition/>).

167) 한국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는 것은 신재천, “마두원 선교사 이야기”(https://brunch.co.kr/@37142dd4d64f415/7)에서 온 정보이다.

168) 역시 신재천, “마두원 선교사 이야기”(https://brunch.co.kr/@37142dd4d64f415/7); 그리고 고갑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496, 536, 864, 875에서 온 정보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ICC와 연관된 이유일 것이다.

169)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78, 609, 621; 나삼진, “고신교회와 동역하였던 선교사들”, <고신 뉴스 KNC> (2022년 5월 3일 자) 기고문(<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18>): “최의손(William H. Chisholm), 마두원은 고려신학교 송도교사를 조성할 때 주한미군과 연결, 토목공사를 도왔고.”

제일영도교회를 많이 도왔고, 그 예배당 뒤 공터에서 시작된 복음 병원 설립을 도왔다(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621, 624).

회하였다. 6·25 이후에는 중앙방송국(KBS)에서 방송 전도를 하면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음악 교육을 하였다. 후에 서울로 선교 본부를 옮기게 되었을 때 “선교부의 상당한 자신을 ... 고신대학과 고신 복음병원에 사심없이 양도했다”고 한다.¹⁷¹⁾ 또한 마두원 선교사는 매킨타이어(Carl Curtis McIntire, 1906-2002)가 주도하는 국제기독교연합회(ICC) 운동에도 깊이 관여하여 ICC의 한국 지부장을 맡기도 했다(1859년부터).¹⁷²⁾

당시 김치선 박사가 목회하던 남대문 교회에 (북에서 내려온 신학생들의 요청에 응답하여),¹⁷³⁾ 1948년 8월에 장로교 신학교 야간부로 설립된 대한신학교(이사장: 김치선 목사, 초대 교장 윤필성 목사)를¹⁷⁴⁾ 중심으로 (미국서 1938년에 칼 매킨타이어 등이 만든 교단인 성경장로회와 연관된) 3당회로 구성된 <대한예수교 성경장로회>가 1961년 6월 21일에 만들어지는데,¹⁷⁵⁾ 이때 김치선 박사는 초대 총회장으로, 마두원 선교사는 “성경장로회” 초대 이사장으로 역할을 하였다. 마두원 선교사는 1965년 5월 25일에 페이프 신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D. D.)도 받았다고 한다.¹⁷⁶⁾ 그러다 1967년에 성경장로회와 대신이 분립되었다.¹⁷⁷⁾

(1953년-54년부터 강원도 사역을 하여 왔지만) 1960년도 중반에 김치선 박사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되자 마두원 선교사는 주로 (교회가 너무 없었던)¹⁷⁸⁾ 강원도에서 사역하면서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 교회 개척을 도왔다. 선교부 지부가 있던 곳인 두촌면에 이미 있던¹⁷⁹⁾ 두촌교회를 돕고,¹⁸⁰⁾ 원동교회,¹⁸¹⁾ 희망교회,¹⁸²⁾ 결운교회, 장남교회,¹⁸³⁾ 교암교회,¹⁸⁴⁾ 조교리교회,¹⁸⁵⁾ 내후동 교회¹⁸⁶⁾ 등 26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도왔다.¹⁸⁷⁾ 동강원노회와 경충노회가

170) 고려성경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는 이국희의 기사(“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한 미국 드와이트 마두원 선교사”)에서 얻은 것이다. 또한 한동안 선교부 본부 건물로 사용하던 이전 일본 경찰서 건물을 후에 고려 성경고등학교 건물로 사용했다고 하는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49, 576-55, 617도 보라.

171)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604. 또한 같은 책, 620-22, 637, 661, 673도 보라.

172)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64.

173) 이 점을 지적하는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653을 보라.

174)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박형룡 박사와 김치선 박사와 변홍규 목사라고 한다. (소나무, “음악 선교사 마두원” 참조). 1949년 4월 22일 제35회 총회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명칭 변경하고, 고려신학교와 장로회 신학교 야간부는 총회와 상관이 없다고 결의하자 1949년 4월 23일에 김치선 박사는 대한신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고 한다. 조금 후인 1951년 9월에 대한신학교는 문교 제1257호 각종학교 4년제 인가받았다(문교 제1275호).

175)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28, 614, 663-64, 681.

176) Cf.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536, 722; 임연약, “내한 선교사 Dwight R. Malsbary and Pauline Malsbary,”(<https://www.kich.org/bbs/view.html?idxno=4590>). 이는 1954년 9월에 칼 매킨타이어가 한상동 목사와 박윤선 목사에게 페이프 신학교 개강 예배 때 명예 신학 박사(D.D.) 학위를 준 것(『한국교회를 빛낸 칼빈주의자들』, 632)과 비슷한 동기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177)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83.

178) 마두원 선교사가 후기에 강원도 사역에 치중하게 된 여러 이유 가운데 이것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는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07, 780을 보라.

179) 이는 1960년대에 이퇴자라고 자신을 일컫고 이단이 된 이우성(1915-1972)이 6.25 전쟁 전에 개척한 교회였다고 한다(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42).

180)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39, 741-42, 800.

181) 그 전부터 준비되다가 1957년 5월 1일에 교회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14, 787을 보라. 이 원동 교회에서 자란 인물이 (후일에 희망교회를 목회하고 지금은 원로목사로 있는) 김광섭 목사님이라고 한다(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89, 795-96, 798-99).

182)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12-28.

183) 이 구체적인 교회들에 대한 정보도 신재천, “마두원 선교사 이야기”(<https://brunch.co.kr/@37142dd4d64f415/7>)에서 온 것이다.

184) 마두원 선교사가 개척한 교암 교회에 대한 소개(<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37>)를 보라.

185)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08.

모두 마두원 선교사에게 여러 모로 큰 빛을 지고 있다고 한다.¹⁸⁶⁾ 또한 미군 3군단의 요청을 받아 1956년 5월부터¹⁸⁹⁾ 홍천군 두촌면에 처음에는 두촌 병원이라고 불렸던¹⁹⁰⁾ 제이드(Jade) 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하였다.¹⁹¹⁾ 한국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매우 검소하게 사셨다고 한다.¹⁹²⁾ 1965년에는 한국 ICCC의 부회장을 하셨다고 한다.¹⁹³⁾ 또한 1967년에는 두촌면에 인제군 경찰서 있던 건물을 사용하여 페이프 성경 고등학교도 세워 청소년들을 교육했었다고 한다.¹⁹⁴⁾ 또한 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1968년에 페이프 신학교 한국 분교를 마포구 동교동 홍익대 근처 상가 2층에 마련하여 신학 교육도 하였다고 한다.¹⁹⁵⁾

1977년 “7월 28일 역시 강원도의 개척교회들을 순회하던 중 두촌면에서 홍천읍으로 가는 2차선 국도에서 추돌사고”로 소천(召天)할 때까지¹⁹⁶⁾ 마두원 선교사는 한국을 위해 일하였다. 이때는 침례회신학교와 성결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셨다고 한다.¹⁹⁷⁾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장례 예배를 1977년 8월 3일에 당시 행촌동에 있었던 예수교 성결교 신학교에서 했다고 한다.¹⁹⁸⁾ 이때 설교를 강태국 박사가 하였다고 한다.¹⁹⁹⁾ 그의 묘지는 경기도 파주 기독교공원(일산 공원묘지)에 있었는데,²⁰⁰⁾ 이를 2011년에 전민수 목사님과 김광섭 목사님 등이 찾아내

186)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09.

187)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50, 780, 786. 그런데 경기도 동북부와 강원도 지역을 다 합하면 근 43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도왔다고 오랫동안 통역을 한 조영업 박사가 증언했다고 한다(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50).

188)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68.

189) 1954년에 부분적으로 인수해 운영하다가 1956년 5월에 온전히 인수했다고 하는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54-55를 보라.

190) 이는 신재천, “마두원 선교사 이야기”(https://brunch.co.kr/@37142dd4d64f415/7)에서 온 정보이다. 제이드 병원이라는 이름은 “한국전쟁 당시 병원 부대의 호출 코드명이 제이드(JADE)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이국희 기자의 기사;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56, 758-59). 이 병원은 1953년 휴전 직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강정식, “1954년도 홍천의 제이드 병원과 마두원 선교사”, <홍천뉴스> 9월 22일자)(https://www.hcsinmo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27).

191) 이것도 피아니스트 김애자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다. 홍천 병원, 두촌 병원, 속초 병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다(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10, 754). 이에 대한 또 다른 증언으로 강정식, “1954년도 홍천의 제이드 병원과 마두원 선교사”도 보라. 그런데 후에 “제이드병원이 두촌면 자은리(현 두촌중학교 북동쪽 야산 언덕)로 이전하고 몇 년간 운영하다 병원은 문을 닫고 교회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한다(강정식, “1954년도 홍천의 제이드병원과 마두원 선교사”). 이중에 속초 병원과 홍천 병원은 1963년에 문을 닫았고(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65, 755), 두촌 병원(제아드 병원)은 1993년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65, 755).

192)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289, 862.

193)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75.

194) 신재천, “마두원 선교사 이야기”(https://brunch.co.kr/@37142dd4d64f415/7)에서 온 정보. 또한 이를 언급하는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숭실”, 100도 보라. 그리고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638, 725, 749, 768, 771. 이 학교를 돕도록 초청된 일본에 40년 동안 사역하며 있던 선교사가 후렌(Malcolm St. Clair Frehn) 부부였다(771-72). 이 건물이 지금은 두촌 농협 건물이 되었다고 한다.

195)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81, 784, 804, 805

196)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숭실”, 100;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62.

197) 윤은주, “말스베리(마두원)와 숭실”, 110, n. 25;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632.

198)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290, 863. 이 책에는 성결교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김응조를 많이 도왔고 “성결대와 예성교단은 ... 장로교 마두원 선교사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고 강조하며 명기하고 있다(290). 또한 같은 책, 860도 보라. 이런 교단들이 ICCC 회원 교단이었기 때문이었다. Cf.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682.

199)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76.

200) “1977년 8월 3일 서울 대조동에 있는 성결교신학교 강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됐으며, 경기도 고양 일산 기독교 공원묘지에 안장됐다.”(이국희 기자,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한 미국 드와이트 마두원

어²⁰¹⁾ 2018년 8월 27일에 마두원 선교사가 강원도 여러 교회 개척의 중심지로 삼았던 홍천으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²⁰²⁾

마두원 선교사의 부인인 마포린(Mra. Pauline Malsbary) 선교사(1902-1984)은 미국으로 가서 사시다가 1984년 1월 25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요양병원에서 소천하셨다.²⁰³⁾

II. 허암 김홍전의 공부와 사상의 형성에 미친 말스배리 선교사의 영향

허암 김홍전은 1914년 11월 15일에 충남 서천군 화양면 지사리에서 김영배(金永培) 선생과 이숙정(李淑正) 여사의 장남으로 출생하셨다고 한다.²⁰⁴⁾ 전주 신흥중학교를 졸업하고 1932년 3월에 서울 경신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 경성 제대에 지원하였으나 독립운동을 하였던 부친과의 연관성 때문에 허락받지 못하고, 사립대학교에 입학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²⁰⁵⁾ 당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던 음악을 하기로 하고 1934년 4월에서 9월에 일본 도쿄(東京)에 가서 음악 개인 수업을 받고, 부친이 당시 교감으로 섬기고 있던²⁰⁶⁾ 군산 메디올 여학교 교장의 추천으로 평양에 가서 1935년 10월부터 1937년 8월 사이에 마두원 선교사 부처에게 작곡과 피아노를 사사 받게 된다.²⁰⁷⁾ 이것이 마두원과 허암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허암의 음악 선생으로서의 말스배리 선교사가 허암에게 미친 영향은 그의 음악 교육의 기본적 토대를 놓은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인 선교사인 폴린(Pauline, 그래서 한국 이름을 ‘마포린’이라고 하셨다)의 피아노 실력이 허암에게 미친 영향은 더 컸다고 한다.²⁰⁸⁾ 마포린에 대해서 김사랑은 이렇게 말한다.

말스배리 부인(Pauline E. Malsbary)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셔우드 음악학교 출신으로 피아노를 전공했다. 전문 반주자인 말스배리 부인은 다수의 성악가들과 함께 무대에 섰으며, 평양 외국인학교에서 피아노를 교육하였다. 남편 말스배리와 함께 피아노 듀오를 연주하기도 하는 등 당시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²⁰⁹⁾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1936년에 송실전문을 그만둔 마두원 부처는 그의 집에서 음악 교습을 하였는데, 이때 일본에서 그 교습을 받으러 오기도 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20대의 청년 김홍전도 이 시기에 평양에서 말스배리 부처에게서 음악, 특히 피아노

선교사”, <고신뉴스 KNC> [<http://www.kosinnews.com>];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63.

201)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750; 윤은주, “말스배리(마두원)와 송실”, 108을 보라.

202)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84.

203) 김광섭, 전민수, 『마두원 선교사』, 863, 883.

204) 이하 허암의 연보와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성약 출판 소식> 제42호 (2003)에 실린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이것을 인용하면서 잘 제시한 조창석, “허암 김홍전 목사의 개혁파 예배관 연구”라는 신학 석사(Th. M.) 학위 논문(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7), 11도 보라.

205) “김명순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206) “김명순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207) Cf. <성약 출판 소식> 제42호 (2003)에 실린 “허암 김홍전 목사 약력.”

208) 이는 김홍전 목사님의 동생되시는 김대전 장로님께서 평소 하였던 말씀으로 1982년부터 합신에서 같이 공부한 외우(畏友) 조창석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다.

209) 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80, 강조점을 덧붙인 것임. 폴린 말스배리의 음악 교육에 대한 정보는 “Pyongyang Foreign School, 1934-35,” 6-7에서, 그리고 그녀의 활동에 대한 정보는 홍정수 해제, “나운영 음악자료 8. 드와이트 말스배리,” 『음악과 민족』 24 (2002): 195-205에서 가져와 제시하고 있다. 마두원이 그 부인과 함께 피아노 연주를 한 기록으로 『송실대학교 100년사』, 1권: 평양 송실 편 (서울: 송실대학교출판부, 1997), 367-73도 보라.

를 사사받았다(1935년 10월부터 1937년 8월). 이때 허암은 숭실전문 학생이던 김진홍, 윤병식, 박윤선(1905-1988), 방지일(1911-2014) 등이 1931년부터 6년여 같이 내던 월간지 「겨자씨」에²¹⁰⁾ 같이 글을 내기도 하고 같이 동역했다고 한다.

그러다 1937년 9월에는 다시 전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1938년 3월까지 군산 멜볼던 여학교 음악 강사로 재직하였으며, 1938년 4월-11월에 다시 일본 도쿄에서 음악을 좀 더 깊이 연구하였고, 25세 되던 1939년 3월 28일에 김가일 여사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는 다시 평양으로 가서 마두원 선교사에게서 음악을 더 공부하였다(1939년 4월-1940년 10월).²¹¹⁾ 이것이 허암이 마두원과 함께한 두 번째 시기이다. 1940년 마두원이 강제 출국을 당하니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마두원에게 음악을 배우고 교제하였다고 여겨진다.

1939년 평양에 있던 마두원 선교사의 집에서 새벽기도회에 당시 목사도 아니고 음악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마두원 선교사가 레위기를 강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통역을 당시 20대의 젊은 청년 김홍전이 했다고 한다.²¹²⁾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강설에서 예배의 원리를 찾아 제시하던 마두원의 논의가 젊은 김홍전의 생각에 생각할 씨앗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²¹³⁾ 이때 마두원 선교사가 어떤 말씀을 하였는지 알 길은 없다.

그런데 오랜 후인 1956년에 당시 부산에서 사역하시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김진홍 목사님 등과 함께 내시던 짧은 월간지인 「파수군」 54호인 1956년 7, 8월호에 마두원 선교사의 “레위기 강해”라는 글이 실려 있다.²¹⁴⁾ 이때는 마두원 선교사가 1948년에 목사로 다시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면서 고려신학교를 돕고 있는 때였다. 이글의 부제를 “피뿌림의 의미”라고 하고서 마두원 선교사는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1) “속죄제의 경과에 있어서 주검은 죄의 형벌에 관계된다.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할찌니라”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²¹⁵⁾ “희생의 제물에서 흘러나온 피는 드리자의 조의 자복과 가기의 죄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승인을 내포하였다..... 그 피는, 죄가 이미 처리되고 사망이 극복된 까닭에, 그 때부터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에 참가할 수 있는 ‘생명’이었다. 그 피는 그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성소의 휘장 앞에 곧 여호와 앞에(레 4:6) 가져와서 일곱 번을 뿌리고, 향단에 발랐던 것이 바로 이 피다.”²¹⁶⁾

(2) “죄가 처리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²¹⁷⁾

(3) “희생의식은 피가 뿌려지기까지 결단코 완성될 수 없었다. 환언하며, 하나님께로의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는 그 희생은 완전하지 않았다.... 사망을 통과

210) 다른 곳에서도 언급이 있지만,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수위니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26; 방지일, “방지일 목사가 기억하는 박윤선 목사(3)”, 『박윤선과의 만남 1』 (서울: 영음사, 2013)를 보라(<http://repress.kr/28211/>).

211) 서문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서문교회교회100년사』 (전주: 대한예수교장로회서문교회, 1999), 449; <성약 출판 소식> 제42호 (2003)에 실린 “허암 김홍전 목사 약력.”; 조창석, “허암 김홍전 목사의 개혁파 예배관 연구”, 11.

212) 박시영, 『태양신과 맞서 싸운 신앙의 투사 이인재 목사』, 부산-경남 기독교역사연구회 전기총서 1 (서울: 태양, 2006), 81. 이 책에는 후대의 칭호를 사용해서 “김홍전 박사가 통역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허암은 마두원에게 음악을 사사 받던 20대 청년이었다.

213) 이렇게 논의한 김명순 목사, 조창석 목사, 이승구의 2025년 2월 21일자 대화를 참조하라. 후에 잘 표현된 구약의 제사의 정신에 대한 표현으로 김홍전, 『중생자의 삶』 (서울: 도서 출판 성약, 1985), 185-88; 김홍전, 『기도와 응답』 (서울: 성약, 2017), 125 등을 보라.

214) 마두원, “레위기 강해: 피뿌림의 의미”, 「파수군」 54 (1956년 7, 8월호): 37-40

215) 마두원, “레위기 강해: 피뿌림의 의미”, 37.

216) 마두원, “레위기 강해: 피뿌림의 의미”, 38.

217) 마두원, “레위기 강해: 피뿌림의 의미”, 38.

하고 그것을 극복한 생명은 제사장이 취하여 상징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앞에바친바 되었고, 그곳에 뿌려졌을 때에, 그것은 제물 드리는 자가 사죄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였다.”²¹⁸⁾

(4)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피로써” 하늘 성소에 들어가자 “죄인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회복하셨다.”²¹⁹⁾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곳,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 그 안에서(In Him) 열납되었고 사유함을 받았으며, 자유하게 되어 회복하였다. 계시록 12:11에 나타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싸움을 이긴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부터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²²⁰⁾

(5) 그런데 “죄인은 결단코 피를 뿌릴 수 없다. 하나님께 피를 효과적으로 드리는 일은 죄인의 행위로 될 수 없다. 제물드리는 자의 공로나 영적체험 신앙에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아닐뿐더러 열납(悅納)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관하여는 오직 우리 하늘의 대제사장께서만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실 수 있다.”²²¹⁾

짧은 글에 있는 짧은 논의이지만 마두원 선교사는 1939년 평양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였을 것으로 추론되며, 이 글에 우리의 공로와 행하는 바에 근거해서는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야 한다는 허암의 후대의 강조와 일치하는 바가 있으니 이런 가르침이 20대 청년이었던 허암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 놀라운 구속을 찬양하고 높일 목적으로 결국 허암은 음악 공부에 열심히 내어서 한참 후인 37세의 나이에(1951년 6월-10월) 시카고 센트랄 콘서바토리(Central Conservatory of Chicago)에서²²²⁾ 작곡을 연구하고 “Symphony in D minor”로 명예 음악학 박사를 취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음악이 교회 공동체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마두원에게서 허암에게 미쳐졌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음악을 계획하고, 그 음악 위에 은혜를 부으셨다”고 한²²³⁾ 마두원 선교사의 생각이 허암에게도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마두원 선교사는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했고 그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할 때인 1940년에 마두원 선교사는 당시 그가 가지고 있

218) 마두원, “레위기 강해: 피뿌림의 의미”, 38.

219) 마두원, “레위기 강해: 피뿌림의 의미”, 39.

220) 마두원, “레위기 강해: 피뿌림의 의미”, 39.

221) 마두원, “레위기 강해: 피뿌림의 의미”, 39-40.

222) 지금은 없어진 음악학교인데 그 종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혹시 지금은 사라졌으나 1857에서 1981까지 있었던 미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콘서바토리인 Chicago Conservatory College인지? (그러므로 1865년에 시작된, 흔히 미국서 처음 만들어진 콘서바토리라고 하는 오벌린 콘서바토리와 1867년에 4번째로 시작되었다는 시카고 음악학교보다 먼저 있던 음악교육 기관이었다던 이 음악학교인지 자신은 없다. (Chicago Conservatory College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얻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The_Chicago_Conservatory_College).

오벌린 음악학교는 1921년에 내한 한 선교사 루츠(Mrs. D. L. Lutz, 1888-1979)가 음악 교육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김사랑,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77 참조).

223) 마두원, “Koreans and Sacred Music,” *Korea Mission Field* 1934년 2월호, 28-30, 권경란, “선교 초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1930년 이전에 활동한 선교사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9에서 재인용.

는 “방대한 영어 장서를 김홍전에게 주었다”고 한다.²²⁴⁾ 그것을 평양에서 전주 지역으로 옮겨서 그 장서를 통해 허암은 개혁신학과 많은 학문을 독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홍전에게 주어졌던 마두원 선교사의 책들은 후에 6.25 중에 소실되었고, 그중 일부는 시장에서 물건을 싸주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²²⁵⁾

1940년 11월부터 1944년 3월 동안에는 전주에서 음악 개인 교수 및 영생보육학원 음악 강사를 하였으나 1944년 4월부터 1945년 8월 독립 때까지는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체의 직(職)을 갖지 못하고 심한 환난 중에 지내기도 하였다.²²⁶⁾ 이때 허암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때때로 야산에 가 있기도 하였다는 말도 들었고,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는 허암의 기록을 본 일도 있다.²²⁷⁾ 흥미로운 것은 이 어려운 기간 중인 1942-44에 허암은 한국 최초로 <오라토리오 루디아>(Ruth)을 작곡하였다.²²⁸⁾ 조창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홍전 박사는 일제의 박해 속에 칩거 중이던 1943-44년에 오라토리오 「루디아」를 작사, 작곡하였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를 따져보면 29세에서 30세 되던 청년 시절이다.”²²⁹⁾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겪은 고초가 나옴이와 롯데 겪는 어려움에 투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45년 해방(31세) 후에 허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음악 활동이었다. 즉, “1945년 8월부터 11월에는 전라북도 교향악단을 조직하여, 작곡과 편곡, 지휘를 하였고, 9월과 11월에 두 차례 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²³⁰⁾ 1945년 11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전북 군정청의 자문관 겸 통역을 하였는데,²³¹⁾ 이때 미국 달러로 급여를 받아 생활이 어렵던 목회자들을 도왔다고 한다.²³²⁾ 1949년 3월에서 12월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편집 표준 성경 주석>의 번역 위원으로 선교사가 쓴 『이사야서 주석』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1949년 12월-1950년 초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국제기독교협의회(ICCC) 지역회의에 참석하여 부의장에 피선되기도 하였다.²³³⁾ 그러다 허암은 6.25 당시였던 1950년 9월부터 1년간 델라웨어 주에 있는 페이프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1951년 6월-10월까지 미국 미시간 주 소재 Central Conservatory of Chicago에서 작곡학을 연구하여 “Symphony in D minor”로 명예 음악박사 학위 취득하였고,²³⁴⁾ 이승만 대통령의 특사로 미국에 파견돼 장면 대사와 함께 외교활동도 했다고 한다.²³⁵⁾ 또한 ICCC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스위스에도 파견

224) “김명순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225) 허암 김홍전의 사모님이신 김가일 여사의 증언을 김명순 목사와 조창석 목사께서 전하여 주었다.

226) 이상의 정보를 말하는 조창석, 허암 김홍전 박사의 개혁파 예배관 연구”, 11.

227) 2000년경 있었던 “유영춘 집사와의 인터뷰” 때에. 물론 1961년 곡이지만 찬송 195쪽에 있는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찬송 가사는 이런 때의 경험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황막한 저 광야의 오로운 길을 한 나그네는 쓸쓸히 걷고 있구나. 거친 길을 가노라 피곤한 그 모습 천성 가는 내 모양 이리하여라.”

228) 이를 제대로 초연한 것은 2020년 2월 8일에 영산아트 홀에서 이루어진 공연이었다. 공연 실황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0JYl_973AZw)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R_u9LQJ5y0c)

229) 조창석, “허암 김홍전 박사의 개혁파 예배관 연구”, 11, n. 7.

230) 조창석, “허암 김홍전 박사의 개혁파 예배관 연구”, 11.

231) 조창석, “허암 김홍전 박사의 개혁파 예배관 연구”, 11.

232) 김 목사의 사위인 최등영 가정의가 전한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 신문인 <시사 한계례> (2018년 8월 8일자) (<https://sisahan.com/4137>)에서 재인용.

233) 조창석, “허암 김홍전 박사의 개혁파 예배관 연구”, 11.

234) <성악 출판 소식> 제42호 (2003)에 실린 “허암 김홍전 목사 약력.”; 조창석, “허암 김홍전 박사의 개혁파 예배관 연구”, 11.

되기도 했었다고 한다.²³⁶⁾ 다시 귀국하여 1952년 4월부터 1954년 8월 사이에는 전주에 본부를 둔 남장로교 선교회에 소속하여 당시 대표였던 선교사 인돈(William A. Linton)²³⁷⁾ 도와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출판부장 겸 월간 『복된 말씀』 주간으로 활동하면서, 대전기독교학관(현, 한남대학교)을 설립하는 일을 돕고, 초대 학장을 한 인돈을 도와 부학장을 하기도 했다.²³⁸⁾

그런가 하면 마두원은 1948년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부산 고려신학교에서 강의 하며 고려신학교 건물을 마련하는 비용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²³⁹⁾ 마두원의 두 번째 사역기(1948-1977)에는 초창기 이후에는 허암과의 접촉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특히 1961년 성경장로교회라는 교단을 마두원 선교사 등이 주도해서 형성되게 할 때 즈음은 그와의 관계가 거의 있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마두원 선교사가 ICC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근본주의적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리된 일이 아닌가 짐작한다.²⁴⁰⁾ “마두원 선교사 등은 ... 성경장로회 창립에 가담하면서 고신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말하는 나삼진 목사의 말이²⁴¹⁾ 철저한 개혁신학을 지향하던 허암에게서도 같이 적용되리라고 여겨진다.

허암은 40세 되던 1954년에 다시 미국에 가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드랍시(Dropsie) 대학교에서²⁴²⁾ 공부한 후(1954-55), 1955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스라엘 정부 및 The Jewish

235) 2003년 7월 8일자 「전북일보」 기사 중에서(<https://www.jjan.kr/96619>).

236) “제네바 ICC 모임에 파견됐는데, 당시 여권도 없이 맥아더 장군의 추천서만 들고 갔다가 공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한 사위인 최등영 가정의의 말을 보도한 <시사 한겨레> (2018년 8월 8일자) (<https://sisahan.com/4137>) 참조.

237) 인돈에 대해서는 한남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를 보라: http://lintonacademy.hannam.ac.kr/sub2/menu_1.html. 또한 다음도 보라. 한인수, 『호남교회형성 인물』 (서울: 경건, 2000); 한인수, 『(미국남장로교 선교회의) 호남 선교 초기 역사』 (서울: 경건, 2011); 안기창, 『미국 남장로교 선교 100년사』 (서울: 진흥, 2010); 송현숙, 『미남장로회 선교사역 편람: 1892-1982』 (서울: 현대문화, 2012); 송현강, 『미국남장로교의 한국선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특히 오승재, 『인돈 평전: 윌리엄 린턴의 삶과 선교사역』 (서울: 지식산업사, 2003)을 보라. <남장로교·한국선교(1892-1942)>라는 홈페이지에 잘 정리된 자료들도 보라(<https://kmhistory.com/>).

238) “김명순 목사와의 인터뷰” 참조.

239) 교회사 책이 아닌 고려신학교 역사를 다루는 증언들에는 이때 마두원의 강의와 신학교 송도교사 건축을 돕는 일과 교회들 개척하는 일을 돕는 기록이 곳곳에 있다. 나삼진, “다큐 ‘고신교회 70년 역사 산책’(23) 고신교회와 동역하였던 선교사들”, <고신 뉴스 KNC> (2022년 5월 3일자) 기고문 (<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18>); “최의손(William H. Chisholm), 마두원은 고려신학교 송도교사를 조성할 때 주한미군과 연결, 토목공사를 도왔고.”

240) “김명순 목사와의 인터뷰” 참조.

241) 나삼진, “다큐 ‘고신교회 70년 역사 산책’(23) 고신교회와 동역하였던 선교사들”, <고신 뉴스 KNC> (2022년 5월 3일자) 기고문 (<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18>).

242) 미국의 법률가로서 필라델피아에 기차는 놓은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여러 유대인 대학(Maimonides College [1867-1873], the Philadelphia branch of the 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 [1883-1893], Gratz College [1893-])의 총장을 한 유대인 교육가이기도 Moses Aaron Dropsie (1821-1905)의 유언에 따라서 1907년에 시작된 유대교 연구 교육 기관인 드랍시 대학교(Dropsie University) 또는 히브리어와 동족 학문을 위한 대학(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은 히브리어와 셈어 연구 기관으로 한동안 융성하게 활동하며 200여 명에게 학위를 주었는데[그 대표적인 분들로 Edward J. Young (1907-1968), R. Laird Harris (1911-2008), William Sanford LaSor (1911-1991), 앗시리아 학과 이집트 학 전공자인 Meredith G. Kline (1922-2007), 플러 신학교 출신으로 학위 후 뱌엘 신학교에서 가르친 Ronald F. Youngblood (1931-2014), 달라스 출신의 Kenneth Lee Barker (born 1931), Raymond B. Dillard (1944-1993), 졸업은 하지 않은 Cyrus H. Gordon (1908-2001) 등을 들 수 있다], 1986년부터는 학위를 주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한 부분으로 유대교 연구를 위한 카츠 센터(the Katz Center for Advanced Judaic Studies)가 되었다. (이상의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얻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Dropsie_College_for_Hebrew_and_Cognate_Learning).

Agency 초청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화, 사회, 인류학과 언어 등을 연구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1955년 말부터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지금의 유니온 장로교 신학교[Union Presbyterian Seminary]로 개명함)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1956)와 신학박사 학위(1957)를 하게 된다. 허암이 왜 버지니아의 유니온 신학교로 유학했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궁금했었다. 아마도 한동안 그들과 관련하여 일하던 남장로교 선교사들과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볼 뿐이다. 버지니아 주의 유니온 신학교는 전통적으로 남장로교 교단 신학교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남장로교에서 파송되었던 이눌서(李訥瑞, William Davis Reynolds, 1867-1951) 선교사가 졸업한 학교(1890-1891년 재학)였다. 또한 배재 학당 출신으로 한인 최초의 신학박사이자 평양신학교 최초의 한국인 교수였고 1932년 제21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의장으로도 섬겼던 남궁혁(1882-1950년 8월 남북)이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1929년) 학교이기도 하다.²⁴³⁾

허암은 1956년 5월에 “다니엘서의 네 가지 환상: 그 환상들에 대한 세대주의적 해석 및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으로 신학석사 학위를 하였고,²⁴⁴⁾ 1957년에는 “사해 문서의 메시아 개념”에 대한 연구로 신학박사 학위를 하였다.²⁴⁵⁾ 그 뒤에 한철하 박사(1924-2018)가 1960년에 칼케톤 기독교론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이곳에서 한다.²⁴⁶⁾

귀국한 후 허암은 1959년에서 61년까지 서울역 근처에 사무실을²⁴⁷⁾ 둔 「민국(民國)일보」 주간을 하게 된다. 자유당 기관지가 고려제지로부터 종이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대금이 밀리고 4.19로 자유당이 해체된 상황에서 고려제지가 이 신문사를 인수받아 1961년에 군사 쿠데타가 날 때까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일부 지식인들의 합류로 시작된 「민국일보」의 몇 년간의 활동이 있었다.²⁴⁸⁾ 이 당시에 관동대학 재단이사장, 극동방송 이사장, 외무부 외교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²⁴⁹⁾

당시 피카딜리 극장 근처인 봉익동에 있던 집도 가깝고 평양서부터 교제가 있던 이대영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승동 교회에 부모님과 동생 되는 김원전 등과 같이 출석하던 중 김홍전 박사는 1962년 11월부터 성경공부반을 지도하게 되었는데,²⁵⁰⁾ 당시는 WCC 문제로 일어난 승동 교회의 분규가 있던 때였다. 얼마 후 일부 교인들이 이탈하여 삼청공원 근처에 통합

243) “1925년 미국 유니언신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한 남궁혁은 귀국과 동시에 모교인 평양장로회신학교에 한국인 최초의 교수로 부임하기에 이른다(1925). 귀국 후 박사학위 논문을 유니언 신학교에 제출한 그는 1929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박성현 기자, “한국 신학박사 1호 남궁혁 목사의 숨겨진 생애”, <월간중앙> (2016. 12. 22.))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688].

244) Hong Chun Kim, “Four Visions in the Book of Daniel: A Presentation and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Dispensationalist Interpretation of the Visions,” Union Theological Seminary, Richmond, Virginia, 1956. 한역, 『다니엘서의 네 가지 환상』 (서울: 성약출판사, 2014).

245) Hong Chun Kim, “The Messiah Idea in the Dead Sea Scrolls,” Union Theological Seminary, Richmond, Virginia, 1957.

246) Cf. 박용규, “아시아 복음주의 신학의 거성(巨星), 한철하(韓哲河)”, 2018년 3월 20일자 <코람데오닷컴>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52).

247) 그 사무실이 현재 경제 신문사 자리라고 한다. (2025년 2월 21일 (금) 오후에 오송에 있는 허암 연구소에서 있었던 김명순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248) 이상은 “김명순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에 의존한 진술임을 밝힌다.

249) <성약 출판 소식> 제42호 (2003)에 실린 “허암 김홍전 목사 약력.”; 조창석, “허암 김홍전 박사의 개혁파 예배관 연구”, 12.

250) 여러 증언이 있고 김 박사님 자신이 “1962년 11월부터 성경공부로 모이기 시작해서”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김홍전, 『두 가지 성례, 성찬』 [서울: 성약, 2015], 15). 이 강설은 1972년 3월 12일에 한 강설인데, 이는 1972년 부활주일에 성약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성찬 예배를 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의 첫째 내용이다.

측 교회를 세워서 나가자 승동 교회가 안정되었으니 승동 교회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여 일부는 돌아가고 계속 모이기를 원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반으로 모이다가 1964년 1월 첫 주일은 5일부터 교회로서 모인다고 선포하고 시작된 것이 성약 교회다.²⁵¹⁾

처음에는 집에서 모이다가 인의동에서 모이기도 하였고,²⁵²⁾ 5.16 후에 비어 있던 <고려 제지 서울 사무소> 자리였던 동자동의 건물로 1965년 봄에 옮겨 예배하기 시작했고, 이 건물을 구입한 것이 1974년이라고 한다.²⁵³⁾ 성약 교회를 목회하던 김홍전 박사의 후임으로 1996년 독립개신교회(ITC) 최초 목사 임직자인 김명순 목사가 2대 목사로 섬기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사역하였다. 강변교회는 1974년에 영등포구 당산동의 있던 다옥 섬유 주식회사 내에 교회가 서게 되었고 최낙재 목사께서 목회하셨다.²⁵⁴⁾

III. 허암의 기여(1): 전반적 기여

허암 김홍전 박사의 기여를 전반적으로 언급하면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면서 성경과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교회와 교우들에게 어떻게 은혜의 방도로 작용하는지’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다음 같은 기도에 이런 정신이 잘 드러난다: “주께서 그 거룩한 빛으로 저희들에게 비취사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뜻을 더욱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²⁵⁵⁾ 허암의 큰 기여를 세부적으로 언급하자면, (1)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제시, (2) 개혁신학에 근거한 신학과 목회의 제시와 실천, (3) 따라서 명확한 성경적 교회관을 분명히 제시한 것, (4)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즉 신령한 자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시, (5) 하나님 나라라는 호방한 사상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실제 하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6)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7) 세대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 (8)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에 대한 학문적 제시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아 이해에 대한 바른 제시, (9) 예수님의 행적과 비유 등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해석의 시도, (10) 성경 공부에서 드러나는 개혁신학적 설명의 묘미, 그리고 다음 절에서 따로 다루려고 하는 (11) 성경적 예배와 찬송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제시와 실천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제시

허암의 가장 큰 기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곳곳의 그의 강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에 잘 나타나 있다.²⁵⁶⁾ 여러 곳에서 강설하셨지만 특히 일본에 방문하여 가르치던 중 하셨던 강설의 내용을 김 박사님의 사모님이신 김가일 여사께서 번역한 이 책에서 무엇보다

251) 이상은 “김명순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에 의존한 진술임을 밝힌다. 또한 김홍전, 『두 가지 성례, 성찬』, 15.도 보라.

252) 그 장소가 지금은 서울중앙교회(고신측) 교육관이라고 한다(“김명순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253) “김명순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254) 강변교회가 처음 예배하였던 1974년 7월 7일자 강설과 8월 11일, 10월 13일, 그리고 10월 20일에 했던 강설들이 모아 출판된 것이 『예배란 무엇인가』 (전주: 도서 출판 성약, 1987)이다.

255) 김홍전,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I』 (서울: 성약, 1994), 1994년 10월 29일자로 되어 있는 저자 서문 중에서,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256) 김홍전, 『복음이란 무엇인가?』 (1973; 서울: 성약, 1998).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속죄의 사실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복음이 무엇이며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어 주셨다. 또한 1970년 1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11회에 걸쳐 강설했던 『중생자의 생활』에서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²⁵⁷⁾ 죄의 권세(the dominion of sin)에서도 벗어났고 또 계속해서 벗어나 과연 복음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²⁵⁸⁾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그 풍성한 함의를 잘 나타내었다.

(2) 개혁신학에 근거한 신학과 목회의 제시와 실천

위의 복음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도 결국 신학적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펠라기우스주의의 자력 구원설을 비판하고, 천주교회를 비롯한 여러 곳의 반(半)-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를 비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알미니우스의 사상(Arminianism)을 비판하고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중생시켜서 주께서 친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암은 신학이 철저한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임이 곳곳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다. 모든 면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지만 행위언약 개념에 충실하여 원의를 가지고 온전히 창조된 아담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위치의 생명”²⁵⁹⁾ 또는 “더 충만한 의미의 생명”이라는²⁶⁰⁾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고 정확히 지적하신다.²⁶¹⁾

신학 각 분과의 내용을 가르치시는 데서도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참으로 개혁파적인 목회를 하려고 애썼음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혹 독립개신교회가 한동안 감독제를 취한 것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으나 그것은 당시 형편상 그렇게 한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장로교회 체제가 지향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결국은 평의회 중심으로 나아가려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장로님들을 좀 더 중시하는 실천적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실천에서의 부족은 좋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는 것이니 그것을 자꾸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3) 따라서 명확한 성경적 교회관을 분명히 제시한 것

이는 특히 『교회에 대하여』 1, I, III, IV에서 잘 제시되어 있으며, 더구나 『사사기 소고』 1, II, III에서는 사사 시대의 구약 교회의 실상을 잘 제시하면서 그로부터 우리가 교훈 받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에 대한 귀한 해

257) 김홍전, 『중생자의 삶』 (전주: 도서 출판 성약, 1985), 29-30;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242; 『인간과 죄 I』 (서울: 성약, 2016), 89-90, 197.

258) 특히 김홍전, 『중생자의 삶』, 86-88, 89.

259) 김홍전, 『인간과 죄 I』 (서울: 성약, 2016), 237.

260) 김홍전, 『인간과 죄 II』 (서울: 성약, 2017), 309.

261)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295. 1971년에 가르치신 『인간과 죄』에서는 이것이 더 자주 언급된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죄 I』, 32-36, 236-38; 김홍전, 『인간과 죄 II』, 308-309, 311 등 보라.

석이요 적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성약 교회가 8년째 되던 해인 1971년 10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6일까지 주일 오전과 오후에 19번에 걸쳐 강설한 요한 계시록 1장-3장에 대한 강해도²⁶²⁾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함, 특히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의 문제를 잘 드러낸 좋은 강설이었다. 또한 후에 언급할 사도행전에 대한 시리즈 강설도 교회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여였다.

일단 교회는 그 장성의 정도가 어떻게 되든지,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자라야 하겠고 교회로서의 자기 구실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하신다.²⁶³⁾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은 말씀에 의한 거룩한 교회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다.²⁶⁴⁾ 그렇게 삶으로 주어진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보면 주께서 더한 사명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들어 쓰셔서 “빛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신다.²⁶⁵⁾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신다.²⁶⁶⁾

(4)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즉 신령한 자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시

이것은 다음 절에서 강조할 것과 함께 허암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가장 개혁파적인 부분인데, 한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적었기에 가장 중요한 기여요 허암의 특색을 잘 말해 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허암은 우리가 죄를 범하려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인정하는 심정이 생길지라도” **“함부로 거연(遽然)히 열른 뛰어 들어가서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그때마다 주저하여 성신님께 의지하라”**고 하신다.²⁶⁷⁾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를 주장하심으로 내가 인간의 힘으로 이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이 불의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신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온전히 해방하신 큰 사실을 여기서 다시 현실상 체험해 나가게 하소서.”²⁶⁸⁾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다 맡기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신령한 자의 기본적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의식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 붙어 다니지 아니할 때” 그것이 “순결한 심정”이라고 하신다.²⁶⁹⁾ 특히 죄의 유혹 앞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유혹을 피하여야 하고 그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유혹을 피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다. 그래서 허암은 주께 기도할 때에 “언제든지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심정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²⁷⁰⁾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262) 김홍전,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서울: 성약, 2014).

263)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229.

264)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232.

265)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232.

266)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233.

267) 김홍전, 『중생자의 삶』, 91,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268) 김홍전, 『중생자의 삶』, 91.

269) 김홍전, 『중생자의 삶』, 91. 이에 따라오는 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하는 동안에는 아직도 ‘나’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270) 김홍전, 『중생자의 삶』, 93,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김홍전, 『인간과 죄 I』 (서울: 성약, 2016), 219-23도 보라.

가지게 된다.²⁷¹⁾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만 하면 “그리로 나가겠다는 심정”이 있게 되어야 한다.²⁷²⁾ 즉, 중생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과 자기의 사명 전체에 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²⁷³⁾

이때 성령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깨우쳐 주셔서 해야 할 일을 하나라도 알게 하면²⁷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심정으로 한발씩 그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²⁷⁵⁾ 이것이 오랜 과정이 필요한 것임을 잘 표현하신다. “일보 일보씩 장성해” 가는 것이다.²⁷⁶⁾ 하나님의 뜻을 찾아 확인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신다.²⁷⁷⁾ 허암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방향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발을 걸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발을 보여 주십니다.”고 말한다.²⁷⁸⁾ 허암은 “**최소한도로 자기가 전진해야 할 한 걸음은 알아야 합니다.**”고 강조하신다.²⁷⁹⁾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생항에 있어서 주께 충성을 다하면 내일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서 주께서 예비케 하십니다.”고 하신다.²⁸⁰⁾ 주께서 인도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건전한 판단과 마음 가운데 무엇을 결론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신다.²⁸¹⁾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심정은 “그 길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간절히 요구한다”고 한다.²⁸²⁾ 즉,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생각해서 신성한 의무감과 책무를 느껴서” 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²⁸³⁾ 이때 구체적인 어떤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일단 어떤 자리에 놓아두신 후에는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다**’하고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임을 잘 말씀하십니다.²⁸⁴⁾

271) 김홍전, 『중생자의 삶』, 196. 이와 대조되는 것은 “자기의 이상이나 자기의 행복 추구나 자기의 소견에 좋다고 하는 대로... 자기 주장 가운데 나타내어 ... 그것을 가지고 자기 종교를 떠받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206, 208, 209).

272) 김홍전, 『중생자의 삶』, 196. 이와 대조되는 것을 “그냥 호기심으로 알아보겠다는 태도”라고 하십니다.

273) 김홍전, 『기도와 응답』 (서울: 성약, 2017), 90.

274) 그 과정을 설명하는 김홍전, 『중생자의 삶』, 198-99를 보라. 이때 같은 책, 68-69 내용도 보라. 특히 이것이 그냥 성경책이나 어떤 서적으로 읽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사용하여 은혜를 주셔서 되는 일이라고 설명하시는 것, 특히 “이 깨닫는다는 것은 성신님께서 내 안에 진리를 꼭 심어 주셔서, 그것이 마치 옥토에다 심은 것 같이 거기서 장성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고 설명하는 것을 참조하라(69,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275) 김홍전, 『중생자의 삶』, 199.

276)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336.

277) 김홍전, 『기도와 응답』, 81,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278) 김홍전, 『중생자의 삶』, 199, 204. “그렇게 다음 자리에 올라가서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 지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라고 하신다(204).

279) 김홍전, 『중생자의 삶』, 204, 김 박사님 자신의 강조점임.

280) 김홍전, 『중생자의 삶』, 205.

281) 김홍전, 『기도와 응답』, 86.

282) 김홍전, 『중생자의 삶』, 199-200. 이와 대조되는 것이 “자신을 강작(強作)하는” 것, 즉 “적극적으로, 간절한 욕망이 없이, 무리하게 밀고 누르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200). 그것은 “깍뎂기 만을 가작(假作)하는 것”이고, 속으로는 “싫은데 불가부득이 여러 가지에 얹매여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201). 이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허암은 매우 강조합니다(200). 성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강작(強作)하지 않으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163도 보라.

283) 김홍전, 『중생자의 삶』, 201.

284) 김홍전, 『기도와 응답』, 88,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이와 같이 성신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²⁸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신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지적으로 검토하고, 그 가능성에 관해서 생각하다가 최종적 문제에서 주께서 ‘이것이다’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내시(內示)로든지 외부 환경의 변화로든지 보여주시며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논리적인 추리와 사고의 축적 위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매치(match)되어서 빛을 번쩍 비출 때 “아,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재료를 터득하고 있어야 합니다.²⁸⁶⁾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도 한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은혜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며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바르게 사색하고 추리하고 있다가 주께서 섬광과 같은 지시를 내리실 때에,...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읽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 마땅한 일이요 심히 중요한 일이어서 교회가 항상 주위 말씀의 깊이 가운데 이렇게 자라야 할 것을 아옵나이다. ... 저희들도 ... 아버님이 주시는 어떤 현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²⁸⁷⁾

물론 이렇게 주님이 뜻으로 향해 나아갈 때도 곤란이나 핍박이 놓여 있음을 예상하게 되면 “유약한 신자들은 흔히 주저하게도 되고 또는 환란, 핍박을 피해서 갈 길은 없을까 하고 걱정하게도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믿고 방황함이 없이 전진합니다.”라고 하신다.²⁸⁸⁾ 즉,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속사람의 장성한 정도에 따라서 죄의 유혹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도 받게 되지만, 그는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벧전 5:7) 성신을 의지한다”고 하신다.²⁸⁹⁾

그래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는 “지금까지 깨달은 말씀의 도리로써 그 문제를 비추어 보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신님(요 16:13)”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에 따라²⁹⁰⁾ 결단하여 행하되 그것도 성령님께 의지하여 행하고, “이러한 때 성신님께서 인도치 아니 하실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거나 방황하지” 않는다고 한다.²⁹¹⁾

이런 것이 “거룩하고 신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삶은 “평범하지만 그 사람에게 접근하며 항상 부드럽고 아름답고 화기가 늘 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인격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움직일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는 것이 허암의 강조이다.²⁹²⁾ 그런 것이 토대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행하고” 나간다.²⁹³⁾

285) 김홍전, 『기도와 응답』, 88,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286) 김홍전, 『기도와 응답』, 89.

287) 김홍전, 『기도와 응답』, 93.

288) 김홍전, 『중생자의 삶』, 202.

289) 김홍전, 『중생자의 삶』, 203,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290) 김홍전, 『중생자의 삶』, 203.

291) 김홍전, 『중생자의 삶』, 203.

292)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164-65.

293)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9: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더라』 (서울: 성약, 2012), 37.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코노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역사 위에다 증거하고 증시해

(5) 하나님 나라라는 호방한 사상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실제하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

위에서 논의한 신령한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핵심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태가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논하였다.²⁹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큰 사상을²⁹⁵⁾ 정확히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허암의 가르침의 큰 특성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야 한다. 하나는 시기적으로 매우 이른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정리하여 가르치신 것이 큰 기여이다. 그리하여 그 제자 격이신 최낙재 교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에 가르침이 한국 교회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셨다. 박윤선 목사님도 그 전부터 이를 가르치셨고,²⁹⁶⁾ 최낙재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1977년부터 1985년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²⁹⁷⁾ 비슷한 시기에 박형용 박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²⁹⁸⁾ 그 이후에는 거의 모든 신약학 교수님들과 신학 교수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²⁹⁹⁾ 그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함의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고, 조금 후에 강조하려는 바와 같이 그 포괄성과 호방(豪放)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허암의 가르침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신이 말 씀하고 강조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상의 그 호방(豪放)한 성격과 의미를 잘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과 역사 전체와 관련하는 매우 큰 개념이라는 것이 허암의 강설에서 면면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후에 하나니 백성 시리즈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시리즈와 함께 성약교회가 출범하던 1964년 1월 5일부터 1966년 9월 28일까지 행한 사도행전 16장까지의

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신다(38). 313-14도 보라.

294) 김홍진, 『중생자의 삶』, 208.

295) 이를 표현할 때 대개는 “하나님 나라라는 호방(豪放)한 사상”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하셨다. 김홍진, 『사도행전 강해 9: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더라』, 315.

296) 특히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복음』 (1958 수정증보판, 서울:영음사, 1970, 15판, 1981), (특별 참조: 천국론, 133-42. 정암의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한 간단한 강조로 이승구,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개정판 (서울: CCP, 2018), 152도 보라.

297) 1977년부터 총신에서 가르치셨고 1980년부터는 합신에서 가르치신 최낙재 목사님께서 1985년 이후에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그만두시고 강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만 집중하셨기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최낙재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서울: 성서유니온, 1980)라는 소책자에 잘 나타나 있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을 1986년 4월 9일부터 1986년 7월 30일까지 강해하신 것에 2008년 1월 13일과 1월 20일 강설 두 편을 더하여 후에 출간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1, 2』 (서울: 성약, 2008, 2009)에 잘 나타나 있다.

298) 1977년 귀국하시면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하여 내신 박형용, “하나님 나라의 실현”, 『신학정론』 1/1 (1983): 106-35;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 『신학정론』 1/2 (1983): “예수의 왕국 선포에 관한 배경적 연구”, 『신학정론』 2/1 (1984): 4-29 등의 논문을 보라. 이 글들은 『신약성경신학』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5; 개정 증보판, 2022), 5장과 6장에 다시 실려 있다.

299) 이런 귀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그다음 단계의 논의로 이승구, “종말 신학의 프롤레고메나: 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향하며”, 『성경과 신학』 13 (1993): 193-225 (『개혁신학 탐구』 [최근판, 수원: 합신대학원 출판부, 2022], 제1장으로 재수록);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서울: 말씀과 언약, 2020), 6-8장; 양용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5); 오성종 교수님 등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의를 보라.

강설과 1974년 2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행한 13장까지의 강설, 그리고 1980년 8월 31일부터 1981년 3월 15일까지의 강설을 모아 낸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인 『내 증인이 되리라』부터³⁰⁰⁾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더라』까지의³⁰¹⁾ 9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성경 강해라고 할 수 있다. 허암은 “사도행전은 영광의 왕 예수께서 은혜의 왕국(*regnum gratiae*)를 지상에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최초의 약 한 세대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강해하신다.³⁰²⁾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는 이야기입니다”고 말씀하신다.³⁰³⁾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왕국은 찬란한 영광을 비추어 가면서 틀림없이 전진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고 하신다.³⁰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가르치시니 중간 상태가 영혼의 상태라고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정확히 가르치시고,³⁰⁵⁾ 또한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부활 후의 상태인 영광의 왕국(*regnum gloriae*)의 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르치셨다.

(6)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큰 기여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구약 교회)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왕정 시대에는 유대 나라 자체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³⁰⁶⁾ 구약 교회로 여겨져야 하며, 그 구약 교회의 상황을 유대와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정확히 드러내신 것도 들 수 있다.³⁰⁷⁾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에 대한 시리즈 강설 그 자체도 매우 의미 있어서 각각의 본문을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지침과론 통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연관시키면서 구약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잘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마치 칼빈의 주석이나 설교를 볼 때 교회적이고 목회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바와 같은 굉장한 목회적 통찰을 얻게 하고 있다.

(7) 세대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

허암이 살고 있던 시대의 상황을 잘 반영하면서 당시 한국 교회에 만연하던³⁰⁸⁾ 세대주의자들

300)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서울: 성약, 2005).

301)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9: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더라』 (서울: 성약, 2012). 그러므로 이 시리즈는 출간만 해도 7년이 걸린 것이다.

302)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40. 이를 288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신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과 배제(配劑) 혹은 오이코노미아(*οἰκονομία*)라는 역사의 시작과 최초의 1세대의 역사 기록입니다.”

303)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46. 같은 책, 307도 보라.

304)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289. 294도 보라.

305) 곳곳에 나타나지만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249를 보라.

306)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신 현실적인 국가 형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과거에 있었고...”(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48).

307) 1992년 5월 3일 주일부터 1995년 9월 17일까지 사무엘상하를 85회에 걸쳐 강설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I, II, III』 (서울: 성약, 2008, 2009, 2010)과 1988년 8월 31일부터 1990년 5월 6일 사이에 64회에 걸쳐 다윗 이후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역사를 강설한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I, II, III, IV (서울: 성약, 1994, 1995) 아주 아주 중요한 기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1978년 12월 17일부터 1979년 6월 24일에 행한 강설이었던 창세기 11:27-50장에 대한 강해인 하나님 백성 시리즈 (서울: 성약, 1998, 1999, 2000)에 이은 구약사에 대한 강설이요, 구약 교회에 대한 강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해석을 비판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 잘 드러낸 작업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환상들을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있는 대로 드러내고, 그들의 해석이 지난 문제를 잘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낸 작업은 계속되는 성경 해석 작업의 좋은 전범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답게 받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런 비판적 작업을 할 때 그저 비판을 위해 비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주어진 성경 계시의 계시적 의미를 잘 드러내고, 그에 근거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제시하셨다. 후대의 강설 속에도 그런 태도가 잘 나타나 있어서 세대주의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극복하면서, 동사에 주어진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신다.

(8)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에 대한 학문적 제시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아 이해에 대한 바른 제시

허암의 강설에는 이 문제에 대한 바르고 정교한 가르침이 곳곳에 드러난다. 그 모든 논의의 출발이 되는 논의가 1957년에 완성하여 제출하여 그것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사해 사본에 나타나 메시아 개념”이다. 자주 “사해 축서(死海軸書)”, 사해 근처에서 나온 두루마리 책들이라고 표현하신³⁰⁹⁾ 사해 사본에 나타난 쿨란 공동체의 메시아 사상을 잘 분석하신 이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었는데, 그와 연관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하는 사해 사본에 나타난 다윗의 아들 메시아와 요셉의 아들 메시아라는 두 메리아가 있어서 먼저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큰 전쟁에서 싸우다 죽으면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적을 물리치고 그를 다시 살린다는 두 메시아 이론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시고,³¹⁰⁾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유대적 메시아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논의하셨다.

이때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념을 설명하실 때 중요하게 사용하신 것의 하나가 리투아니아 출생의 유대인이고 시온주의자였던 요셉 클라우스너(Joseph Klausner, 1874-1958)의 작품이다. 1912년에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기 시작하여 1919년에는 그곳에 정착하고 1925년에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의 히브리 문학 교수(a professor of Hebrew literature)가 되어 여러 활동은 한 클라우스너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을 정리해 제시한 것이다.³¹¹⁾ 클라우스너는 예수님이 당대의 종교

308) 이것을 잘 드러내면서 초기 한국 선교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에 따라 초기 한국 교회의 한국 지도자들도 세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논의한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2), 242-87; 박용규, 『한국기독교교회사 II (1910-1960)』, 293-311을 보라. 언더우드와 게일(James Gale)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번역하였다는 것, 게일이 기독교 시온주의자였던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1841-1935)의 『예수 재림』(*Jesus is Coming*, 1891)을 번역하고 1913년에 출판한 것, 그가 1909년부터 1916년까지 평양신학교에서 종말론을 가르친 것, 1897년 숭실 학교와 1905년 숭실전문을 시작하게 한 배위량(William Blair)이 나아가라 성경사경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제임스 부룩스(James Hall Brooks, 1830-1897)의 『주재림론』(*Till He Come*)을 번역하고 간행한 것(1922), 길선주 목사 이명직 목사의 말세론의 성격, 그를 따르는 김응조의 강조점 등이 이를 잘 반영한다.

309)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66.

310)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신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66, 92을 보라.

를 개혁하려고 애쓴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으로서 이해될 때 가장 정확히 이해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헌신된 유대인으로(as a devout Jew) 죽으셨다는 입장을 가지므로³¹²⁾ 성경적 입장에 충실하지 않은 유대인 학자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 관념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잘 논의한 학자이기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학자들은 늘 클라우스너의 논의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된다. 김 박사님의 박사 학위 논문에 이 책과의 학문적 논의가 좋은 토대의 하나라고 여겨진다.³¹³⁾

이 논의에 비추어 허암은 후대의 강설에서 아직도 유대적 메시아 관점에 젖어 있는 제자들이 메시아 관념을 어떻게 고쳐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잘못된 유대적 메시아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지적하시면서³¹⁴⁾ 예수님에게서 배우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개념을 고쳐 갔어야 했으며, 후대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개념을 고쳐서 예수님께서 잘 계시해 주신 신인(the God-man)이신 메시아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지를 곳곳에서 잘 드러내시면 강조하셨다. 김 박사님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신인이심을 강조하신다. 특히 헬라어로 표현할 때 “띠-안프로포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곳곳의 강조점에서³¹⁵⁾ 성자께서 성육신의 결과로 어떻게 “신-인”이 되셨는지를 매우 강조하신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메시아는 그저 초연한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신적 메시아이심을 잘 드러내신 정통신학에 충실한 모습을 잘 드러내신다.

(9) 예수님의 행적과 비유 등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해석의 시도

아마도 칼빈의 ‘복음서들의 조화’(harmony of the Gospels)를 생각하시면서 칼빈같이 공관 복음서만이 아니라 사 복음서 전체를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하시고 그렇게 재구성된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강설하면서 그 의미를 잘 드러내신 것도 놀라운 기여의 하나이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의미를 잘 드러내신 것도 김 박사님의 큰 기여의 하나이다. 다양한 비유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각 비유의 독특한 의미들을 잘 드러내려 하신 것은, 때때로 나타나는 그의 천재성에서 비롯된 날아가는 논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장 전통신학에 충실한 논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

(10) 성경 공부에서 드러나는 개혁신학적 설명의 묘미

예배 가운데서의 강설 외에 예배 전에 성인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가르치심을 베푸신 것도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의미 있다. 이 내용은 마치 로이드-존스(1899-1981)가 1952년부터 1955년까지 금요일 저녁 시간에 성도들에게 약 81회에 걸쳐서 조직신학을 강의했던 그

311) Joseph Klausner, *The Messianic Idea in Israel: From Its Beginning to the Completion of the Mishnah*, trans. William F. Stinespring (New York: Macmillan, 1954).

312) 이런 입장을 제시하는 Joseph Klausner, *Jesus of Nazareth: His Life, Times & Teaching*, trans. Herbert Danby (New York: Macmillan, 1921); idem, *From Jesus To Paul*, trans. William F. Stinespring (New York: Macmillan, 1942).

313) 설교 중에 클라우스너에 대한 언급으로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93을 보라.

314) Cf.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46-48, 50, 70-72, 176-79.

315) 곳곳에 있지만 특히 김홍전, 『사도행전 강해 1: 내 증인이 되리라』, 42, 55 같은 곳을 보라.

리고 그 내용이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좀 더 평이하게 성도들에게 설명하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된, 그런데 이사야 14장의 계명성을 마귀와 연관시키는 것, 성령 세례 문제, 회중파의 교회 체제를 옹호하는 점, 유아 세례에 대해 정당한 논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 로이드-존스의 독특한 주장이 있는 몇몇 곳을 제외하면, 상당히 개혁신학적 내용의 설명이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다.³¹⁶⁾

로이드 존스의 설명이 때때로 비개혁신파적이고 좀 더 간명한 것에 비해서, 허암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개혁파 정통주의 입장에 매우 충실하면서 더 깊이 있는 사유를 하면서 각 교리와 그것이 근거하는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가고 있다. 허암 자신이 계속해서 각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하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고,³¹⁷⁾ 특히 인간과 죄 문제를 논의한³¹⁸⁾ 성경 공부 시리즈가 이런 특성을 잘 드러내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1972년 처음으로 성찬을 행할 때 주일 저녁 시간만이 아니라 3월 21일 화요일 저녁과 3월 22일 수요일기도회, 그리고 3월 24일 금요일 저녁에도 또한 3월 26일 주일 오전과 오후 뿐만 아니라 3월 28일 화요일 모임과 3월 29일 수요일기도회, 그리고 계속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4월 2일 주일 저녁에 성찬 예배하면서 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 보게 된다.³¹⁹⁾ 성경 공부한 내용을 볼 때나 강설의 내용을 볼 때 개혁신학과 성경에 충실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 가는 허암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IV. 허암의 기여(2): 찬송과 예배를 중심으로

허암은 자신과 성약 교회 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가장 신경 썼다.³²⁰⁾ 성약교회와 독립개신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지면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이를 실천하고 그런 바른 교회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배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함께 절하는 것임을 강조하셨다.³²¹⁾

예배와 관련해서 허암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강조한 중요한 것이 우선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으며 혹시 그런다고 해도 주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다는³²²⁾ 우리의 타락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316) Martin Lloyd-Jones, *Great Doctrines of the Bible*, vol. 1: *God the Father, God the Son* (Wheaton, IL: Crossway Books, 1996); vol. 2: *God the Holy Spirit* (1997); vol. 3: *The Church and the Last Things* (1998). 로이드-존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교리 강좌 시리즈 1』, 임범진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 :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 시리즈 2』, 임범진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 시리즈 3』, 임범진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317) 김홍전, 『하나님에 대한 묵상』 (서울: 성약, 1998). 그 내용은 성약 교회 주일 아침 공부 시간에 1971년 8월 1일부터 하신 공부의 내용이다.

318) 김홍전, 『인간과 죄 (I)』 (서울: 성약, 2016); 김홍전, 『인간과 죄 (II)』 (서울: 성약, 2017). 1권은 1971년 10월 17일부터 1972년 2월 20일까지의 19회에 걸친 주일 아침 성경 공부 내용과 71년 10월 20일 수요일기도회의 강설까지 20개의 가르침이 모아진 것이고, 2권은 1972년 2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회에 걸쳐 했던 주일 아침 공부의 내용이다.

319) 김홍전, 『두 가지 성례, 성찬』에 언급되어 있는 이 강설을 행한 날자들의 기록을 보라.

320)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논의로 조창석, “허암 김홍전 박사의 개혁파 예배관 연구”, Th. M. 논문 (국제신학 대학원대학교, 2007)를 보라.

321) Cf. 김홍전, 『예배란 무엇인가』 (전주: 도서 출판 성약, 1987), 73-74.

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명료히 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속죄의 공로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바른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허암의 큰 기여다. 허암은 “나 혼자 아무리 정성을 드려도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의 터 위에서만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해야 하며,³²³⁾ 찬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에서, 그의 속죄하신 큰 터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고 강조하신다.³²⁴⁾ 이런 정신이 없이 입으로만 부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찬송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³²⁵⁾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잘 강조한 것도 허암의 큰 기여이다. 찬양할 때 “성신님을 의지해서만 바른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자기 자신의 예술적인 기분이나 노래 부르고 싶다는 정신만을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항상 성신을 의지하고 성신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먼저 먼저 바라고, 신중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성신님의 은혜로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찬송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³²⁶⁾ 이런 정신은 허암이 직시한 현상송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현상송을 주께 드릴 때마다 성도들은 현상의 의미와 함께 예배가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 지를 늘 절감하게 된다.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으로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허암의 큰 가르침의 하나다.³²⁷⁾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는 매우 의식적으로 “내가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한다”고 해야 함을 곳곳에서 강조하여 허암은 참으로 예배하는 일이 발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허암은 늘 강조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해야 하는데,³²⁸⁾ “그분만 홀로 전부를 드려서 섬겨야 할 대상으로 알고 절”해야 한다고 한다.³²⁹⁾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의식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내 일생을 다 드려서 열심히 섬겨도 나의 정성을 끝 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섬긴다고 해도 그 분은 다함이 없는 분이다.”³³⁰⁾ 그러니 “하나님께 대해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절하는” 것이 예배다.³³¹⁾

이렇게 예배할 때 오직 성경이 말하는 요소들만 가지고 예배해야 함을 말하면서 예배의 요소들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잘못된 요소들은 빼고 성경이 언급한 예배의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고, 이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찬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 시편 여러 편에 곡조를 붙여서 시편 찬송을 하게 하고, 예배에 적합한 찬송 곡을 직접 작곡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322) 이를 허암은 항상 옛사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가납(嘉納)하실 만하지 않다”고 표현하셨다. 예배든지,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납(嘉納)하시는 것이다. Cf. 김홍전,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서울: 성약, 2003), 396.

323) 김홍전, 『중생자의 삶』, 189,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그리했다는 논의로 김홍전, 『기도와 응답』, 126을 보라.

324) 김홍전, 『중생자의 삶』, 188.

325) 김홍전, 『중생자의 삶』, 189,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326) 김홍전, 『중생자의 삶』, 189. 190도 보라(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327) 김홍전, 『예배란 무엇인가』, 77.

328) 김홍전, 『예배란 무엇인가』, 82.

329) 김홍전, 『예배란 무엇인가』, 83.

330) 김홍전, 『예배란 무엇인가』, 83.

331) 김홍전, 『예배란 무엇인가』, 83. 그래서 맨 처음에 말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만 예배가 가능한 것이다.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려고 애쓴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약교회가 교회로서 모이기를 시작한 1964년도에 많은 찬송이 작곡된 것을 보면 교회의 예배가 바로 드러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얼마 힘썼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허암이 예배 모범으로 제시한 바에 따라 예배하려고 하는 성약교회 등은 예배로의 부름 이후 시작하는 기도 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Gloria*)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인 거룩송(*Sanctus*)을 올려 드리고, 목회 기도를 한 후 하나님께 예배함을 표현하는 경배송(worship)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奉讀)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구속된 자들로서 자신들을 온전히 드린다고 선언하는 헌상송(offertory)을 같이 드리고 헌상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성도들이 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말씀 강설을 하고 적용을 위한 기도를 한 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송영(doxology)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형식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과연 자신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고³³²⁾ 깊이 느끼면서 교제한다.

마두원과 허암을 같이 생각할 때 찬송과 예배에 대한 바른 강조를 하는 것은 두 분 모두에게 매우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분 모두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예배와 찬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에 부합한 예배와 찬송을 하길 원하셨다.

나가면서: 마두원과 허암, 그리고 우리들

마두원 부처가 허암에게 음악과 특히 피아노를 잘 가르쳐 주었고,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음악을 잘 사용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나 바른 예배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나 특히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 나라라는 호방한 사상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 허암은 마두원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³³³⁾ 아마 마두원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마두원에게서 잘 가르침 받고서 그보다 훨씬 뛰어난 족적(足跡)을 역사에 남긴 허암 김홍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최소한 이분들의 좋은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 근거해서 개혁신학에 충실하게 가르쳐진 허암의 가르침을 잘 새겨야 한다. 이미 잘 가르쳐진 개혁신학이 잘 녹아 있는 귀한 가르침을 잘 배워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결적 과제다.

332) 경배송 중에서.

333) 김홍전 박사를 극찬하는 글 중 별로 김 박사님과 연관성이 없는 박영선 목사님의 “기독교 역사에서 10대 학자를 뽑으라면 이분이 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바울 이후로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꼽아 나가다보면 김홍전 박사가 낄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신학자들을 다 제치고 이 분이 낄 정도로 신학세계가 방대하고 웅장한 분”이라고 하면서, “뛰어난 언어학 이해, 해박한 역사 지식, 일관된 신학적 해석, 이런 면에서 이분을 따라올 학자가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박영선, 『설교자의 열심』 [서울: 규장, 1999], 191).